

총괄

이진면(연구위원)

경제금융 동향

세계경제 이정환(선임연구원)

국내경제 황진태(부연구위원)

금융경제 변혜원(부연구위원)

최이섭(연구원)

국내보험시장 동향

이경희(전문연구위원)

황진태·변혜원(부연구위원)

박정희·김세중(책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해외보험시장 동향

이정환(선임연구원)

박정희·김세중(책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이정환(선임연구원)

박정희·김세중(책임연구원)

최이섭(연구원)

보험동향

2010년 봄호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목 차

테마진단	1
생명보험회사의 생산성 변화 분석	1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원인 분석과 시사점(2000년대를 중심으로)	20
경제금융 동향	42
1. 세계경제	42
2. 국내경제	64
3. 금융경제	75
국내보험시장 동향	83
1. 보험산업 총괄	83
2. 생명보험	85
3. 손해보험	96
해외보험시장 동향	117
미국 동향	117
일본 동향	123
중국 동향	131
유럽 동향	140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151
통계표	164

테 마 진 단

▣ 생명보험회사의 생산성 변화 분석

황진태 부연구위원

1. 연구목적

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은 일련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구조적 변화과정을 겪어옴. 여러 측면의 구조적 변화 중 본고는 효율성 측면에 초점을 두고 생산성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생명보험산업은 그 동안 외환위기, 방카슈랑스, 카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일련의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 변화과정을 겪어옴.
 -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33개였던 생명보험회사가 퇴출 또는 합병 등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는 22개사로 감소함.
 - 2003년 방카슈랑스 제도의 시행으로 감소세를 지속해오던 초회보험료가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2005년 카드위기로 인해 초회보험료가 다시 급감하는 변화를 겪음.
 - 최근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감소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도 크게 감소하는 등 경영성파가 악화됨.
- 이에 본고는 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에 대해 투입과 산출의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생산성 분석을 행함으로써 효율성 관련 변화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하고자 함.
 - 특히, 본고에서는 투입요소의 효율적 배합이나 사업규모의 효율적 조정 등 경영상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타 금융기관과의 제휴, 새로운

경영전략 추진 등의 기술적 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생산성의 변화를 측정·분석하여 향후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분석방법과 변수선정

분석방법으로는 DEA의 거리함수를 이용하여 기간 간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기술변화와 기술효율성변화로 분해하여 제시함. 이를 위해 선정된 산출변수로는 초회보험료와 투자영업수익이고, 투입변수로는 임직원, 설계사, 점포수이며, 국고채 5년 금리와 경기동행지수는 경기변동에 대한 통제변수로 고려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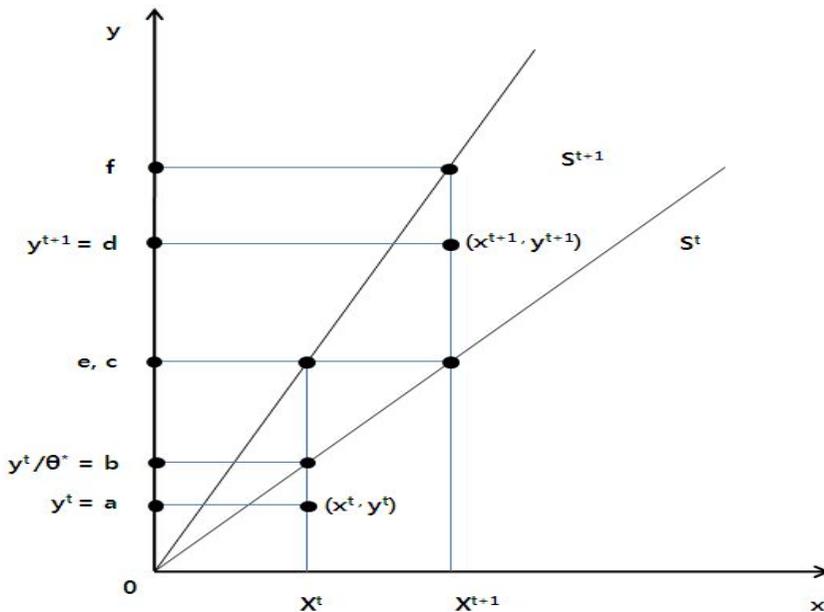
가. 생산성에 대한 개념

- 생산성은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효율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생산활동에 소요된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로 정의됨.
 -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투입량으로 더 많은 생산량을 산출하거나 동일한 생산량을 더 적은 투입량으로 산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인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곧 효율성이 높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이러한 생산성의 실제 측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개념이 활용되고 있으나, 크게는 단일 생산성과 복합적 생산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단일 생산성은 하나의 특정 투입요소 대비 산출량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특정 요소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생산성 측정의 정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이에 최근에는 모든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를 복합적으로 동시에 반영하는 복합적 생산성 개념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지표가 총요소생산성(TFP: total factor productivity)임.
 - 총요소생산성은 노동과 자본을 비롯한 모든 투입요소 대비 산출량을 의미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주어진 투입요소 하에 기술, 사회·문화적 제도, 경영체제, 노사관계 수준 등이 산출량에 공헌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실제 측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음.

나. 분석방법

- 본고에서는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Malmquist 생산성 지수 (MPI: Malmquist production index)를 활용함.
 - MPI는 효율적인 기업과 비효율적인 기업 및 이들의 시점 간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비교하여 생산성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며, 특히 투입요소와 산출요소가 모두 복수인 점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임.
- MPI는 특정기업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선도기업과 편차를 통해서 측정하는 자료포락분석(DEA: data envelopment analysis)에서 출발함.
 - DEA는 개별 기업이 선도 기업(효율적 기업)들로 이루어진 효율적 프론티어(생산함수 선상)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즉, 거리)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이의 역수가 해당 기업의 효율성 지표가 됨.

<그림 1> 효율적 프론티어와 거리함수



자료 : Fare et al.(1994)

- <그림 1>에서 특정 기업의 t 시점 투입변수가 x^t , 산출변수가 y^t , 생산함수가 S^t 라면 당해 기업의 측정된 거리¹⁾가 $0b/0a$ 로 정의되므로 그 거리는 1보다 큼.
 - 반면 선도 기업은 생산함수의 선상에 위치한 기업을 의미하므로 투입변수가 x^t 일 때 선도 기업의 산출량은 선상에 위치한 $0b$ 가 되어 선도 기업의 거리는 $1(=0b/0b)$ 임.
 - 이 거리의 역수가 해당 기업의 효율성이 되므로 선도 기업의 효율성은 1이고 일반 기업의 효율성은 1보다 작게 됨.
- DEA를 통해 구해진 기업의 효율성(≤ 1)을 기간 간 비교함으로써 생산성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MPI이며, 이 지수가 1보다 크면 생산성이 증가, 1보다 작으면 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함.
- $t+1$ 시점에서 S^{t+1} 의 기술기가 t 시점의 S^t 보다 가파르다면 생산함수의 기술적 측면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음²⁾.
 - 즉, $t+1$ 시점에서 개별 회사의 투입 대비 산출량이 이전보다 증가하여 MPI가 1보다 크다면 이것이 효율적 기업 생산성(생산함수 선상)에 얼마나 접근한 것인지와 기술적 환경변화에 의해서 효율적 기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생산함수 자체의 이동)로 분해하여 해석할 수 있음.
- 기간 간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는 MPI는 기술변화(technical change)와 기술효율성변화(technical efficiency change)로 분해되고, 다시 기술효율성변화는 순수효율성변화(pure efficiency change)와 규모효율성변화(scale change)로 분해됨³⁾.
- 생산성변화(MPI) = 기술변화 × 기술효율성변화
 = 기술변화 × 순수효율성변화 × 규모효율성변화
 - 여기서 기술변화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를, 기술효율성변화는 경영효율성의 변화를 의미함.

1) Farrell(1957)의 거리함수 정의임.
 2) 이러한 기술기의 상승은 주어진 투입요소 대비 생산량 증가를 의미하므로 이는 기술적 환경 개선, 즉 기술진보를 의미함.
 3) Fare et al.(1994) 참조

- 산업차원에서 볼 때 기술변화는 선도 기업에 의한 효율적 프론티어의 확대 또는 축소 정도, 기술효율성변화는 개별 기업의 효율적 기업(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한 접근 정도를 의미함.
 - 선도 기업에 의해 기술변화가 발생할 경우 산업전체의 효율적 프론티어가 확대 또는 축소되는데, 그 정도가 기술변화에 의해 측정되며, 양(+)의 변화는 효율적 프론티어의 확대를 음(-)의 변화는 축소를 각각 의미함.
- 개별회사 차원에서 볼 때도 개별 기업의 생산성 변화는 기술변화와 기술효율성변화로 분해될 수 있음.
 - 기술진보는 선도 기업의 설비, R&D, 제도개선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선된 기술적 환경이 개별 기업의 생산성 증가에 공헌하는 정도를 가리킴.
 - 기술효율성 개선은 투입·산출요소 비율의 합리화나 규모수익(returns to scale) 등 개별 기업의 경영전략 개선이 생산성 증가에 공헌하는 정도임⁴⁾.
 - 개별 기업의 기술효율성 개선 중에서 순수(기술)효율성 개선은 투입-산출요소의 배합(mix) 측면에서의 개선, 규모효율성 개선은 규모수익 측면에서의 개선을 의미함.

다. 투입 및 산출변수 선정

- 생명보험산업의 MPI를 측정하기 위해 산출변수로는 생명보험회사별 연간 초회보험료와 투자영업수익이, 투입변수로는 임직원, 설계사, 점포수, 국고채 금리 5년, 경기동행지수가 이용됨.
 - 선행연구에서는 보험영업의 산출요소로 수입보험료를 많이 이용하나 여기서는 분석기간 중 발생한 외환위기, 카드위기, 금융위기 등의 외부적 충격이 경기변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초회보험료를 사용하기로 함.
 - 투입요소로는 노동투입의 대리변수로 임직원과 설계사를, 자본투입의 대리변수로 업무용 고정자산을 대리하는 점포수를 사용함.

4) 재무연구실(2009) 참조

테마진단

- 점포수는 지점, 영업장, 보험대리점, 방카슈랑스를 모두 포함하며, 사업비는 이를 투입요소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함.
 - 아울러 투입요소에 국고채 5년 금리와 경기동행지수도 포함시켰는데, 이는 경기변동에 따른 생산성 변화의 과대 또는 과소평가를 통제하기 위해서임.
 - 한편, 산출변수인 초회보험료와 투자영업수익은 물가변동이 포함된 명목변수이나 투입변수는 물가변동이 포함되지 않은 물량변수이므로 이들 간의 기준 통일을 위해서 산출변수를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실질화함.
- 분석대상 표본기간은 FY1997~FY2008년으로 12년간⁵⁾이고, 동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한 21개의 생명보험회사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 표본기간 동안 생명보험산업 전체의 임직원, 설계사, 점포수는 각각 평균적으로 3만 893명, 18만 1,013명, 1만 5,226개이고, 초회보험료와 투자영업수익의 표본평균은 각각 11조 8천억원, 11조 9천억원임.

<표 1> 생명보험산업 전체 기술통계량

(단위: 억원, 명, 개, %)

변수명	관측치 수	표본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초회보험료	12	118,000	117,000	39,548	461,000
투자영업수익	12	119,000	30,919	83,152	194,000
임직원수	12	30,8934	7,088	25,371	49,110
설계사수	12	181,013	54,851	123,850	293,398
점포수	12	15,226	3,410	11,422	22,500
경기동행지수	12	88.18	19.53	61.35	119.83
국고채 5년 금리	12	7.03	3.01	4.35	13.18

주 : 1) 수입보험료와 투자영업수익은 명목변수임.

2) 분석대상 기업이 아닌 생명보험산업 전체 기술통계량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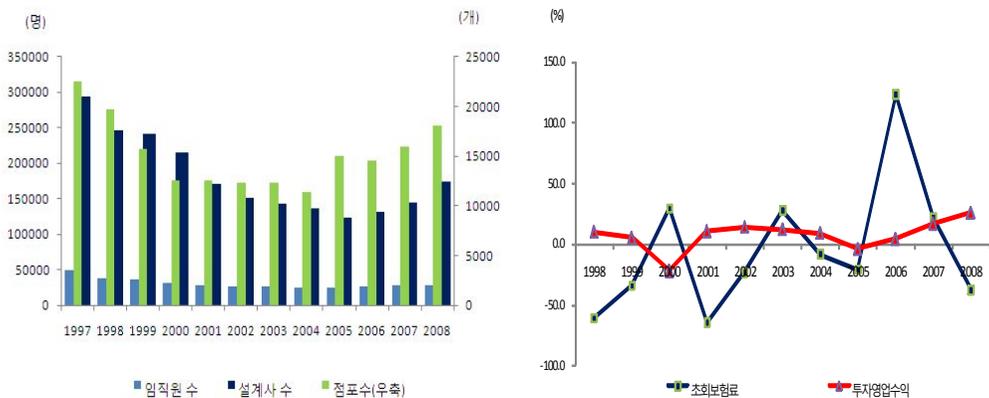
출처 : 생명보험협회

- 산업전체 임직원, 설계사, 점포수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반등 추이를 시현하였고, 초회보험료와 투자영업수익은 그 증가율의 등락이 전반적으로
- 5) 후술되는 생산성 변화는 기간 간 비교이므로 표본기간이 FY1998~FY2008년이 되어 관측치 수가 11개임.

로 심한 가운데 FY2003, 2006, 2007년에만 모두 증가세를 나타냄.

- 임직원 및 설계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각각 FY2005, FY2006년부터 반등하였고, 점포수는 FY2005년부터 FY2000년 수준을 상회함.
- 점포수 증가는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던 지점과 보험대리점이 FY2005년부터 증가세로 전환되고, 방카슈랑스 채널도 이 시기부터 점차 증가한 것에 기인함.
- 초회보험료는 FY2000, 2003, 2006, 2007년에 전년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가운데 표본기간 내내 대폭적인 증가와 감소를 반복함.
- 투자영업수익은 FY2000년과 FY2005년을 제외하고는 표본기간 내내 증가세를 시현함.

<그림 2> 생명보험산업 전체의 투입 및 산출요소 추이



주 : 1) 분석대상 기업이 아닌 생명보험산업 전체 통계량임.
 2) 초회보험료와 투자영업수익은 명목 증가율임.
 출처: 생명보험협회

3.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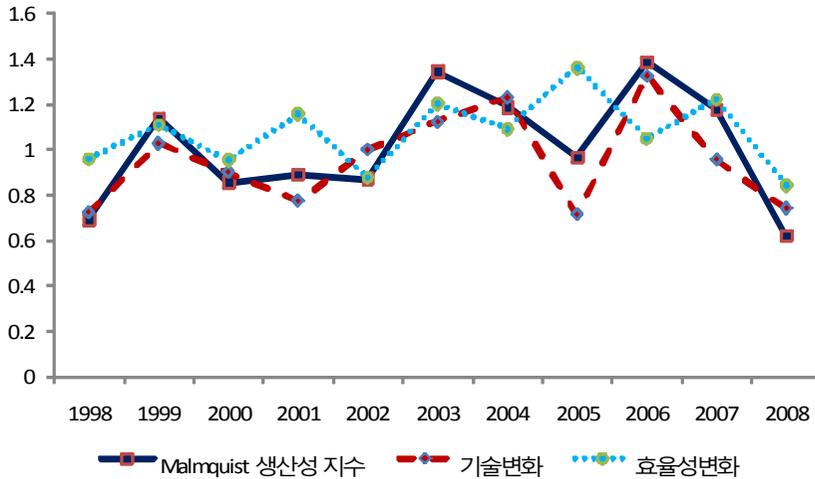
표본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은 경영효율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환경요인의 악화로 인하여 생산성이 연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FY2003~FY2007년 동안 방카슈랑스 판매채널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및 외국사를 중심으로 경영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생산성 향상에 일조함. 그러나 FY2008년 들어 금융위기로 인한 기술적 환경이 악화되고 경영의 비효율성도 나타남에 따라 생산성이 크게 하락함.

가. 산업전체 생산성 변화 추이

- FY1999년(아)을 제외한 FY1998~FY2002년까지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동기간 동안 경영효율성이 개선된 반면 기술적 환경은 나빠진 데에 기인함.
 - 상기 5년 간 기술효율성변화의 기하평균이 1.0042로 나타나 개별 기업의 경영효율성이 연평균 0.4% 개선되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동기간 동안 기술변화가 0.8736으로 추정되어 생명보험산업의 기술적 환경이 연평균 12.6%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FY1999년에는 경기회복세와 대량실업이 완화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이 직면한 기술적 환경(예를 들면, 영업환경)이 다소 개선되었고, 초회보험료의 지속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회사별 구조조정, 퇴출, 합병 등으로 인한 요소투입의 감소로 경영효율성(기술효율성)도 개선되어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됨.
 - FY2000년에는 투입요소인 임직원, 설계사, 점포수가 감소한 데다 저축성보험 판매의 증가로 초회보험료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성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기술적 환경(즉, 투자환경)도 나빠져 생산성이 감소함.

-
- 6) 실제 FY1999년 생산성 변화는 FY1998~FY1999년 간 생산성 변화를 가리키는데, 혼동이 없는 한 간결한 표현을 위해 FY1999년으로 표기함.

<그림 3> 생명보험산업 생산성 변화 추이



- FY2001년의 경우는 임직원 및 설계사 감축을 통한 경영효율성은 증가하였으나, 보험차익 비과세기간 확대(5년→7년) 조치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로 인한 이차역마진을 우려한 보험회사들이 저축성 보험 판매를 꺼림에 따라 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FY2002년에도 기술효율성의 하락과 여전히 여의치 않은 투자환경으로 인해 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됨.
- FY2003년과 FY2004년에는 방카슈랑스 채널 도입으로 인한 경영효율성 개선과 투자환경 개선에 의한 투자영업수익 증가에 의해 생산성이 증가한 반면, FY2005년 카드위기 시에는 생산성이 감소함.
- 기존 투입요소의 감소와 함께 FY2003년 방카슈랑스 채널 도입으로 인해 경영효율성이 20% 개선되었고, FY2004년 들어서도 투입요소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초회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성이 9% 개선됨.
- FY2003년과 FY2004년에 투자환경 개선에 따른 투자영업수익 증가로 기술적 환경이 각각 12%, 22.8%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카드사태를 맞은 FY2005년에는 생명보험산업의 기술적 환경의 악화로 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효율성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6~FY2007년 들어서는 생산성이 증가한 반면, FY2008년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감소함.
- FY2006~FY2007년 동안 생명보험회사의 기술효율성은 FY2005년보다는 둔화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6년의 양호한 기술적 환경에 비해 FY2007년에는 유가상승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기술적 환경이 악화되었고, FY2008년에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기술적 환경, 그리고 기술효율성 모두 악화되어 생산성이 감소함.

나. 회사 그룹별 생산성 변화

- 생명보험산업 전체 생산성은 표본기간 동안 2.1% 감소하였고, 그 중 기술적 환경이 6.9% 악화된 반면, 경영효율성은 6.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표본기간 동안 생산성 감소는 대형사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대형사의 경우 기술적 환경과 경영효율성 측면 모두에서 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표 2> 생명보험산업 생산성 변화 분석(표본기간 전체와 금융위기 이전 평균)

기간평균	그룹	생산성변화 (MPI)	기술변화	효율성변화	순수 효율성변화	규모변화
FY1998~FY2008	대형사	0.7917	0.8437	0.9384	0.9445	0.9936
	중소형사	0.9950	0.9464	1.0514	1.0608	0.9911
	외국사	1.0402	0.9466	1.1297	1.1434	0.9880
	생보전체	0.9795	0.9311	1.0631	1.0736	0.9903
FY1998~FY2007	대형사	0.8136	0.8780	0.9266	0.9544	0.9709
	중소형사	1.0435	0.9629	1.0837	1.0902	0.9940
	외국사	1.1039	0.9730	1.1615	1.1704	0.9924
	생보전체	1.0289	0.9541	1.0881	1.0990	0.9901

주: 1) 생산성변화(MPI) = 기술변화×기술효율성변화
 2) 기술효율성변화 = 순수기술효율성변화×규모효율성변화

7) FY2005년 1만 3,000여명에 해당하는 설계사 수가 감소한 것이 초회보험료 및 투자영업수익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술효율성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됨.

- 중소기업의 경우도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경영효율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술적 환경이 표본기간 동안 악화됨에 따라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데에 기인함.
 - 반면 외국사⁸⁾의 생산성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정적 기술 환경에도 불구하고 방카슈랑스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에 힘입어 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생보산업 전체 생산성은 연평균 2.9% 증가하였고, 그 주된 원인은 경영효율성 개선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금융위기 이전(FY1998~FY2007)에도 외환위기에 따른 기술적 환경이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보사들의 구조조정과 방카슈랑스와 같은 채널 다변화를 통해 기술효율성이 증가함에 따라 동기간 동안 생산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회사 그룹별 모두에 있어 표본 기간 전체의 기술적 환경 악화 수준이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중소기업 및 외국사의 경영효율성은 표본기간 전체 평균이 금융위기 이전 평균보다 악화되었고, 반면 대형사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즉, 대형사의 경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영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Y2008년 투입요소가 전년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초회보험료와 투자영업수익이 오히려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8) FY2008 기준 일부 외국사의 경우 FY1998년에 국내 중소기업이었던 경우가 존재하나, 편의상 본고에서는 모두 외국사로 분류함.

<표 3> 대형사 FY2007~FY2008 단위당 생산성 비교

(단위: 백만원)

대형사	증감	연도	단위당 초회보험료	단위당 투자영업수익
지점	-572	2007	891.14	
		2008	14,365.74	
영업소	593	2007	424.99	
		2008	1,417.50	
대리점	2,503	2007	181.52	
		2008	500.09	
방카슈랑스	2	2007	5,024.53	
		2008	2,2402.52	
설계사	76,963	2007	45.41	
		2008	34.13	
임직원	317	2007	44.93	80.02
		2008	199.16	848.40

출처 : 생명보험협회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한 기간(FY2001~FY2007) 동안 생보 전체 생산성은 주로 경영효율성 개선에 의해 증가함.

- 동기간 동안 기술적 환경은 연평균 0.8% 감소하여 산업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산업 전체 경영효율성은 동기간 동안 연평균 12.6%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외국사 및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방카슈랑스 채널의 활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FY2003~FY2005년 동안은 외국사의, FY2005~FY2007년 동안은 중소형사의 방카슈랑스 채널 활용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가가 두드러짐.
- 설계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대형사의 경우 FY2001~FY2007년 동안 경영효율성은 오히려 연평균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생명보험산업 생산성 변화 분석(방카슈랑스 채널 중심)

기간평균	그룹	생산성변화 (MPI)	기술변화	효율성변화	순수 효율성변화	규모변화
FY2001~FY2007	대형사	0.8632	0.9086	0.9500	0.9756	0.9737
	중소형사	1.1227	0.9937	1.1299	1.1194	1.0094
	외국사	1.1897	1.0232	1.1959	1.1870	1.0075
	생보전체	1.1055	0.9921	1.1264	1.1224	1.0035
FY2003~FY2005	대형사	0.9988	1.0758	0.9284	0.9163	1.0132
	중소형사	1.0728	0.9686	1.1076	1.1114	0.9966
	외국사	1.3652	0.9843	1.4987	1.3148	1.1398
	생보전체	1.1640	0.9893	1.2119	1.1526	1.0514
FY2005~FY2007	대형사	0.9146	0.8176	1.1186	1.0892	1.0271
	중소형사	1.2876	0.9913	1.2989	1.0974	1.1836
	외국사	1.1162	0.9942	1.1228	1.1590	0.9688
	생보전체	1.1613	0.9655	1.2028	1.1193	1.0746
FY2003~FY2007	대형사	1.0220	1.0556	0.9682	1.0061	0.9623
	중소형사	1.2604	1.0448	1.2063	1.1429	1.0555
	외국사	1.2206	1.0314	1.2333	1.2001	1.0277
	생보전체	1.2083	1.0412	1.1789	1.1433	1.0311

주 : 1) 생산성변화(MPI) = 기술변화×기술효율성변화
 2) 기술효율성변화 = 순수기술효율성변화×규모효율성변화

□ 방카슈랑스 채널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는 주로 중소기업사와 외국사를 중심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들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됨.

○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으로 경영효율성이 개선되었고 이를 통해 생산성 증가가 나타남⁹⁾.

- 김재현(2007)은 방카슈랑스채널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비용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이는 본고의 기술효율성 개선 결과와 종합·비교해 볼 때 생보사들이 방카슈랑스채널을 이용함에 있어 투입요소 배분효율성(채널믹스 전략)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¹⁰⁾.

9) 지홍민(2006)과 김재현(2007)은 방카슈랑스와 생산성의 긍정적 관계를 지적함.

10) 비용효율성은 기술효율성과 배분효율성의 곱으로 계산됨.

□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생산성 변화를 비교한 결과 금융위기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FY2008년 생산성을 FY1998년 외환위기 시와 비교해 볼 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6.8%p 더 큰 것으로 분석됨.

- FY2008년 기술적 환경이 26.3%, 경영효율성이 15.7% 악화됨에 따라 산업 생산성이 급감함.

- FY1998년에 비해 FY2008년의 기술적 환경 악화 수준은 1.7%p 완화된 반면, 경영효율성 악화는 11.4%p 심화됨.

- FY2008년 들어 경영효율성이 악화된 것은 FY2007년에 비해 초회보험료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요소가 오히려 늘어난 데에 기인함.

<표 5> 생명보험산업 생산성 변화 분석(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중심)

기간평균	그룹	생산성변화 (MPI)	기술변화	효율성변화	순수 효율성변화	규모변화
FY1998~FY2000	대형사	0.7085	0.8105	0.8742	0.9065	0.9643
	중소형사	0.8797	0.8948	0.9831	1.0251	0.9590
	외국사	0.9395	0.8661	1.0848	1.1325	0.9579
	생보전체	0.8746	0.8713	1.0037	1.0462	0.9594
FY1998	대형사	0.4503	0.5165	0.8718	1.0000	0.8718
	중소형사	0.6321	0.7426	0.8512	0.9116	0.9337
	외국사	0.9009	0.7843	1.1487	1.1730	0.9792
	생보전체	0.6892	0.7199	0.9574	1.0168	0.9415
FY2007	대형사	0.6375	0.5672	1.1240	1.1214	1.0024
	중소형사	1.4701	1.0979	1.3390	1.1962	1.1193
	외국사	1.1116	0.9736	1.1230	1.2191	0.9212
	생보전체	1.1761	0.9534	1.2213	1.1938	1.0230
FY2008	대형사	0.6029	0.5661	1.0650	0.8511	1.2513
	중소형사	0.6180	0.7958	0.7766	0.8069	0.9625
	외국사	0.6324	0.7385	0.8563	0.9054	0.9458
	생보전체	0.6213	0.7367	0.8433	0.8495	0.9926

주 : 1) 생산성변화(MPI) = 기술변화×기술효율성변화

2) 기술효율성변화 = 순수기술효율성변화×규모효율성변화

-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FY2008년 대형사의 경우에는 투입요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영효율성이 개선된 것은 투입요소 단위당 초회보험료와 투자영업수익이 늘어난 데에 기인함¹¹⁾.

□ FY2008년 산업 생산성의 감소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기술적 환경이 악화됨과 동시에 경영효율성도 나빠진 것이 그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

- FY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기술적 환경 악화로 인해 초회보험료가 전년대비 37.3% 감소함.
- 보험대리점과 설계사에 의한 투입요소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초회보험료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영효율성 악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음.

4. 요약 및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은 기술적 환경의 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하락함.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술적 환경과 경영효율성이 모두 악화되면서 생산성이 급락함. 향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개발 및 서비스 제공의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신시장 개척 등의 중장기적 경영전략의 마련 등을 통한 기술적 환경의 개선과 함께 모집조직, 판매채널, 사업규모 등 내부 경영적 측면에서의 효율성 제고에도 동시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주로 기술적 환경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외환위기, 카드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적 충격과 생명보험산업의 충격에 대한 대응력 부족 등 전반적인 기술적 환경의 악화가 생산성 하락을 초래함
- 그러나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면서 경영효율성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기술적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독립채널 및 설계사의 증가 등으로 경영효율성도 동시에 악화됨.

11) 대형사의 경우 FY2008년에 중소형사나 외국사에 비해 기술퇴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가 이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음은 본 연구의 한계이고, 향후 연구에서 이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제시되기를 기대함.

- 향후 하락한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외부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 개선과 함께 투입 및 산출요소 배합, 그리고 효율적인 규모수익 결정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도 요구됨.
- 외부적 환경 변화에 의한 기술적 환경을 생명보험산업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적 충격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영전략의 마련이 요구됨.
 - 특히, 새로운 상품개발이나 겸영업무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 영역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개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을 종합하는 중장기적 경영전략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경영효율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투입 및 산출요소에 대한 효율적인 배합과 적절한 사업규모의 선택, 그리고 다변화된 판매채널을 이용하여 산출 대비 투입비용의 최소화(또는 투입 대비 산출량의 최대화)에 노력해야 함.
 - 효율적인 투입 및 산출요소의 배합을 위해서는 자사에 적합한 모집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최근 모집조직 중 독립채널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또한 특정 채널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투입요소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투입요소 단위당 성과가 좋은 채널을 미세조정을 통해 늘려 나감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참 고 문 헌>

- 김재현, 「방키슈랑스 도입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의 비용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연구」, 『보험개발연구』, 보험연구원, 제18권, 제1호, 2007.
- 동향분석실, 『201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2009.
- 박춘광·김병철, 「금융위기 이후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효율성 및 생산성 변화 연구」, 『재무관리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제23집, 제2호, 2006.12.
- 양혜일·이재복, 「온라인전용손해보험회사의 경영효율성 분석」, 『보험금융연구』, 보험연구원, 제20권, 제2화, 2009.7.

- 재무연구실, 『보험회사 재무분석』, 보험연구원, 제3호, 2009.
- 전기석·손관설, 「구조조정전후 생보산업 효율성 분석」, 『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제59집, 2001.8.
- 정근오·김재필·이영수, 「한국 생명보험산업의 생산성분석」, *Working Paper*, 2003.1.
- 지홍민, 「Free Disposal Hull 방법을 이용한 생명보험산업의 기술진보 및 퇴보 분석」, 『보험학회지』, 한국보험학회, 제74집, 2006.8.
- 홍봉영, 「우리나라 생명보험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변화 분석」, 『재무관리연구』, 한국재무관리학회, 제20권, 제2호, 2003.12.
- Banker, Charnes, Cooper "Models for the Estimation of Technical and Scale Efficiencies in Data Envelopment Analysis", *Management Science*, Vol. 30, 1984, pp. 1078-1092.
- Banker, Cooper, Seiford, Thrall, and Zhu, "Returns to Scale in Different DEA Model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 154, 2004, pp. 345-362.
- Charnes, Cooper, and Rhodes, "Measuring the Efficiency of Decision Making Units",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Vol. 2, 1978, pp. 429-444.
- Fare, Grosskopf, Norris, and Zhang "Productivity Growth, Technical Progress, and Efficiency Chang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 No. 1, 1994, pp. 66-83.
- Farrell, Michael J. "The Measurement of Productive Efficiency"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Series A, General*, Vol. 120, No. 3, 1957, pp. 253-282.
- Krivosozhko and Forsund, "Returns-to-Scale Properties in DEA Models: The Fundamental Role of Interior Points", *Memorandum*, 2009.
- Tone, Karou, "A Simple Characterization of Returns to Scale in DEA", *Journal of the Operations Research*, Vol. 39, No. 4, 1996.
- Wilson, Paul W., "FEAR 1.0: A Software Package for Frontier Efficiency Analysis with R", *Mimeo*, 2005.

〈부 록〉

- 본 부록에서는 Malmquist 생산성 지수(Malmquist production index)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설명함¹²⁾.
- Charnes, Coopers, and Rhodes(1978)(이하 CCR)는 생산함수의 규모수익불변(CRS: constan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하고 선형계획법(linear programming)에 의한 거리함수 추정 모형¹³⁾을 개발함.

12) Fare et al. (1994) 참조

13) 이를 CCR DEA 모형이라 칭함.

$$(D_c^t(\mathbf{x}^{k',t}, \mathbf{y}^{k',t}))^{-1} = \max \theta^{k'}$$

subject to

$$\theta^{k'} y_m^{k',t} \leq \sum_{k=1}^K z^{k',t} y_m^{k',t} \quad m = 1, \dots, M$$

$$\sum_{k=1}^K z^{k',t} x_n^{k',t} \leq x_n^{k',t} \quad n = 1, \dots, N \quad (1)$$

$$z^{k,t} \geq 0 \quad k = 1, \dots, K$$

- 상기 선형계획법을 풀면 CRS를 가정한 거리함수를 구할 수 있음.
- 참고로 볼드체로 되어있는 \mathbf{x} 와 \mathbf{y} 는 각각 투입물 및 산출물 벡터를 가리키고 m 은 산출물 종류, n 은 투입물 종류, k 는 DUM(회사) 종류, z 는 DMU k 가 효율적 프론티어에 대한 공헌도를 측정하는 가중치 변수(intensity variable), 그리고 아래 첨자 c 는 CRS를 의미함.
- Malmquist 생산성 지수는 기간 간 생산성 변화를 측정하므로 생산함수(거리함수)와 투입 및 산출물 벡터의 시점이 다른 모형도 요구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은 선형계획법으로 표현됨.

$$(D_c^t(\mathbf{x}^{k',t+1}, \mathbf{y}^{k',t+1}))^{-1} = \max \theta^{k'}$$

subject to

$$\theta^{k'} y_m^{k',t+1} \leq \sum_{k=1}^K z^{k',t} y_m^{k',t} \quad m = 1, \dots, M$$

$$\sum_{k=1}^K z^{k',t} x_n^{k',t} \leq x_n^{k',t+1} \quad n = 1, \dots, N \quad (2)$$

$$z^{k,t} \geq 0 \quad k = 1, \dots, K$$

- 상기한 두 모형을 이용하면 Fare et al.(1994)이 정의한 Malmquist 생산성 지수

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됨.

$$M_c(\mathbf{x}^{t+1}, \mathbf{y}^{t+1}, \mathbf{x}^t, \mathbf{y}^t) = \left[\left(\frac{D_c^t(\mathbf{x}^{t+1}, \mathbf{y}^{t+1})}{D_c^t(\mathbf{x}^t, \mathbf{y}^t)} \right) \left(\frac{D_c^{t+1}(\mathbf{x}^{t+1}, \mathbf{y}^{t+1})}{D_c^{t+1}(\mathbf{x}^t, \mathbf{y}^t)} \right) \right]^{1/2}$$

- 즉, Malmquist 생산성 지수는 동일한 생산함수 가정 하에 t 와 $t+1$ 시점의 투입 및 산출변수에 의한 거리함수 비율을 t 와 $t+1$ 시점 간 기하평균한 것으로 이는 두 기간 간의 생산성 변화를 측정함.

$$M_c(\mathbf{x}^{t+1}, \mathbf{y}^{t+1}, \mathbf{x}^t, \mathbf{y}^t) = \frac{D_c^{t+1}(\mathbf{x}^{t+1}, \mathbf{y}^{t+1})}{D_c^t(\mathbf{x}^t, \mathbf{y}^t)} \times \left[\left(\frac{D_c^t(\mathbf{x}^{t+1}, \mathbf{y}^{t+1})}{D_c^{t+1}(\mathbf{x}^{t+1}, \mathbf{y}^{t+1})} \right) \left(\frac{D_c^t(\mathbf{x}^t, \mathbf{y}^t)}{D_c^{t+1}(\mathbf{x}^t, \mathbf{y}^t)} \right) \right]^{1/2}$$

- Malmquist 생산성 지수는 상기와 같이 두 부분으로 분해될 수 있는데 첫 번째 항은 기술효율성변화를 의미하고 두 번째 항은 기술변화를 의미함.
 - 첫 번째 항은 관찰된 생산성이 t 와 $t+1$ 시점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측정하고, 두 번째 기하평균 항은 동일한 투입 및 산출요소에 대한 기술적 변화를 측정함.
- Banker, Charnes, Cooper(1984)는 식(1)과 (2)에 제약조건 $\sum_{k=1}^K z^{k,t} = 1$ 을 추가함으로써 VRS(variable returns to scale)을 고려하는 BCC 모형을 고안하였는데, 이 모형을 통해 기술효율성변화를 순수(기술)효율성변화와 규모효율성변화로 다시 분해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원인 분석과 시사점(2000년대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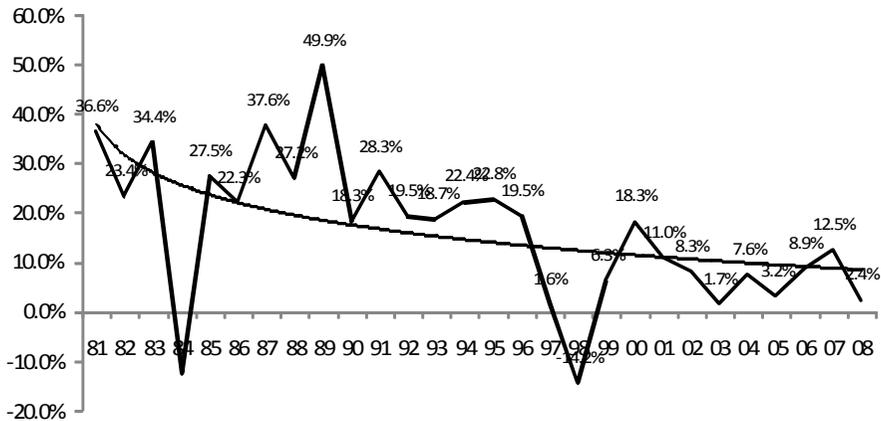
기승도 전문연구위원

1. 연구배경 및 목적

자동차보험시장은 1980년대 연평균 26.2%, 1990년대 13.1%로 성장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평균 6.8% 성장에 그쳐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임. 2000년대를 중심으로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의 분석을 통해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함.

- 자동차보험시장은 1980년대 까지 높은 성장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를 지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로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는 모습임.
- 시장규모가 1980년대에 연평균 26.2%, 1990년대에 연평균 13.1%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는 연평균 6.8% 성장에 그치고 있음.

<그림 1> 자동차보험시장 연도별 성장률 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표 1> 연대별 수입보험료 연평균 성장률

구 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연평균성장률	26.2%	13.1%	6.8%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 과거 자동차보험시장의 고성장은 원인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동차등록대수와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또는 유도)한 각종 법률 제도의 영향으로 판단됨.
 - 1990년대까지는 높은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자동차등록대수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하여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도 크게 증가함.
 - 자동차보험 가입대수가 늘어난 것은 자동차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각종 법률 등 정책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함)에 따른 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가입한도 1000만원)의 가입의무화 및 대인배상II의 가입을 유도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있음.
 - 이와 더불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각종 담보를 개발하여 공급한 손해보험회사의 노력도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 원인 중 하나였음.
- 2000년대 들어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자동차대수 증가율 및 기타 여러 요인들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자동차등록대수 및 증가율의 둔화, 보험금원가의 증가 둔화(특히 인적담보) 등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현재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률 둔화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될 지 여부를 파악해볼 시점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이 요인들이 향후 어느 방향으로 진행될지 전망하여 보험회사들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¹⁾요인 분석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자동차대수, 시장경쟁도, 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고가자동차 비중 등) 등이며, 이중 자동차대수, 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는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요인, 시장경쟁도 증가는 보험료 감소요인(자동차보험 시장 억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가.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요인

-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환경요인과 내부요인(또는 자동차 사고 관련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대표적 환경요인인 자동차대수는 경제성장률 등 경제 관련 변수, 인구(인구증가율 및 고령화)변수의 영향을 받으며, 시장의 경쟁정도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환경변수임.
 - 개인의 보험료 수준(또는 전체 보험료 규모)에 영향을 주는 내부요인으로는 자동차 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임금, 의료비, 치료비, 임금, 공임 및 부품가격)등이 있음.
 - 사고발생률은 유가, 주행거리, 운전자특성(예, 저연령자 및 고령자)²⁾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음.
 - 사고원가에는 피해자 소득(임금), 부품가격 및 공임(수리공의 인건비), 차량가격 등이 영향을 미침.

<표 2>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의 영향요인

구 분		세부항목
환경요인	자동차대수	경제성장, 인구규모, 고령화 등
	시장경쟁도	정책·제도 변화 등
내부요인	사고발생률	유가, 주행거리, 운전자특성 등
	보험금원가(사고심도)	임금, 인건비, 공임, 부품가격, 차량가격 등

- 1) 자동차보험시장 규모의 판단은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함.
- 2) 기승도,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보험연구원, 2009, p.104.

□ 따라서 본 장에서는 FY2000 ~ FY2008 동안 환경요인(자동차대수, 시장경쟁도)과 내부요인(사고발생률, 보험금원가)의 변화 및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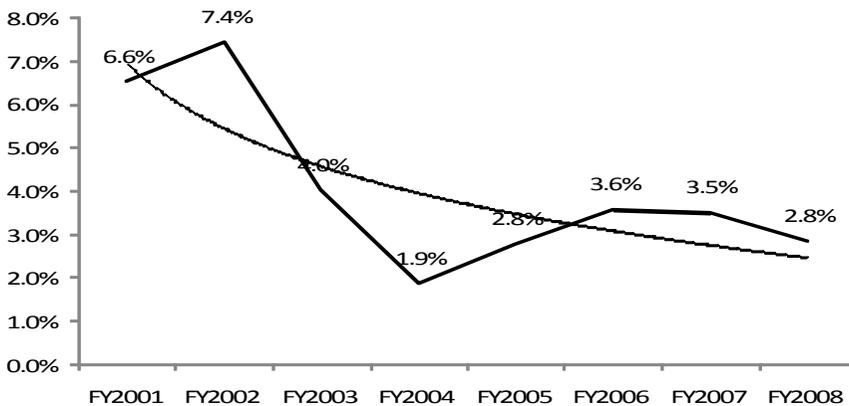
나. 주요 요인별 성장추세 분석

1) 자동차대수³⁾

□ 자동차대수는 2000년대 초반에는 연평균 5%이상 증가하였으나 이후에는 약 3%수준으로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임.

- 전년대비 자동차대수 증가율은 2001년에는 6.6%, 2002년에는 7.4%였으나, 2007년에는 3.5%, 2008년에는 2.8%로 하반기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임.
- 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자동차대수 증가율의 추세는 3%수준을 크게 웃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연도별 자동차대수(평균유효대수) 성장률 추이



자료 : 업계 자료

3) 자동차대수는 '평균유효대수' 또는 '자동차등록대수'라고도 함. 여기서 자동차등록대수는 일정한 시점에 국가에 등록된 경우를 의미하며, 평균유효대수는 일정 통계기간 동안 위험에 노출된 자동차대수를 의미함. 본 연구에서는 보험료 수준과 연관된 평균유효대수로 자동차대수 증가추이를 살펴보았으나 분석의 목적에 따라 자동차등록대수도 활용함.

- FY2000년대에 있어서 담보별로 자동차대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무보험차상해(6.7%), 대물배상(6.2%)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인배상 I (4.1%), 대인배상 II(5.1%)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3> 평균유효대수의 연도별 추이

(단위 : 천대)

구 분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연평균 증가율
대인배상 I	11,629	12,391	13,314	13,850	14,110	14,503	15,024	15,552	15,994	4.1%
대인배상 II	9,944	10,760	11,776	12,460	12,771	13,278	13,820	14,304	14,779	5.1%
대물배상	9,905	10,720	11,738	12,426	13,100	14,452	14,995	15,517	15,972	6.2%
자기신체 사고	9,246	10,122	11,175	11,911	12,266	12,827	13,425	13,938	14,435	5.7%
자기차량 손해	5,689	6,213	6,921	7,461	7,592	7,858	8,235	8,456	8,737	5.5%
무보험차 상해	8,195	9,274	10,497	11,353	11,771	12,307	12,866	13,349	13,781	6.7%

자료 : 업계 자료

- 자동차대수 증가가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표 3>의 담보별 자동차대수 증가율을 FY2008수입보험료 구성비로 가중평균해본 결과, 대수증가율로 인한 보험료 증가효과는 약 5.2%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표 4> 담보별 대수증가율 평균(효과)

(단위 : 10억원)

구 분	FY2008 보험료		연평균증가율
	수입보험료	구성비	
대인배상 I	3,378	33.7%	4.1%
대인배상 II	1,135	11.3%	5.1%
대물배상	2,607	26.0%	6.2%
자기신체사고	362	3.6%	5.7%
자기차량손해	2,443	24.4%	5.5%
무보험차상해	102	1.0%	6.7%
합 계	10,026	100.0%	5.2%

자료 : 업계 자료

2) 시장경쟁도

- 2000년부터 자동차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⁴⁾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가 되면서,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음.
- 과거 9년 동안의 시장경쟁도를 보면, HHI⁵⁾가 감소하고 있어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쟁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쟁증가는 2000년 이후 자동차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새로운 경쟁자(특히, 온라인 자동차보험 전업사)가 시장에 진입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5> 자동차보험시장 집중도(HHI) 변화추이

구분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HHI	0.1641	0.1620	0.1553	0.1531	0.1465	0.1489	0.1473	0.1430
차이	0.0073	-0.0021	-0.0068	-0.0021	-0.0067	0.0024	-0.0016	-0.0043

주 : 일반물건 기준임.
 자료 : 업계 통계

-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성장은 온라인 상품과 경쟁하는 오프라인 자동차보험 회사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요인, 온라인 상품 자체의 저렴한 가격 등으로 자동차보험시장의 규모 확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온라인 자동차보험회사 또는 온라인 자동차보험상품의 시장점유율은 매년 약 3%p씩 성장하여 FY2008(상반기)에는 17.8%를 시현함.
 - 온라인 자동차보험 상품의 보험료는 통상 오프라인 자동차보험 상품보다 평균 10%~15%수준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규모 확대는 자동차보험시장 규모 증가와 역(-)의 관계가 있음.
 -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감안하면,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율

4) 2000년 1월 보험사업 최저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2003년 5월 보험종목별 허가제도와 통신판매전문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완화됨.
 5) HHI(Herfindahl Hershiman Index)는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곱하여 모두 합한 값으로, HHI가 낮아질수록 시장집중도가 완화(경쟁이 심화)된 다는 것을 의미함.

확대로 전체보험료 감소효과가 FY2008(상반기)기준으로 약1.8%~2.7%⁶⁾인 것으로 분석됨.

<표 6> 온라인 판매방식의 자동차보험료 수입보험료 및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FY'04	FY'05	FY'06	FY'07	FY'08
온라인	6,171	9,009	12,832	17,762	9,836
점유율	7.2	10.3	13.3	16.4	17.8
(전년대비p)	(-)	(3.1)	(3.0)	(3.1)	(1.4)

주 : 1) 일반물건 기준임.

2) FY'08은 반년 실적임.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2.

3) 사고발생률

- 물적담보의 사고발생률 증가는 자동차보험료 증가의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됨.
 - 인적담보별 FY2000년대 연평균 사고발생률은 대인배상 I 이 2.7%, 대인배상II는 -7.0%, 자기신체사고는 -4.1%, 무보험차 상해는 -3.8%인 것으로 나타나 인적담보의 사고발생률로 인한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됨.
 - 반면에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등은 3~4%가 증가하여 물적담보의 사고발생률 증가가 전체 수입보험료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됨.

6) FY2008시장점유율(17.8%)×보험료인하율(10%~15%)

<표 7> 연도별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 추이

구 분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연평균증가율
대인배상 I	4.8%	4.6%	4.8%	5.3%	5.2%	5.7%	5.9%	6.0%	5.9%	2.7%
대인배상 II	2.1%	1.5%	1.3%	1.6%	1.4%	0.9%	1.0%	1.1%	1.2%	-7.0%
대물배상	9.7%	10.0%	11.0%	11.8%	12.4%	12.1%	12.6%	13.3%	13.3%	4.0%
자기신체 사고	0.8%	0.6%	0.7%	0.7%	0.6%	0.7%	0.6%	0.6%	0.6%	-4.1%
자기차량손해	15.7%	15.7%	18.3%	19.4%	17.9%	18.8%	19.5%	20.0%	20.6%	3.4%
무보험차상해	0.1%	0.1%	0.1%	0.1%	0.1%	0.1%	0.1%	0.1%	0.1%	-3.8%

자료 : 업계 자료

- 자동차보험 사고발생률 증가가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표 7>의 담보별 자동차 사고발생률 증가율을 FY2008수입보험료 구성비로 가중평균해본 결과, 사고발생률 증가율로 인한 보험료 증가 효과는 약 1.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표 8> 담보별 사고발생률 평균(효과)

(단위 : 10억원)

구 분	FY2008보험료		연평균증가율
	수입보험료	구성비	
대인배상 I	3,378	33.7%	2.7%
대인배상 II	1,135	11.3%	-7.0%
대물배상	2,607	26.0%	4.0%
자기신체사고	362	3.6%	-4.1%
자기차량손해	2,443	24.4%	3.4%
무보험차상해	102	1.0%	-3.8%
합계	10,026	100.0%	1.8%

주 : 수입보험료는 FY2008자료
 자료 : 업계자료

4) 보험금원가(사고심도)

- 보험금 원가에 해당되는 사고 1건당 손해액 추이를 보면, 인적담보인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감소 또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대인배상 I 은 FY2000년대 연평균 -2.3% 증가하였고, 대인배상II는 1.5%, 자기신체사고 및 무보험차 상해담보는 각각 -1.1%,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적담보의 1사고당 손해액이 감소한 것은 최근 자동차대수가 많아지면서 대형사고(1사고당 손해액이 큰 사고)보다는 소형사고의 비중이 커졌고, 임금 등이 줄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 반면에 물적담보인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에는 각각 연평균 2.9%, 1.3%씩 늘어나 보험금증가(또는 보험료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물적담보의 건당 보험금이 늘어난 것은 물적담보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 가격(또는 자동차 부품가격) 및 공임 등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함.

<표 9> 사고건당 손해액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FY'00	FY'01	FY'02	FY'03	FY'04	FY'05	FY'06	FY'07	FY'08	연평균 증가율
대인배상 I	3,013	3,051	2,944	2,856	2,791	2,838	2,780	2,616	2,500	-2.3%
대인배상 II	4,184	5,929	5,029	4,455	4,804	5,873	5,880	5,394	4,718	1.5%
대물배상	713	703	730	732	671	769	829	858	895	2.9%
자기신체 사고	2,771	2,599	2,385	2,346	2,478	2,390	2,520	2,520	2,539	-1.1%
자기차량 손해	854	836	843	896	854	891	902	927	946	1.3%
무보험차 상해	4,726	5,584	5,676	4,802	5,600	4,853	6,025	5,921	4,054	-1.9%

자료 : 업계자료

- 자동차보험 1사고당 손해액 증가가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표 9>의 담보별 자동차 1사고당 손해액 증가율을 FY2008수입보험료 구성비로 가중평균해본 결과, 1사고당 손해액 증가로 인한 보험료 증가효과는 약 0.4%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표 10> 담보별 1사고당 손해액 평균(효과)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보험료		연평균증가율
	수입보험료	구성비	
대인배상 I	3,378	33.7%	-2.3%
대인배상 II	1,135	11.3%	1.5%
대물배상	2,607	26.0%	2.9%
자기신체사고	362	3.6%	-1.1%
자기차량손해	2,443	24.4%	1.3%
무보험차상해	102	1.0%	-1.9%
합계	10,026	100.0%	0.4%

주 : 1) 수입보험료는 FY2008자료임.
 2) 담보별 FY2008수입보험료 구성비로 가중 평균하여 담보별 평균증가율을 산출함.
 자료 : 업계 자료

3.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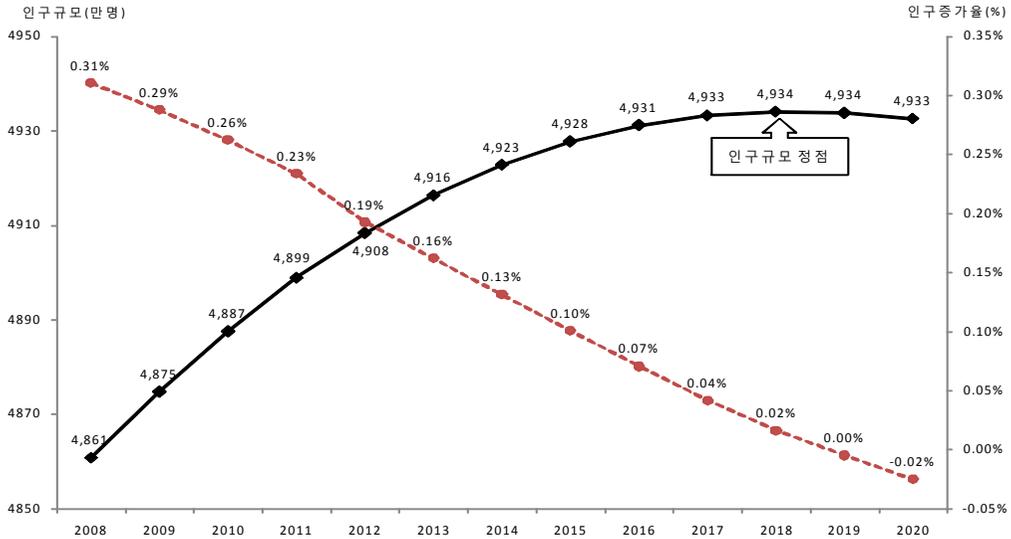
향후 자동차보험시장은 자동차대수 둔화, 사고발생률 감소, 고령자 비율 증가 및 인구증가둔화(또는 감소)로 성장률의 정체 또는 하락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됨.

가. 자동차대수

- 자동차보험시장 성장과 양(+)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대수는 인구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 등으로 과거의 증가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인구수 변화 추이를 보면, 2018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인구증가율 정체 또는 인구 감소는 자동차대수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큼.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인구증가율은 2008년 현재 0.3%에서 점차 둔화되고, 2018년 기점으로 인구규모 자체가 감소할 전망이다.
- 고령자의 비중은 2008년에 14.5%에서 2020년에는 23.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령화는 자동차대수 증가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3> 국민 총인구추계 추이

(단위 : 만명)



자료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2007년 기준으로 각 연령대별 인구수 대비 자동차대수의 비율(자동차소유 비율)은 20대가 0.1%이고 21세부터 25세는 3.8%, 60세~64세는 22.7%, 65세 이상은 8.7%수준임.

<표 11> 인구대비 자동차대수 비교(2007년)

(단위 : 천명, 천대)

구분	추계인구 (A)	평균유효대수 (B)	구성비(C=B/A)
20세 이하	1,849	2	0.1%
21~25세	3,562	136	3.8%
26~59세	25,581	8,417	32.9%
60~64세	1,950	442	22.7%
65세 이상	4,574	398	8.7%

주 : 1) 통계청자료는 2006년 11월에 작성한 2007년 추계자료이며, 평균유효대수는 FY2007의 자동차등록대수 통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구성비의 시사점을 얻는 것이 목적으로 두 통계를 동시에 사용하였음.

2) 자동차대수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의 평균유효대수 기준임.

자료: 1) 기승도,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보험연구원, p.90

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자동차 소유비율이 낮은 고연령계층의 구성비는 2008년 14.5%에서 2020년에 23.1%로 12년 동안 약 8.6%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12> 고령자 구성비 증가추이

	2008년	2012년	2018년	2019년	2020년
60~64세	4.1%	4.7%	6.8%	7.2%	7.5%
65세 이상	10.3%	11.7%	14.3%	14.9%	15.6%
합계	14.5%	16.4%	21.1%	22.1%	23.1%

자료 : 통계청(<http://www.kostat.go.kr/>), 연령별 추계인구

- 인구증가율 둔화 및 고령화의 급진전을 고려할 때, 향후 경제성장의 가속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대로 국민이 두 번째 자동차(second car)를 소유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동차대수의 감소 압력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가구당 자동차대수, 자동차가 운행되는 도로연장거리 등 기타 여건을 볼 때, 자동차등록대수가 늘어날 여건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가구당 자동차대수 측면을 보면, FY2008의 평균유효대수 약1,600만대를 가구기준으로 환산해보면 1가구당 1.28대이며, 이는 1가구당 1대7 이상의 수준에 도달한 것임.
 - 도로여건을 보면, 연평균 도로증가율(2000년 이후 2008년까지)이 2.0%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FY2000년부터 FY2008년까지 자동차대수 연평균 증가율 4.1%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로여건은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됨.

7) 우리나라의 도로여건, 운전행태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 소유의 기준을 가구당 1대 수준으로 설정하여 분석함.

<표 13> 도로연장거리 추이(연도별)

(단위 : 1000km)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연평균 증가율
도로거리 (1000km)	88.8	91.4	96.0	97.3	100.3	102.3	102.1	103.0	104.2	2.0%
증가율(%)	1.4	3.0	5.1	1.3	3.1	2.0	-0.2	0.9%	1.2%	

자료 : 경찰청, 『2009 교통사고통계』, 2009.12, p.10

-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4%대 초반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동차대수 증가도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3~5년 전 국내 주요 전망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1990년대 6%대에서 2000년대 4% 후반, 2010년대는 4% 초반으로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 더욱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을 고려할 경우 4%대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존재함.

<표 14> 주요 기관들의 잠재 성장률 전망

(단위 : %)

		1991~2000	2001~2010		2011~2020
한국개발연구원 (2004)	고성장	6.8	5.2		4.9
	저성장		4.7		4.3
한국은행 (2005)		6.1	4.8 (‘01-‘04)	4.6 (‘05-‘14)	-
산업연구원 (2006)		6.1 (‘91-‘04)		4.9 (‘05-‘10)	4.0
삼성경제연구소 (2009)		7.0 (‘91-‘97)	4.5 (‘98-‘07)	3.8 (‘08-09)	-

- 자료 : 1) 한국개발연구원 외,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2004.
 2) 박양수·문소상,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은행 조사원보 9월호, 2005.
 3) 산업연구원,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 2006.
 4) 황인성, “잠재성장률 추이와 부진의 원인”, SERI 경제포커스 제254호, 삼성경제연구소, 2009.

나. 경쟁정도

-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라인자동차보험 성장은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영국⁸⁾ 등 해외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구성비, 자동차보험의 주요 경쟁수단이 가격인 점 그리고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추이 등을 볼 때,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의 규모는 현재(FY2008년 상반기 17.8%)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표 15> 영국의 개인자동차보험 판매채널별 비중현황

(단위 : %, %p)

구 분	2001	2005	2006	2007	2008e	차이08-04
직판	41	41	41	41	41	0
중개사	32	31	30	30	31	-1
제휴채널	16	17	18	17	17	+1
은행/주택조합	6	6	6	7	7	+1
임직원	3	3	3	3	2	-1
기타회사대리점	2	2	2	2	2	0

자료 : Datamonitor(2009), UK Personal Insurance Distribution 2009.

- 또한 현재 자동차보험 진입장벽의 수준과 현재 농협의 자동차보험 사업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향후 자동차보험시장은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으로 경쟁정도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2000년대 초에 자동차보험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현재 자동차보험시장에는 언제든지 경쟁력 있는 보험회사가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
- 그리고 자동차보험 상품 특성⁹⁾ 및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진출로 자동차보험시장에서 가격인하 경쟁(또는 가격인상 자체경쟁)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새로운 회사가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는 자동차보험시장 성장둔화 또는 영업수지 악화의 원인이 될 개연성이 있음.

8) 직판시장 성장추세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여, 본 연구의 사례로 제시하였음.
 9) 모든 보험회사가 유사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음. 이처럼 상품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어서 보험회사는 상품특성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기 어려움.

다. 사고발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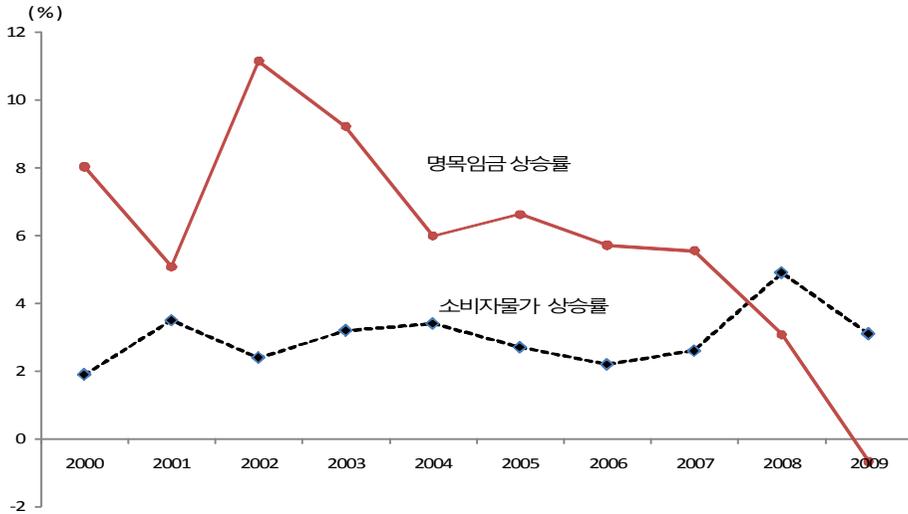
-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과 양(+)의 관계에 있는 ‘자동차 사고발생률 추이 측면’을 보면, 자동차사고를 줄이는 정책 시행으로 사고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한 도로개선사업 또는 교통신호 개선사업의 지속, 도심 지역에서 자가용 등의 운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 시행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이외에도 운전자의 운전행태를 변화시키는 제도인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음주운전자 처벌강화 등),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강화, 요일제 자동차 보험제도¹⁰⁾ 또는 주행거리연동 제도의 도입 등의 정책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

라. 1사고당 손해액

- 자동차보험시장 성장과 양(+)의 관계에 있는 1사고당 손해액(보험금원가)은 소비자물가지수 증가, 임금상승률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 정도는 적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률이 과거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되므로 보험금 원가 구성항목인 인건비, 공임 및 부품가격의 상승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2000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과 명목임금상승률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약 2%~4%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보험금원가에 해당되는 임금수준은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명목임금의 감소 추세는 인적사고의 보험금원가가 감소의 원인이며,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은 물적사고의 보험금원가인 공임 및 부품가격 증가의 원인인데, 두 요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으로써 전체 보험금원가 증가율이 둔화된 원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

10) 2010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에 있음.

<그림 4> 소비자물가 및 명목임금 추이



<표 16 > 소비자물가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소비자물가	1.9	3.5	2.4	3.2	3.4	2.7	2.2	2.6	4.9	3.1
명목임금	8.0	5.1	11.2	9.2	6.0	6.6	5.7	5.6	3.1	-0.7

주 : 명목임금은 전사업 5인이상 사업장 대상의 자료임.
 자료 : 1)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각호
 2)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 각호

□ 고가자동차¹¹⁾의 구성비 증가로 자동차보험 시장은 보험금 증가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총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11) 고가자동차의 증가는 최근 자동차보험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이고, 2000년대 이후 1사고당 손해액의 담보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인적담보는 감소한데 반해 물적담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자동차사고 손해액 증가의 주요 요인인 물적담보의 원가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인 고가자동차 증가추이를 본 절에서 세부적으로 살펴 보았음.

- 최근에 생산·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자동차(국산차 및 외제차)의 구성비 증가로 평균 차량가액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균 차량가액 증가추이를 보면, 연평균 4.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동차가격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차량가액 증가는 보험금 증가 및 보험료 증가의 원인임.

<표 17> 평균 차량가액 추이

(단위 : 천 대, 천 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증가율
평균차량가액	7,311	7,954	7,982	8,095	8,629	4.2%
지수	100	109	109	111	118	-

자료 : 기승도,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율관리방안”, 『CEO-Report, CR2008-01』, 2008, p.7

- 보험금원가 또는 보험료 증가의 원인인 고가차(최근 내수자동차 및 수입차)의 등록대수 추이를 보면, 고가 자동차의 구성비가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 과거 9년 동안 등록된 자동차 구성비가 전체의 74.9%(구성비 2)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우리나라 자동차의 약 절반이상이 10년 이내에 구입한 자동차(상대적으로 비싼 자동차)인 것으로 추정됨.

<표 18> 국산차와 수입차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천대)

연도	총등록 대수(A)	국산차				수입차			
		내수 대수(B)	국산차 누적(C)	구성비 1(D)	구성비 2(E)	내수 대수(F)	수입차 누적(G)	구성 비2(H)	구성 비3(I)
2000년	7,798	1,058	1,053	13.6%	13.5%	4	4	0.4%	0.1%
2001년	8,588	1,065	2,111	12.4%	24.6%	8	12	0.8%	0.1%
2002년	9,414	1,225	3,320	13.0%	35.3%	16	28	1.3%	0.3%
2003년	9,942	1,002	4,302	10.1%	43.3%	19	48	1.9%	0.5%
2004년	10,274	858	5,137	8.4%	50.0%	23	71	2.7%	0.7%
2005년	10,759	914	6,019	8.5%	55.9%	31	102	3.4%	0.9%
2006년	11,219	936	6,915	8.3%	61.6%	41	143	4.4%	1.3%
2007년	11,674	986	7,848	8.4%	67.2%	53	196	5.4%	1.7%
2008년	12,026	959	8,745	8.0%	72.7%	62	258	6.5%	2.1%

주 : 1) $D=B/A$, $E=C/A$, $H=F/B$, $I=G/A$
 2) 내수대수는 자가용 승용차 기준임.
 자료 : 1) 국토해양부
 2) 한국수입자동차협회(<http://www.kaida.co.kr/>)

4. 성장률 정체시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자동차보험시장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면, 가격경쟁 및 시장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경영위험이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시장의 성장정체를 벗어나거나 정체시기를 늦추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대당 보험료가 큰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기계적 고장을 보장해주는 상품 개발과 같은 새로운 위험(서비스)을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현재와 같은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손해율에 부합한 요율 적용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가. 자동차보험시장 성장률 정체시 문제점

1) 경영위험 가능성 증가

- 손해보험회사들은 규모의 경제(시장점유율 확대)를 확보하는 경쟁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즉, 시장이 축소될 경우 비용(주로 고정사업비)을 충당하는데 문제(또는 영업수지 적자의 고착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에 주력할 가능성이 큼.
-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한 보험회사에게는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특히, 자동차보험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태에서 경쟁력 있는 자동차보험 회사가 시장에 추가로 진입할 경우, 기존 경쟁력이 낮은 보험회사는 더욱 큰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임.

2) 보험회사의 가격경쟁 심화(영업수지 악화)

- 자동차보험 상품은 가격결정요소 및 보장내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들은 이미지 제고전략 및 가격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케팅 전략에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음.
- 이러한 보험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고령화진전, 인구감소, 경제성장률 정체 현상이 현실화는 경우에 가격경쟁, 손해율 증가, 영업수지 적자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음.
 - 예를 들면, 보험회사들은 다른 회사의 우량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낮은 가격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시장 전체적으로 충성도 높은 우량고객이 감소할 것임.

3) 설계사 등 자동차보험 종사자 고용감소

- 자동차보험시장 규모가 정체 또는 축소된다면, 시장참여자 및 보험업 종사자의 실적이 예상됨.
- 자동차보험시장의 규모 정체 또는 축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서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질 경우 자동차보험 설계사들의 소득감소, 실직 가능성이 있음.

4) 소비자 서비스 축소 가능성

- 경영위험 가중 및 자동차보험가격 인하경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가격인하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손해보험회사들은 적정 손해를 유지 또는 영업수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상기준 강화를 통한 보상규모 축소, 손해율이 높은 긴급출동서비스 축소 등 소비자에게 제공했던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는 행동을 취할 개연성이 큼.

나. 개선방안

- 본 절에서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 정체 또는 축소가 발생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시장 성장정체의 지연 방안’ 또는 ‘성장정체기의 보험회사 대응방안’을 간략하게 검토하였음.

1)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률 제고 필요

- 현재 자동차보험 담보별 부보율을 보면, 대부분 80%를 상회하고 있으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가입률은 50%수준으로 낮은 수준임.
- 대당보험료가 큰 자기차량손해담보의 가입률을 기타 담보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면, 소비자에게 위험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동차보험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표 19> 자동차보험 담보별 부보율(FY2008)

구 분	대인 II	대물	자손	차량	무보험
부보율	88.4%	92.4%	86.8%	52.6%	82.8%

주 :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부보율로서, 공제부분의 실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자료 : 업계 통계

-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중고자동차를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중고차 소유자들의 성향도 일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니즈(저렴한 차량담보 보험료)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임.
- 예를 들면, 충돌담보, 분손담보 등으로 자기차량손해담보 위험을 세분화하여 세

분위험별 보장상품을 만들고, 가입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차량담보상품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2) 새로운 자동차 운행 위험을 자동차보험 담보로 제공

- 순수하게 자동차사고만을 대상으로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있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기존 자동차보험 사고만이 아닌 새로운 위험을 자동차보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안의 하나로 ‘자동차 고장위험’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을 연구해볼 필요도 있음.
 -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직면한 위험은 ‘자동차 사고위험’과 ‘자동차 고장위험’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위험은 ‘자동차 사고위험’에 한정됨.
 - 자동차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자동차 고장위험’도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보험회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운전자의 만족도는 커질 것이며, 이는 손해보험회사의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임.
 - 자동차 고장위험과 관련하여 현재 손해보험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상품으로는 ‘긴급출동서비스’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이외에 자동차의 기계적 고장을 보장해주는 상품(예를 들면, Mechanical Breakdown Insurance)이 개발·제공되고 있음.
 - 유럽 및 미국에서는 이러한 상품을 자동차 정비공장 등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경우(GEICO)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자동차 고장위험’을 담보하는 상품개발도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3) 타 보험종목 판매역량 강화

-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이 정체될 경우, 자동차보험만 전문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보험종목상품의 경쟁력이 떨어진 전보험종목 영위 보험회사는 장기적으로 경영상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자동차보험시장의 비중이 큰 보험회사들은 위험헛지 차원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다른 보험상품 판매역량을 강화하는 경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적정 손해율 유지 노력 필요

- 자동차보험시장의 정체시에는 가격경쟁으로 만성적인 영업수지 적자 현상이 고착화 될 수 있으므로, 보험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적정 손해율에 부합한 요율 적용이 이루어지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함.
- 즉, 보험회사는 지나친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되 고급 서비스(계약유지서비스와 보상서비스의 고급화)를 제공하는 경영정책이 필요함.

경제금융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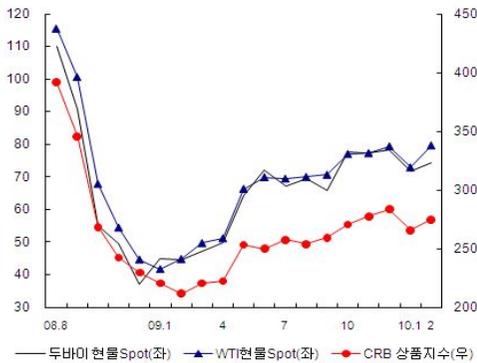
1. 세계경제

2009년 4/4분기 세계경제는 상반기에 비해 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국과 미국의 회복세가 주목되는데 이는 경기진작 정책과 재고조정에 힘입은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향후 재고조정 의 영향력 감소, 재정적자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세 가속 여부는 불투명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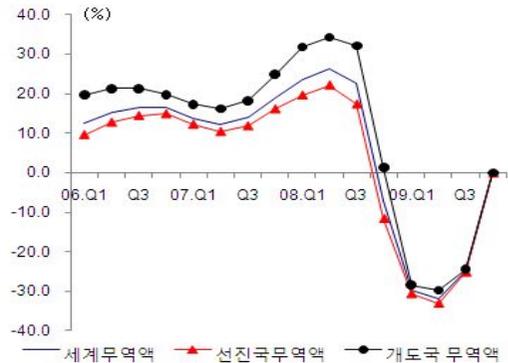
- 2009년 4/4분기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로 경제의 2분기 연속 증가세 시현, 일본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중국경제의 10%대의 견조한 성장세 등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
 - 미국은 고용시장의 안정화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내수와 생산부문의 호조세에 힘입어 실질 GDP 성장률이 5.9%(연율)를 기록하고, 경기체감지수와 선행지표들도 상승세를 가속하는 등 경기회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나, 주택경기는 혼조세를 보임.
 - 유로지역은 경기체감지수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산업생산도 호조를 보였으나, 소비가 둔화되면서 실물지표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고, 대외부문은 다소 둔화됨으로써 경기회복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일본은 내수와 대외부문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고용시장이 안정되는 가운데 생산부문도 호조세를 이어가 완만한 경기회복 추세가 유지되는 상황이며 급락하던 소비자물가도 하락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
 - 중국은 경기체감지수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와 대외부문의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실질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도달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감.
- 원자재와 원유 가격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원자재 및 원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상승추세가 유지되는 모습임.
 - 2009년 4/4분기 WTI 국제 유가 평균은 배럴당 77.9달러로서 전분기대비 11.2% 상승하였고, 금년 2월말 현재 80달러에 근접하고 있음.

- 동·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역시 4/4분기 중 전분기대비 각각 12.9%, 9.1% 상승하였으며, 원면(20.9%), 옥수수(17.2%), 소맥(10.1%) 등 전반적인 농산물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였으나, 금년에 들어서는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임.
- 곡물·원유·산업용원자재의 국제가격 평균 수준인 CRB지수¹⁾는 2009년 4/4분기 중 전분기대비 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무역액은 신흥개도국과 선진국이 모두 빠른 회복추세를 보임에 따라 감소폭이 대폭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무역액(수출액+수입액)은 2009년 3/4분기(-24.9%) 이후 감소폭이 대폭 줄어들어 10~11월에는 -4.0%로 크게 개선되는 등 빠른 회복세를 시현함.
-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의 무역액은 2009년 3/4분기 중 각각 -25.1%, -24.4%에서 10~11월 중 각각 -4.3%, -3.3%로 회복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며, 회복속도에 있어서도 격차를 보이지 않는 모습임.

<그림 1>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지수 추이 <그림 2> 세계 무역액 증가율 추이



자료 : bloomberg



주 : 2009년 4/4분기는 10~11월 평균임.
자료 : IMF

1) CRB(Commodity Research Bureau)는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 22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가. 미국경제

2009년 4/4분기 실질 GDP는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함으로써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점차 증대되는 모습임. 소비지출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장비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지출이 확대되면서 내수가 점차 개선되는 상황이며, 재고조정도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여 향후 생산부문의 개선이 기대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4/4분기의 실질 GDP는 설비투자 및 수출의 회복세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5.9%(연율)로 증가하는 등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특히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0.1%)을 시현함으로써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는 모습임.
 - 민간소비는 내구재 감소를 비내구재와 가계서비스의 증가로 상쇄하면서 2분기 연속 증가하였으나, 증가세는 여전히 완만한 상황임.
 - 설비투자는 6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됨으로써 회복의 조짐이 나타난 반면, 주택투자는 전분기의 급격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으로써 투자부문이 혼조세를 보임.
 - 수출은 3/4분기의 호조세가 확대되어 4/4분기에는 22.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은 15.3% 증가에 그치는 등 전분기의 호조세가 둔화됨.
 - 정부지출은 연방정부의 지출 둔화와 주정부 지출의 하락으로 인해 4/4분기 중 1.2% 하락하는 등 3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됨.
- FOMC²⁾는 최근의 경기호조를 바탕으로 작년 11월에 발표한 2010년 미국경제 성장률 전망의 하한치를 상향 조정함.
 - 2010년 수정전망(2.8~3.5%)은 경기회복의 가속을 반영하여 하한을 0.3%p 상향 조정한 반면, 2012년 수정전망(3.5~4.5%)은 작년 11월의 전망보다 상한이 0.3%p 하향 조정됨.
 - 또한 2월에 발표된 2010년 수정전망(중간 값 3.2%)은 최근의 빠른 경기회복세를 반

2)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Minutes of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2010.2.17.

영하여 작년 11월에 발표된 IMF의 전망치(2.6%)나 Goldman Sachs(1.9%), UBS(2.8%), Morgan Stanley(3.2%), JP Morgan(3.6%) 등의 전망치 평균(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연율, 전기대비, %)

	2008	2009	2008		2009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실질GDP	0.4	-2.4	-2.7	-5.4	-6.4	-0.7	2.2	5.9
민간소비	-0.2	-0.6	-3.5	-3.1	0.6	-0.9	2.8	1.7
설비투자	1.6	-17.7	-6.1	-19.5	-39.2	-9.6	-5.9	6.5
주택투자	-22.9	-20.4	-15.9	-23.2	-38.2	-23.3	18.9	5.0
수출	5.4	-9.6	-3.6	-19.5	-29.9	-4.1	17.8	22.4
수입	-3.2	-13.9	-2.2	-16.7	-36.4	-14.7	21.3	15.3
정부지출	3.1	1.9	4.8	1.2	-2.6	6.7	2.6	-1.2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Economic Analysis, 2009.2.22

<고용과 물가>

- 실업률은 최근 들어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비농업취업자 역시 감소세가 큰 폭으로 축소되는 등 고용시장이 점차 안정되는 상황임.
- 실업률은 작년 말부터 정체된 모습을 보이다가 1월에 들어와서는 큰 폭(0.3%p)으로 하락함으로써 실업률이 둔화추세로 전환됨.
 - 실업률은 작년 11월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하락함으로써 하락주기가 15개월(2009년 7월)→4개월(2009년 11월)→2개월(2010년 1월)로 점차 단축되는 모습임.
 - 1월 현재 실업률은 연령별·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특히 고실업률을 보이던 16~17세의 실업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비농업취업자는 최근 3개월간 2만 4천명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작년 연평균(39만5천명 감소)의 10%에도 미달하는 등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는 제조업·서비스업의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되는 상황이나 건설업은 개선추세가 다시 악화됨.

경제금융 동향

- 특히, 파트타임 취업자가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주당 작업시간이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의 선행지표들이 개선됨으로써 비농업취업자의 증가세 반전이 기대됨.
- FOMC가 2월에 발표한 2010년 실업률 전망은 작년 11월의 전망보다 상향 조정되었으나, 2011년과 2012년의 전망은 하향 조정됨으로써 향후 3년간 상고하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임.
- 2009년 실업률은 9.5~9.7%로 상승하나,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8.2~8.5%와 6.6~7.5% 수준으로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표 2>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9	2009											2010
	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실업률	9.3	8.6	8.9	9.4	9.5	9.4	9.7	9.8	10.1	10.0	10.0	9.7	
비농업취업자증감 ¹⁾	-4,740	-753	-528	-387	-515	-346	-212	-225	-224	64	-109	-26	
소비자물가 ²⁾	-0.4	-0.4	-0.7	-1.3	-1.4	-2.1	-1.5	-1.3	-0.2	1.8	2.7	2.6	
(근원 소비자물가)	1.7	1.8	1.9	1.8	1.7	1.5	1.4	1.5	1.7	1.7	1.8	1.6	
생산자물가 ²⁾	-2.6	-3.4	-3.5	-4.8	-4.4	-6.9	-4.4	-4.8	-1.9	2.4	4.4	4.6	
소매판매 ³⁾	-6.2	-9.5	-10.0	-9.8	-8.8	-8.5	-5.5	-6.1	-2.0	2.7	5.5	4.1	
재고/도매판매비율 ⁴⁾	1.24	1.32	1.31	1.28	1.25	1.23	1.20	1.17	1.17	1.14	1.12	1.10	
주택착공호수 ⁵⁾	-38.5	-47.5	-52.1	-43.3	-45.3	-36.4	-31.6	-28.7	-31.3	-11.6	3.4	21.1	
주택가격지수 ⁶⁾	198.8	198.4	197.8	198.7	199.2	199.5	198.6	198.1	198.6	199.3	196.1	-	
소비자신뢰지수 ⁷⁾	45.2	26.9	40.8	54.8	49.3	47.4	54.5	53.4	48.7	50.6	53.6	56.5	
경기선행지수 ⁸⁾	101.9	97.9	98.9	100.2	101.1	102.5	103.1	104.2	104.7	105.8	107.1	107.4	
산업생산지수 ⁹⁾	98.2	97.7	97.2	96.2	95.8	96.8	98.1	98.7	98.9	99.5	100.1	101.1	
산업생산가동률	70.1	69.5	69.2	68.5	68.3	69.1	70.1	70.6	70.9	71.3	71.9	72.6	
재고/출하비율 ¹⁰⁾	1.40	1.46	1.45	1.45	1.41	1.39	1.38	1.35	1.34	1.32	1.29	1.29	
ISM제조업PMI	46.2	36.4	40.4	42.2	45.3	49.1	52.8	52.4	55.2	53.7	54.9	58.4	

주 : 1) 전월대비동기대비 3) 계절조정 4) 계절조정, 제조업자 직거래 제외 5)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6)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1991.1=100, 계절조정

7) 1985=100, 8) 2004=100 9) 계절조정, 2002=100 10) 제조업부문, 계절조정

자료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Labor Statistics; The Conference Board

-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인해 작년 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어 금년 1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하는 추세임.
 -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작년 11월(1.8%)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함.
 - 1월 중 에너지가격은 19.0% 상승하여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한 반면, 식료품 가격은 오히려 0.4% 하락함.
 - 에너지가격과 식료품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는 1월 중 1.6% 상승함으로써 2009년 연평균(1.7%)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생산자물가는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 작년 11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금년 1월에는 대폭(4.6%) 상승함.
 - 이러한 물가상승세를 반영하여 FOMC는 금년 2월 2010~2012년 소비자물가 전망에서 작년 11월의 전망치를 상·하한 모두 상향 조정함.
 - 2010년에 1.4~1.7%,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1.1~2.0%와 1.3~2.0%의 수준으로 수정 전망하였는데, 이는 주요 금융기관³⁾의 전망 평균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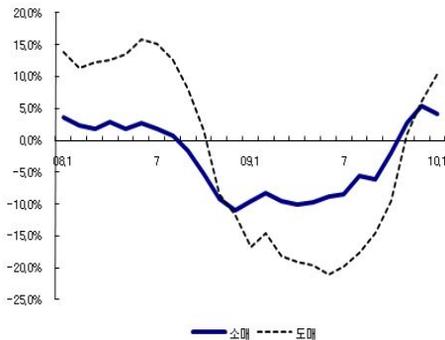
<내수부문>

- 재고조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부문은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나, 주택부문은 착공이 증가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반면,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임.
 - 소매판매는 작년 11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1월에는 4.1%로 증가세가 가속됨.
 - 비상점형(non-store)의 소매 증가를 필두로 대부분의 종목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자동차·부품판매는 중고차보상 프로그램 종료로 감소세를 보였고, 건축자재·가구판매는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3) 주요 금융기관(JP Morgan(0.4%), UBS(0.6%), Goldman Sachs (0.9%), Morgan Stanley(1.2%))의 2010년 소비자물가 전망치의 평균은 0.8%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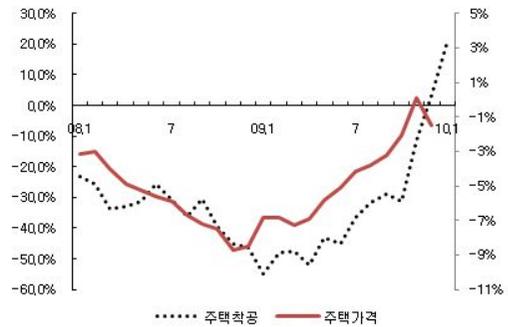
- 도매판매도 작년 11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증가세로 전환되어 1월에는 10.5% 상승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었으며, 재고/도매판매 비율도 하락세가 지속되어 재고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주택착공호수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기존 주택거래도 1월 중 11.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가격지수는 1월 중 전월대비 1.6% 하락함으로써 주택부문의 경기가 혼조세를 보임.
 - 주택가격지수는 작년 2/4분기부터 주택구매 세액공제 혜택과 미연준의 주택담보대출증권 매입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금년 3월부터 이러한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주택경기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짐.

<그림 3> 도소매 판매 증가율 추이



주 : 계절조정, 전년동기대비
자료 : U.S. Census Bureau

<그림 4> 주택건설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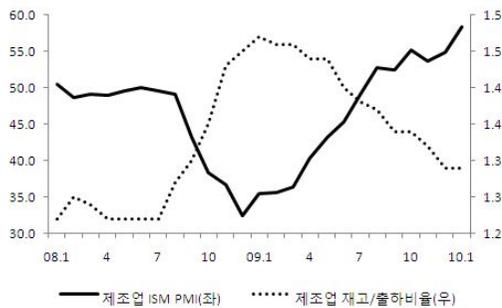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자료 : U.S. Census Bureau

- 소비자신뢰지수가 작년 11월부터 경기상승의 기준치(50)를 상회하고, 경기선행지수가 금년 1월에 작년의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차 커지는 모습임.
- 고용시장의 개선과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에 영향을 받아 소비자신뢰지수와 경기선행지수는 1월 중 각각 56.5와 107.4를 기록함으로써 작년의 최고치를 경신함.

<생산부문>

- 산업생산지수와 산업생산가동률은 재고조정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이나 최근에는 재고조정 속도가 점차 둔화되고 있어 향후 생산부문의 증가세 지속이 주목되는 상황임.
- 산업생산지수와 산업생산가동률은 전종목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금년 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0.9%, 2.1% 상승함으로써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하락세가 유지되던 재고/출하비율은 작년 12월(1.29%)과 금년 1월(1.29%)에도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면서 다소 정체되는 상황이고 재고조정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임.
- ISM의 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는 금년 1월에 58.4를 기록하여 작년 최고치를 경신함으로써 금년 상반기 생산부문의 순조로운 성장이 기대됨.
- PMI는 6개월 연속 경기확대 기준인 50을 상회하였으며, 작년 12월(54.9)부터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제조업 ISM PMI와 재고출하율



자료 :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 U.S. Census Bureau

<그림 6>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U.S. Census Bureau

나. 유로경제

2009년 3/4분기 실질 GDP가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되면서 회복세에 들어서기 시작한 유로경제는 4/4분기에도 0.1% 성장함으로써 완만하나마 회복세가 유지됨. 그러나 경기체감지수가 세계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여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진작 정책의 완료로 인해 투자와 소비는 부진한 모습을 이어감.

<최근 동향 및 전망>

- 4/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대비 0.1% 성장하여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였으나, 민간소비·투자·정부지출 등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인해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모습임.
 - 민간소비는 4/4분기 중 정체됨에 따라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투자는 3/4분기의 0.9% 감소에 이어 4/4분기에도 0.8% 감소함으로써 내수부진이 부진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상황임.
 - 3/4분기 중 실질 GDP의 증가세 반전에 크게 기여했던 수출은 4/4분기에는 1.7% 증가하여 다소 둔화되었으며, 수입 역시 내수부진으로 0.9%의 소폭 증가에 그치는 모습임.
- 주요 국가별로는 영국경제가 7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고, 프랑스는 3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반면, 독일은 성장 폭이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프랑스는 4/4분기 중 실질 GDP가 0.6% 증가하여 3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하였는데 이는 민간소비의 상승과 투자 감소의 둔화 등 내수부문의 활력회복에 기인함.
 - 영국은 민간소비의 소폭 개선과 투자의 마이너스 전환으로 인해 3/4분기보다 내수부문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나, 수출의 호조로 인해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실질 GDP가 플러스 성장(0.3%)함.
 - 독일은 작년 9월말 신차교체 세제지원과 같은 일시적인 소비진작이 종료되면서 4/4분기 중 민간소비가 0.0% 증가하는 부진이 발생했고, 3/4분기 성장을 견인했던 투자도 0.7% 감소함으로써 실질 GDP는 0.0% 증가하는 등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유로위원회⁴⁾는 경기부양책과 재고조정의 효력 소진, 각국의 재정적자 부담으로 인해 향후 유로지역 경제는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유로지역 전체는 2010년 0.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독일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성장률이 높고, 프랑스는 상반기 초반 비교적 높게 성장한 후 둔화되다가 하반기 말에 회복조짐을 보이겠으며, 영국은 상하반기 큰 차이 없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유로지역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2008	2009	2008		2009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EA16 실질 GDP	0.6	-4.1	-0.4	-1.9	-2.5	-0.1	0.4	0.1
민간소비	0.4	-1.1	0.0	-0.6	-0.5	0.1	-0.2	0.0
고정자본형성	-0.4	-11.1	-1.2	-4.1	-5.4	-1.7	-0.9	-0.8
정부지출	2.1	2.2	0.5	0.6	0.6	0.6	0.8	-0.1
수출	1.0	-13.4	-1.0	-7.2	-8.3	-1.1	2.9	1.7
수입	1.0	-12.0	0.3	-4.8	-7.6	-2.9	2.8	0.9
독일 실질 GDP	1.3	-5.0	-0.3	-2.4	-3.5	0.4	0.7	0.0
민간소비	-0.1	0.4	0.3	-0.4	0.8	0.9	-1.0	-1.0
고정자본형성	4.4	-9.3	0.6	-2.0	-7.9	0.8	0.9	-0.7
영국 실질 GDP	0.5	-5.0	-0.9	-1.8	-2.6	-0.6	-0.3	0.3
민간소비	1.4	-12.3	-0.3	-1.2	-1.5	-0.9	0.1	0.3
고정자본형성	-3.1	-23.1	-3.6	-2.4	-7.2	-6.1	1.6	-3.1
프랑스 실질 GDP	0.4	-2.2	-0.2	-1.5	-1.4	0.3	0.2	0.6
민간소비	0.9	0.9	0.3	0.0	0.2	0.3	0.1	0.9
고정자본형성	0.4	-6.4	-1.2	-2.6	-2.4	-1.0	-1.4	-1.2

주 : Euro Area는 2009.1부터 슬로바키아를 포함하여 15개 회원국에서 16개 회원국으로 변경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 2010.3, European Central Bank, 2010.3.

4) European Commission, Interim Forecast, 2010.2.

〈고용과 물가〉

- 유로지역의 고용시장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부진한 상황임.
 -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9.9%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남성(9.9%), 여성(10.0%), 25세 이하(20.2%)의 실업률도 최근 3개월 간 동일하게 유지되는 모습임.
 - 독일의 실업률은 작년 10월(7.5%)부터 금년 1월까지 동일한 수준이며, 영국은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7.8%의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금년 1월에 10.1%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실업률이 낮은 국가(1월 현재, 네덜란드 4.2%)도 꾸준히 실업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발틱3국(라트비아(22.9%), 에스토니아(15.5%), 리투아니아(14.6%)) 등 실업률이 높은 국가들은 상승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추세임.
- 소비자물가는 작년 6~10월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에너지가격의 상승 영향 등으로 11월부터 상승세로 반전하였고, 금년 1월에는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임.
 - 유로지역의 최근 3개월 평균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 0.8% 수준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2009년 연평균(0.3%)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임.
 - 독일과 프랑스의 소비자물가는 각각 작년 11월과 12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반면, 영국은 작년 말부터 큰 폭의 상승을 시현함.
 - 발틱3국의 물가는 다른 유로지역과는 달리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어 저물가와 고실업률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임.

〈내수부문〉

- 유로지역 전체의 소매판매는 최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이 재연되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 등 주요국의 소매판매는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임.
 - 유로지역은 소매판매의 전종목이 부진한 가운데 1월의 소매판매지수(100.4)는 2009년 연간 평균(100.9)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발틱3국의 소매판매가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독일과 영국의 1월 소매판매는 2009년 연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부진한 모습이며, 프랑스는 소폭 개선되는 추세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소비 부진이 여전하지만 고용여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으며,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힘입어 개선 추세를 유지하는 모습임.

○ 소비자신뢰지수는 1월 현재 -15.8을 기록하여 2009년 연평균(-24.9)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표 4> 유로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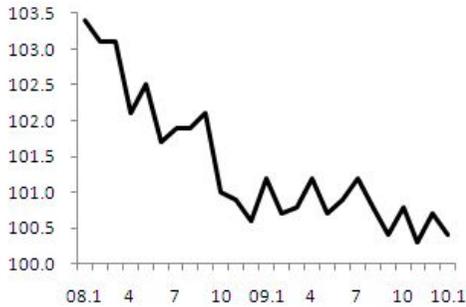
(단위: %)

	2009	2009										2010
	연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EA16												
ESI ¹⁾	80.8	70.6	73.0	75.6	78.3	80.8	84.8	86.7	89.6	91.9	94.1	96.0
실업률 ²⁾	9.4	9.0	9.2	9.3	9.4	9.5	9.6	9.8	9.8	9.9	9.9	9.9
소비자물가 ³⁾	0.3	0.6	0.6	0.0	-0.1	-0.7	-0.2	-0.3	-0.1	0.5	0.9	1.0
소매판매지수 ⁴⁾	100.9	100.8	101.2	100.7	100.9	101.2	100.8	100.4	100.8	100.3	100.7	100.4
소비자신뢰지수 ⁵⁾	-24.9	-34.2	-30.5	-28.1	-25.1	-23.0	-22.0	-19.0	-17.7	-17.3	-16.1	-15.8
제조업기대지수 ⁵⁾	-14.9	-31.6	-25.2	-20.5	-15.8	-13.4	-7.7	-7.2	-1.7	1.9	3.3	5.2
산업생산지수 ⁶⁾	90.6	90.2	89.4	89.0	89.2	89.4	89.8	90.4	90.7	91.8	92.3	93.9
산업신뢰지수 ⁵⁾	-28.4	-37.8	-35.0	-33.2	-31.7	-29.6	-25.4	-24.4	-20.8	-18.8	-16.0	-13.8
독일												
ESI ¹⁾	83.2	75.2	76.2	77.2	80.1	83.1	87.8	89.3	92.4	94.0	95.5	96.1
실업률 ²⁾	8.1	7.4	7.6	7.6	7.7	7.6	7.6	7.6	7.5	7.5	7.5	7.5
소비자물가 ³⁾	0.3	0.5	0.7	0.0	0.1	-0.5	0.0	-0.3	0.0	0.4	0.9	0.8
소매판매지수 ⁴⁾	97.6	97.9	98.3	97.8	96.8	98.1	96.5	97.1	98.1	96.9	97.8	97.8
산업생산지수 ⁶⁾	92.8	90.2	87.5	91.8	93.0	92.0	93.6	96.7	95.0	95.7	94.8	96.3
영국												
ESI ¹⁾	77.7	65.4	69.9	73.6	75.9	79.8	87.7	88.1	91.3	88.9	95.0	98.2
실업률 ²⁾	7.5	7.2	7.5	7.7	7.8	7.8	7.8	7.8	7.8	7.8	7.8	-
소비자물가 ³⁾	2.2	2.9	2.3	2.2	1.8	1.8	1.6	1.1	1.5	1.9	2.9	3.5
소매판매지수 ⁴⁾	111.1	110.2	110.4	109.5	111.6	111.4	111.4	111.9	112.5	112.5	111.4	-
산업생산지수 ⁶⁾	87.9	88.3	88.5	87.9	88.2	88.6	86.0	87.1	87.1	87.3	87.8	87.5
프랑스												
ESI ¹⁾	84.2	76.1	77.2	80.0	83.2	83.7	85.3	89.9	92.5	94.7	98.6	100.3
실업률 ²⁾	9.5	9.0	9.2	9.3	9.4	9.5	9.6	9.7	9.9	10.0	10.0	10.1
소비자물가 ³⁾	0.1	0.3	0.1	-0.3	-0.5	-0.7	-0.2	-0.4	-0.4	-0.2	0.9	1.1
소매판매지수 ⁴⁾	107.2	106.2	107.7	106.8	107.9	107.1	107.9	107.1	107.9	107.3	108.0	108.0
산업생산지수 ⁶⁾	87.8	86.1	85.0	86.6	87.0	88.0	90.0	88.8	88.7	89.4	89.3	90.6

주 : 1) Economic Sentiment Indicator(경기체감지수), 1990~2000의 평균=100, 구성은 제조업(40%)+서비스업(30%)+소비자신뢰(20%)+건설업(5%)+소매거래(5%), 2) 계절조정, 3) 전년동기대비, 4) 계절조정 2005=100, 5) 향후 경기에 대한 긍정 응답자와 부정 응답자 비율(%)의 차이, 6)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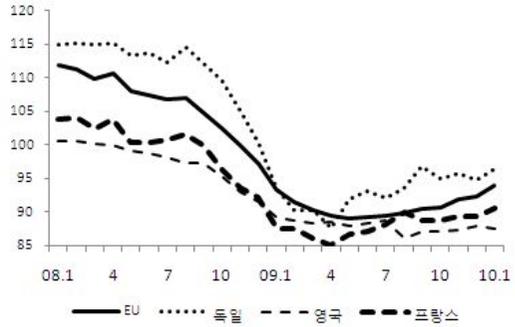
자료 : European Commission, Key euro area indicators, 2009.10.15
European Commission, Eurostatistics, 2009.10.7

<그림 7> 유로지역 소매판매지수 추이



주 : 2005=100, 계절조정

<그림 8> 산업생산지수 추이



주 : 2005=100 건설업 제외, 영국은 2003=100 건설업 포함.

<생산부문>

- 유로지역의 산업생산은 작년 5월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한 상황임.
 - 최근 3개월간 평균 산업생산지수는 중간재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92.7을 기록하였고, 2009년 연평균(90.6) 수준을 상회함.
 - 독일과 프랑스의 산업생산이 빠른 회복을 보인 반면, 영국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임.
- 생산부문의 호조와 더불어 생산부문의 체감지수와 선행지표도 빠르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체감지수인 산업신뢰지수는 1월에 -13.8을 기록함으로써 2009년 연평균인 -28.4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며, 선행지표격인 제조업기대지수 역시 최근 플러스로 반전함으로써 생산부문 호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적자 확대

- 유로공동체 결성(1999년) 이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온 유럽 일부 국가들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이 더욱 악화되고 국가신용의 우려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심각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에 직면해 온 그리스는 5월까지 200억 유로의 대외채무를 상환해야 할 처지임.
 - 국가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5년 만기 그리스 CDS 프리미엄은 2월 8일 현재 421.7로 동유럽 국가들을 상회함.
 - 재정위기는 그리스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등 남유럽국가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2월 8일 현재 포르투갈(238.1), 아일랜드(171.4), 스페인(166.3), 이탈리아(157.5)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위기는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전부터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왔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채무가 누적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2007~2009년 이들 국가의 재정적자는 GDP대비 3.9~6.4%로서 OECD 선진국 평균(1.6%)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남유럽 국가들이 유로화에 동참하면서 저금리를 이용한 비생산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로 금융위기 동안 채무 부담이 가중되어옴.
- 최근 EU의 공동대응으로 이들 국가의 재정위기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임.
 - 유로지역 회원국의 보증 하에 민간은행들이 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출에 나서서 방식을 취함.
- 그러나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당분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인해 유로지역이 재정분야의 출구전략을 추진할 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등 저성장의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보임.

다. 일본경제

일본경제는 4/4분기 실질 GDP가 소폭 증가세로 다시 전환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함. 고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부문이 활력을 회복함에 따라 경제가 점차 자생력을 찾아가고 있으며,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더블딥 위험은 다소 해소되는 상황임.

<최근 동향 및 전망>

- 4/4분기 실질 GDP는 민간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 호조와 정부소비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0.9%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출 등 대외부문이 다시 둔화되면서 경기회복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임.
 - 민간소비는 소폭 증가하여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설비투자는 7분기 만에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주택투자는 감소폭이 둔화됨으로써 투자부문이 개선되는 상황임.
 - 수출은 1/4분기 이후 크게 반등하였으나 4/4분기에는 5.0% 증가에 그쳤고, 수입 역시 증가세가 둔화됨으로써 대외부문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임.
- 일본내각부는 투자와 민간소비가 개선됨에 따라 내수에 의한 자생적 회복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하반기에는 대외부문의 개선 가능성이 높아 경기는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함.
 - Bloomberg가 집계한 13개 대내외 연구기관⁵⁾의 2010년 경제성장 평균 전망치는 1.9%이며, 2011년과 2012년의 평균치는 각각 1.8%와 1.6%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IMF⁶⁾는 작년 11월의 전망치와 동일하게 2010년 일본경제가 1.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2011년은 0.2%p 하향 조정된 2.2%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함.

5) 대내 연구기관으로는 Daiwa Institute of Research 등을 포함한 9개 연구소와 대외 금융기관으로는 Citigroup 등 4개 금융기관을 포함.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0.1.26

<표 5> 일본의 실질 GDP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2008	2009	2008		2009			
	연간	연간	3/4	4/4	1/4	2/4	3/4	4/4
실질 GDP	-1.2	-5.2	-1.3	-2.7	-3.6	1.5	-0.1	0.9
민간소비	-0.7	-1.0	-0.1	-0.8	-1.3	1.2	0.6	0.7
설비투자	0.1	-19.3	-3.9	-7.3	-8.7	-4.2	-2.6	0.9
주택투자	-8.1	-14.2	4.0	2.4	-6.6	-9.4	-7.8	-3.3
정부소비	0.3	1.6	-0.3	1.2	0.8	0.3	0.1	0.6
공공투자	-8.5	6.0	0.8	0.1	3.6	6.6	-1.5	-1.3
수출	1.6	-24.0	-0.7	-14.5	-23.8	9.2	8.4	5.0
수입	0.9	-17.0	2.6	0.1	-17.6	-3.9	5.4	1.3

자료 : 내각부, 2010.3.

<표 6>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2009	2009										2010
	연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소비자물가 ¹⁾	-1.4	-0.1	-1.1	-1.8	-2.2	-2.2	-2.2	-2.5	-1.9	-1.7	-1.3	
(근원소비자물가)	-0.7	-0.4	-0.5	-0.7	-0.9	-0.9	-1.0	-1.1	-1.0	-1.2	-1.2	
실업률 ²⁾	5.1	5.0	5.2	5.4	5.6	5.4	5.3	5.2	5.3	5.2	4.9	
소매 판매액 ¹⁾	-2.3	-2.8	-2.7	-3.0	-2.4	-1.8	-1.3	-0.9	-1.1	-0.2	2.6	
소비자신뢰지수 ³⁾	35.4	32.4	35.7	37.6	39.4	40.1	40.5	40.5	39.5	37.6	39.0	
주택착공호수 ⁴⁾	79	78	76	75	75	68	70	76	79	82	86	
민간기계수주액 ¹⁾	-26.9	-32.8	-38.3	-29.7	-34.8	-26.5	-22.0	-21.0	-20.5	-1.5	-1.1	
수출 ¹⁾	-33.1	-39.1	-40.9	-35.7	-36.5	-36.0	-30.7	-23.2	-6.3	12.0	40.8	
수입 ¹⁾	-34.9	-35.8	-42.4	-41.9	-40.8	-41.2	-36.9	-35.6	-16.7	-5.5	9.1	
광공업생산지수 ⁵⁾	80.6	74.8	79.1	80.9	82.6	83.9	85.7	86.1	88.0	89.7	92.1	
- 가동율 ⁶⁾	74.1	67.2	72.6	74.3	77.2	79.0	80.3	80.5	83.1	84.3	87.6	
- 재고/출하율 ⁷⁾	131.3	143.0	143.1	128.8	123.6	123.0	116.9	117.2	113.2	107.8	109.0	

주 : 1) 전년동기대비, 2) 계절조정, 3) 기준치=50, 4) 연간환산치, 만호, 5) 계절조정, 2005=100, 6) 계절조정, 2005=100, 7) 계절조정
 자료 : 일본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고용과 물가〉

- 실업률은 작년 7월을 정점으로 둔화되는 추세이며, 취업자수도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되는 상황임.
 - 실업률은 작년 7월(5.6%) 이후 크게 개선되어 금년 1월에는 4.9%까지 낮아졌으며, 취업자도 11월(-1.5%)보다 12월(-1.2%)의 감소폭이 줄어드는 등 개선 추세를 보임.
 - 한편, 고용시장의 선행지표격인 시간외 작업시간은 그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빠르게 둔화됨에 따라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짐.
 - 대내외 주요 연구기관이 금년 2월에 발표한 2010년 실업률 전망은 5.1%로서 작년 12월에 발표한 전망(5.5%) 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물가는 작년 중반 -2%대를 시현하는 등 디플레이션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11월부터는 하락세가 축소되는 모습임.
 - 소비자물가는 작년 7~10월 중 평균 -2.3%의 디플레이션 상황을 보여주었으나, 최근 소비자물가의 하락폭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금년 1월에는 -1.3%를 시현함.
 - 그러나 근원소비자물가는 수요부족 등으로 인해 2009년 연평균 0.7% 하락하였고, 최근 3개월에는 -1.1%로 하락세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내수부문〉

- 소매판매액이 금년 1월에 증가세로 전환되고, 소비자신뢰지수도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부문의 실물지표와 체감지수가 모두 개선되는 모습임.
 - 소매판매액의 최근 3개월 평균 증가율은 0.4%로서 2009년 연평균(-2.3%) 증가율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신뢰지수는 여전히 경기확대기준인 50을 밑돌고 있지만 최근의 실업률 둔화와 소매판매의 호조에 힘입어 금년 1월에는 39.0까지 상승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짐.
- 투자부문은 그동안 극심한 침체를 보였던 민간기계수주가 최근 들어 감소폭이 크게

완화되고 있고, 주택착공 역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회복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임.

- 기업투자의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는 작년 연평균 증가율이 -26.9%를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었으나, 12월부터 감소세가 크게 축소되기 시작하여 금년 1월에는 -1.1%까지 축소됨.
- 작년 8월(68만호)을 저점으로 하여 상승세를 유지해 온 주택착공은 금년 1월에 86만호가 착공됨으로써 주택투자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상황임.

<생산부문>

- 광공업생산 및 가동률은 그간 재고조정 등으로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여 왔으며, 최근 재고/출하액 비율의 하락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계속 낮아지고 있어 향후 생산부문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광공업생산지수 및 가동율의 최근 3개월 평균은 각각 89.9와 85.0을 기록하여 작년 연평균 80.6과 74.1을 크게 상회하는 등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남.
- 광공업생산 재고/출하율은 작년 6월부터 크게 낮아지면서 재고조정을 위한 생산부문의 확대가 촉진되었고, 최근 재고/출하액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 생산부문의 증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라. 중국경제

중국은 내수 확대와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4/4분기 실질 GDP가 10.7% 증가하면서 증가세가 가속되었고, 2009년 실질 GDP는 8.7%에 도달함. 중국정부가 목표한 8%의 성장이 달성되었으며, 수출의 회복과 내수의 견조한 성장으로 인해 2010년에는 9%를 상회하는 성장이 전망됨.

<최근 동향 및 전망>

- 4/4분기에는 투자부문의 견조한 회복세, 연평균을 상회하는 소비의 증가, 대외부문의 활력 회복으로 인해 실질 GDP는 전분기대비 10.7% 증가하여 6분기 만에 처음으로 10%대의 성장세로 회복되는 모습임.
 - 소비는 4/4분기에 연평균 증가를 상회하고, 투자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함으로써 성장에 대한 내수의 기여도가 크게 높아짐.
 - 반면, 감소세를 지속하던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 등으로 4/4분기에 0.9%의 증가세를 시현하였고, 수입도 내수확대 등으로 대폭 증가(25.4%) 함으로써 대외부문도 활력을 회복함.
- 중국사회과학연구소는⁷⁾ 경기진작과 유동성완화가 소비부문의 확대를 가져오고 투자의 견조세가 유지되며, 대외여건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9%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 금년의 투자는 작년 평균보다는 다소 둔화되겠지만, 20%대 중반의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소비도 18% 수준을 보이며, 수출과 수입은 각각 17%와 18%의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 IMF⁸⁾가 1월에 발표한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작년 11월의 전망치보다 1.0%p 상향 조정되어 전망(10.0%)되었는데, 이는 OECD⁹⁾의 두 자릿수의 성장(10.2%)과 유사한 전망임.

7)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2010 Bluebook of China's Economy, 2010.2.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2010.1.26.

9) OECD, Economic Outlook No.86, 2009.11.19.

<표 7>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

	2009	2009				2009				2010	
	연간	1/4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실질 GDP	8.7	6.2	7.9	9.1	10.7	-	-	-	-	-	-
고정자산투자 ¹⁾	30.5	28.6	33.6	33.3	30.5	33.3	33.1	32.1	30.5	26.6 ²⁾	
소매판매	15.5	14.9	15.0	15.4	16.5	15.5	16.2	15.8	17.5	17.9 ²⁾	
수출	-15.9	-19.7	-23.5	-20.5	0.9	-15.2	-13.8	-1.2	17.7	21.0	45.7
수입	-11.3	-30.8	-20.5	-11.8	25.4	-3.5	-6.4	26.7	55.9	85.5	44.7
산업생산	11.0	5.1	9.0	12.3	17.9	13.9	16.1	19.2	18.5	12.8 ²⁾	
구매자관리지수	53.0	48.9	53.3	53.9	55.7	54.3	55.2	55.2	56.6	55.8	52.0
소비자물가	-0.7	-0.6	-1.5	-1.3	0.7	-0.8	-0.5	0.6	1.9	1.5	-
생산자물가	-5.4	-4.6	-7.2	-7.7	-2.1	-7.0	-5.8	-2.1	1.7	4.3	-

주 : 1) 전년동기 누계 대비, 도시지역 기준 2) 춘절로 인해 1~2월이 합해져서 발표됨.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물가>

- 소비자물가는 내수확대가 가속되면서 작년 11월부터 식료품가격, 주거비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로 빠르게 전환됨.
 - 최근의 소비자물가는 작년 11월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12월에는 1.9%까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금년 1월에는 상승폭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임.
 - 금년 1월의 소비자물가는 식료품가격(3.2%)과 주거비(2.5%)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 작년 12월에 비해서는 식료품가격이 둔화된 반면 주거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경기확대와 가계대출 증가에 힘입어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주거비용 상승을 초래함.
 - 금년 1~2월 중 부동산가격은 전년동기대비 10.7% 상승하여 2008년 3월 이후 최대 상승세로 기록되었는데 특히, 신규주택가격은 급등(13.0%)한 것으로 나타남.
 - 낮은 실질금리와 연간 목표치(18.9%)를 상회하는 가계대출 증가(27.2%)는 부동산시장의 거래를 촉진시키는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남.

- World Bank¹⁰⁾는 확장적 통화정책의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 기대심리의 증대, 식료품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금년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World Bank가 작년 11월에 전망한 금년 소비자물가는 2.0%인 것에 반해 금년 3월에 발표된 전망치는 3.7%로서 물가상승폭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수정 전망함.
 - 한편, 근원소비자물가는 단위 노동비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함.

<내수부문>

- 소매판매의 상승폭은 금년 초반에 다소 둔화되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진작에 의해 최근 확대되는 추세로 전환됨.
 - 소매판매는 금년 1~2월의 평균 증가율이 17.9%로서 작년 연평균(15.5%)을 크게 상회하는데 이는 정부의 이전소득 증가, 경차 소비세 인하, 농촌지역 대상 전기 제품 소비 보조금 지급 등 소비진작책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
- 고정자산투자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부주도형 인프라투자 확대에 힘입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민간주도형으로 투자가 전환되면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임.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작년 2/4~3/4분기에 33.5%인 것에 반해 금년 1~2월에는 26.6%로 둔화되는 추세임.
 - 고정자산투자 중 정부가 소유하거나 주도하는 투자는 누적기준으로 볼 때 작년 2/4분기 41.4%→ 3/4분기 38.8%→ 4/4분기 35.2%로 크게 둔화되는 상황임.
 - 고정자산투자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의 보증하에 은행들이 총 재정의 2/3(9조6천억 위안)를 조달하였는데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정부주도형 투자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경기회복과 유동성증가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주택투자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임.

10) World Bank, China Quarterly Update, 2010. 3.

- 고정자산투자 중 주택투자는 누적기준으로 볼 때 작년 1/4분기 6.2%→ 2/4분기 10.1%→ 3/4분기 15.4%→ 4/4분기 16.1%로 크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생산부문>

- 산업생산은 작년 8월에 금융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이후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소 둔화되는 추세를 보임.
 - 산업생산은 작년 11월에 19.2%까지 상승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점에 도달하였으나 12월에는 18.5%로 둔화되었고, 금년 2월에는 12.8%로 진정되는 모습임.
- 제조업구매자관리지수(PMI¹¹⁾)는 산업생산과 신규주문의 호조에 힘입어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산업생산이 둔화되면서 다소 진정되는 추세임.
 - PMI는 작년 12월에 56.6을 기록하여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금년 들어 춘절로 인한 계절적인 요인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2월에는 52.0까지 낮아짐.
 - 금년 2월의 PMI는 전 부문이 위축되었는데, 특히 생산이 큰 폭(1월 60.5→ 2월 54.3)으로 하락하였고, 신규주문 역시 하락(1월 59.9→ 2월 53.7)한 것으로 나타남.

11)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25%), 신규주문(30%), 취업(20%), 납품업체 배송(15%), 재고(10%)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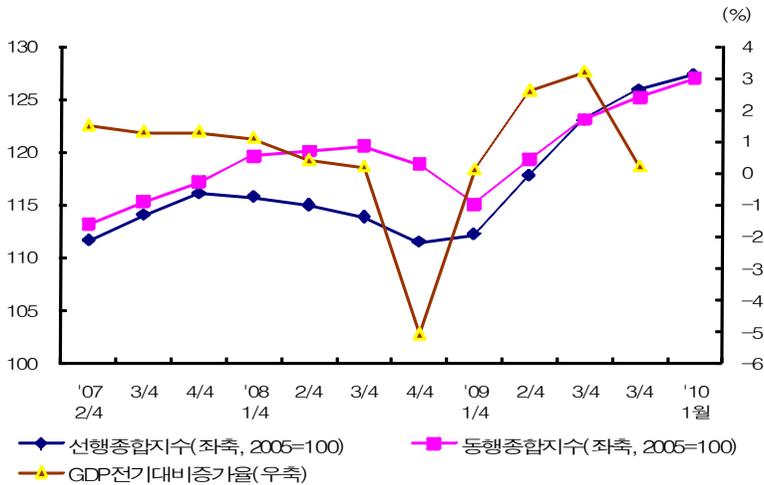
2. 국내경제

<성장 및 내수>

2009년 4/4분기 들어 경기회복과 기저효과에 의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시현함에 따라 실질GDP가 전년동기대비로 대폭 증가함. 더욱이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경기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음.

- 2009년 4/4분기 실질 GDP는 국내외 경기의 전반적인 회복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6.0%(계절조정 전기비 0.2%)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9년 연간 성장률이 0.2%의 증가세를 시현함.
- 4/4분기 민간소비는 정부 세제지원에 따른 승용차 소비지출 증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증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8%(계절조정 전기비 0.4%) 증가함.

<그림 9> GDP와 경기지수 추이



주 : 경기지수 분기증가율은 전월대비 증가율 평균임.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설비투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인한 투자심리 회복과 기저효과로 운수장비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3.3%(계절조정 전기비 5.3%)가 증가함.
- 건설투자는 건물건설부문 부진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설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기저효과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였으나, 계절조정 전기비로는 0.1% 감소함.

<표 8> 실질 GDP와 수요 부문별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CY2008			C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실질 GDP	3.3 (-0.1)	-3.3 (-4.5)	2.3	-4.3 (0.2)	-2.2 (2.4)	1.0 (3.2)	6.0 (0.2)	0.2
- 민간소비	1.8	-3.6	1.3	-4.4	-1.0	0.7	5.8	0.2
- 설비투자	5.3	-13.3	-1.0	-23.1	-17.3	-7.0	13.3	-9.1
- 건설투자	0.4	-7.7	-2.8	2.8	5.1	4.4	5.0	4.4
- 재화수출	9.2	-11.3	4.6	-13.5	-3.2	2.3	15.0	0.0
- 재화수입	11.0	-12.7	4.5	-18.5	-13.8	-6.7	8.9	-7.9
국내수요	3.2 (0.3)	-5.3 (-7.1)	1.5	-8.1 (-1.5)	-7.2 (1.9)	-3.0 (3.9)	5.1 (0.7)	-3.3

주 : 1) ()는 계절조정이 반영된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F.O.B.(본선인도가격) 기준

3) 국내수요=민간소비+정부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무형고정투자+재고투자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4/4분기 재화수출과 수입은 기저효과에 따라 각각 전년동기대비 15.0%, 8.97% 증가하였으나, 계절조정 전기비로는 1.5%, 1.3% 감소함.
 - 계절조정 전기비 재화수출은 선박, 영상·음향·통신기기 등에서 부진하였고, 재화수입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 등에서 감소세를 시현함.
-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는 지난 4/4분기 및 금년 1월에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회복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음.

- 경기선행지수가 4/4분기와 금년 1월 각각 125.9, 127.4를 기록함에 따라 꾸준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으나, 지난 3/4분기 이후 그 증가폭은 점차 완화된 모습을 보임.
- 2009년 4/4분기 소비재 판매액 지수는 승용차 판매 급증 등에 따른 내구재 판매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10.8% 증가를 시현함.
 - 4/4분기 내구재 판매액 지수는 승용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3.9% 증가하였고, 그 증가세는 금년 1월에도 지속됨.
 - 지난해 말까지 이어진 정부의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으로 인해 4/4분기 들어 대기수요가 몰리면서 승용차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76.9%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록함.
 - 의복 및 신발 등 준내구재 판매는 연말특수와 기저효과로 4/4분기 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3.4%로 증가함.
 - 차량연료 등의 비내구재 판매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함.

<표 9> 소비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C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p	연간 ^p	1월 ^p
소비재판매	1.4	-4.2	1.1	-4.7	1.5	2.8	10.8	2.6	6.9
- 내구재	-0.1	-9.6	1.6	-11.9	5.7	7.9	33.9	8.1	39.8
승용차	-6.2	-21.0	-3.5	-20.6	20.1	24.1	76.9	21.8	73.0
- 준내구재	0.3	-10.7	-3.0	-1.5	-0.6	-0.7	3.4	0.3	5.2
- 비내구재	1.5	0.2	1.4	-1.4	0.5	1.9	4.1	1.2	-5.2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4/4분기 설비투자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으로 지난 4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감소세에서 벗어남.
 -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에 대한 투자가 4분기 연속 감소세에 벗어나 전년동기대비 8.8% 증가함에 따라 투자심리 회복세가 시현됨.

<표 10> 투자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CY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P	연간 ^P	1월 ^P
설비투자	4.3	-14.0	-2.0	-23.5	-15.9	-7.4	12.9	-8.9	--
- 기계류	3.8	-12.0	-4.2	-22.1	-18.9	-17.0	8.8	-12.9	15.1
- 운송장비	7.2	-8.7	2.1	0.1	11.8	20.0	15.5	12.0	41.7
- 기계수주	-16.3	-48.3	-11.8	-35.5	-17.7	3.4	20.0	-11.8	11.3
건설투자	0.2	-5.6	-2.1	1.6	3.7	2.7	3.9	3.1	--
- 건설기성	10.9	-1.9	4.9	4.3	6.4	-1.2	3.7	3.3	8.9
건축	9.2	-10.4	2.0	-7.0	-4.8	-7.6	-0.5	-4.9	8.6
토목	14.1	13.6	10.5	25.7	27.6	11.2	9.7	17.6	9.2
- 국내건설수주	-17.0	-6.3	-7.6	-12.0	-1.1	7.6	11.6	3.0	17.1
건축	-31.3	-25.6	-15.4	-39.4	-47.2	5.6	17.0	-16.0	46.3
토목	21.8	51.9	13.5	77.1	140.9	10.6	3.7	41.9	-21.1

주 : p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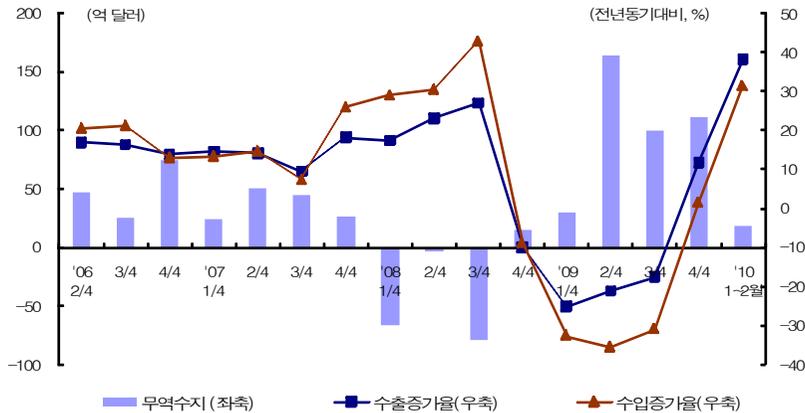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승용차 및 트럭 등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5.5% 증가하였고, 금년 1월 들어서도 41.7% 증가함.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전자 및 영상음향통신(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및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등에서 수주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4/4분기 증가율이 20.0%를 기록하였고, 금년 1월에도 11.3%가 증가함.
- 4/4분기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의 실적부진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의 공사실적 호조가 이어지면서 증가세가 지속됨.
 - 토목건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SOC 투자로 9.7% 증가한 반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건축공사는 0.5% 감소하여 건설기성액이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함.
 - 국내건설경기의 선행지표인 국내건설수주는 4/4분기 동안 공공 및 민간부문 모두 공사발주량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1.6% 증가함.
 - 토목건설 수주는 전년동기대비 3.7% 증가에 그쳐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감소한 반면, 건축공사 수주는 17.0% 증가로 실적부진이 다소 개선되고 있음.
 - 2010년 정부 SOC 예산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2009년 조기발주 물량과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금년 1월 토목건설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21.1% 감소함.

<대외거래>

- 2009년 4/4분기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7%나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1.4% 증가에 그쳐 무역수지 흑자가 111.2억 달러에 이르렀고, 2009년 전체로는 수입 감소(25.8%)가 수출 감소(13.9%)의 거의 두 배에 달해 404.5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2009년 수출은 선박(4.6%), 액정디바이스(28.4%)에서 호조세를, 자동차(-27.5%), 반도체(-5.3%), 석유제품(-38.9%), 화공품(-13.3%), 철강제품(-22.9%) 등에서는 실적부진을 나타냄.
 - 2009년 수입은 유가하락 및 내수부진으로 원자재(-31.5%), 자본재(-15.4%), 소비재(-18.4%) 모두에서 감소세를 시현함.
- 2010년 1~2월(1.1~2.20) 동안 수출은 38.1%, 수입은 31.4%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18.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함.
 - 수출은 석유제품(41.9%), 화공품(55.8%), 철강제품(11.4%), 자동차(49.4%), 자동차부품(126.4%), 반도체(115.2%), 액정디바이스(85.5%) 등에서 증가한 반면, 선박(-19.2%)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한 신조선 발주 감소로 국내 수주량도 부진한 실적을 보임.
 - 수입에서 원유(48.9%)·석유제품(140.3%) 수입 증가로 원자재 30.9%, 기계류(37.2%)·산업용전자(33.7%)·반도체(29.4%) 수입 증가로 자본재 32.1%, 소비재 수입이 32.3% 증가함.
- 지역별로는 2010년 1~2월(1.1~2.20) 동안 대선진국 및 대개도국 수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대개도국 수출이 현저한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수입도 대선진국 및 대개도국 모두에서 증가함.
 - 수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세를 시현하였는데, 특히 대중국 수출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70.3%), ASEAN(49.2%), 중남미(38.8%), 일본(22.3%), 미국(15.3%), EU(4.9%), 중동(0.8%)에서 수출이 증가한 반면, 대양주(-16.6%)에서는 감소함.
 - 수입은 미국(62.5%), 일본(31.9%), ASEAN(28.4%), 중국(27.8%), EU(25.8%), 중동(25.6%), 중남미(11.0%)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가한 반면, 대양주(-4.4%)에서는 감소함.

<그림 10> 대외거래 지표 추이



자료 : 관세청(통관기준)

<산업생산>

- 4/4분기 산업 생산은 전반적인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가와 기저효과를 반영하여 제조업은 ICT를 중심으로 대폭적 증가세를 시현하였고, 서비스업도 부동산 및 임대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광공업 생산은 지난 4/4분기 중 ICT생산의 대폭적인 증가(전년동기대비 46.4%)와 중화학공업의 호조세(20.0%)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하였고, 금년 1월에도 전년동월대비 36.9%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서비스업 생산도 부동산 및 임대업의 대폭적인 증가(21.6%)와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견조한 증가세(5.4%) 시현 등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6% 증가하였고, 금년 1월 중에는 운수업 생산의 현저한 증가(11.6%), 부동산 및 임대업의 증가세 지속 등으로 서비스업 생산이 4.6%나 증가함.

<표 11>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CY 2010
	3/4	4/4	연간	1/4	2/4	3/4	4/4 ^P	연간 ^P	1월 ^P
광공업	5.9	-10.9	3.4	-15.7	-6.1	4.3	16.2	-0.7	36.9
- 제조업	6.0	-11.7	3.4	-16.5	-6.6	4.4	16.8	-0.9	38.9
- 중화학	7.1	-12.4	4.4	-17.2	-6.2	5.7	20.0	0.1	43.5
- 경공업	0.9	-8.0	-1.6	-13.2	-8.8	-2.4	1.7	-5.7	17.7
- ICT	10.0	-24.5	9.1	-19.5	-0.5	13.2	46.4	7.8	63.9
서비스업	3.4	0.0	3.6	-0.3	2.4	1.9	3.6	2.0	4.6
- 도매 및 소매업	3.4	-4.7	1.3	-4.8	-2.2	0.3	5.4	-0.4	5.8
- 운수업	4.4	-3.2	4.3	-12.7	-10.0	-4.8	1.4	-6.6	11.6
- 숙박 및 음식점업	1.7	-3.0	0.7	-2.6	-0.6	-2.5	-0.2	-1.5	3.2
- 부동산 및 임대업	-8.4	-7.5	-2.1	-4.2	2.2	6.7	21.6	5.3	8.6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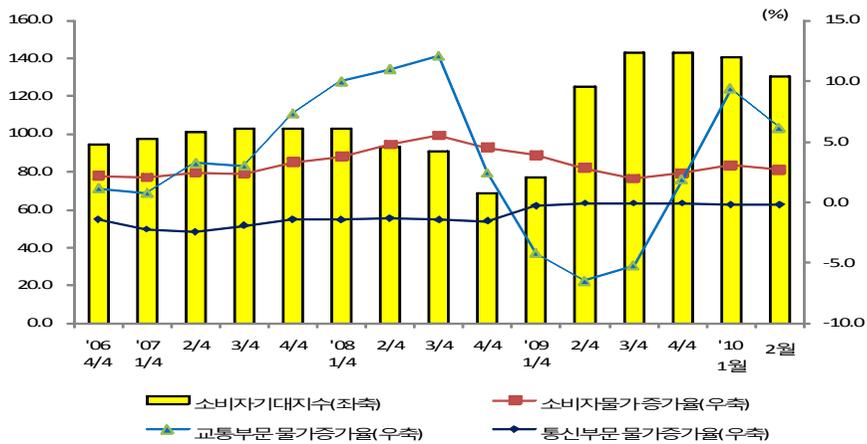
<물가 및 고용>

4/4분기 중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증대에도 불구하고 통신물가 등의 하락세에 의해 2%대 안정세를 유지하였고, 고용시장은 그동안의 일자리 감소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는 있으나 경기회복에 비해서는 고용여건의 개선이 미흡한 상황임. 한편, 4/4분기 중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은 모두 증가한 가운데 소비지출 증가가 가계소득 증가를 상회함에 따라 가계흑자는 감소함.

- 소비자물가는 4/4분기 들어 교통·주거 및 수도광열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통신물가의 하락으로 3/4분기보다 0.4%p 높아진 2.4% 상승에 그쳐 안정세를 유지함.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3.5%), 의복 및 신발(5.8%), 주거 및 수도광열(1.1%), 가구 집기 및 가사용품(2.5%), 교통(1.9%) 물가는 상승하였고, 통신(-0.1%)부문 물가는 하락함.
- 소비자기대지수는 경기회복세에 따라 3/4 ~ 4/4분기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에는 감소세를 나타내어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위축됨.

- 2009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소비자 기대지수도 3/4 및 4/4분기에 142.9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의 경기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나타났으나, 금년 1~2월 들어서는 점차 감소하여 각각 140.9, 130.3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그림 11> 소비자물가와 소비심리 추이¹²⁾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및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

- 4/4분기 고용시장에서 취업자 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져서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고용시장 개선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음.
- 4/4분기 전체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정체한 상태인 반면, 청년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 고용률은 지난 2/4분기 이후 두 분기 연속 59%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4/4분기 들어 58%대로 다소 하락함.

12) 통계청 「소비자기대 및 평가지수」의 2008년 8월 소비자기대지수 91.2를 기준으로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향후경기전망 CSI의 8월치 77.0을 91.2가 되도록 환산한 다음 2008년 9월부터는 향후경기전망 CSI를 소비자기대지수의 대응치로 사용하여 분기별로 단순 평균함.

<표 12> 고용 관련 지표의 증가율

(전년동기(월)대비, %)

	CY2008		CY2009					CY2010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총취업자	0.2	0.6	-0.6	-0.6	0.0	0.0	-0.3	0.0	0.5
- 청년취업자	-4.0	-2.8	-5.1	-2.4	-3.0	-1.9	-3.1	0.3	-0.4
고용률	59.4	59.5	57.4	59.3	59.1	58.7	58.6	56.6	56.6
실업률	3.1	3.2	3.8	3.8	3.6	3.3	3.6	5.0	4.9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0.5	-2.1	1.0	-1.3	-1.4	-6.9	-2.2	-12.4	-10.7
광공업	-2.5	-1.1	-4.1	-3.8	-3.6	-1.2	-3.2	0.8	1.2
- 제조업	-2.6	-1.3	-4.1	-3.8	-3.6	-1.2	-3.2	0.8	1.2
SOC 및 기타서비스업	0.8	1.3	0.0	0.2	0.9	0.9	0.5	0.8	1.3
- 건설업	-2.2	-2.0	-2.5	-6.0	-5.7	-5.9	-5.0	-4.8	-5.2
- 도소매음식숙박	-1.1	-0.8	-2.0	-2.4	-2.8	-2.6	-2.4	-0.9	-0.5
- 전기,운수,통신,금융	-1.9	0.5	-2.6	-1.8	-0.9	1.8	-0.9	3.3	4.8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4.0	4.1	3.2	4.5	5.9	4.6	4.6	2.3	2.8

주: 1) 실업률은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고용률은 '취업자/15세이상인구×100'로 정의됨.

2) 청년은 15~29세 기준임.

3) SOC는 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을 포함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 실업률은 지난 1/4분기 3.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개선되어 4/4분기에 3.3%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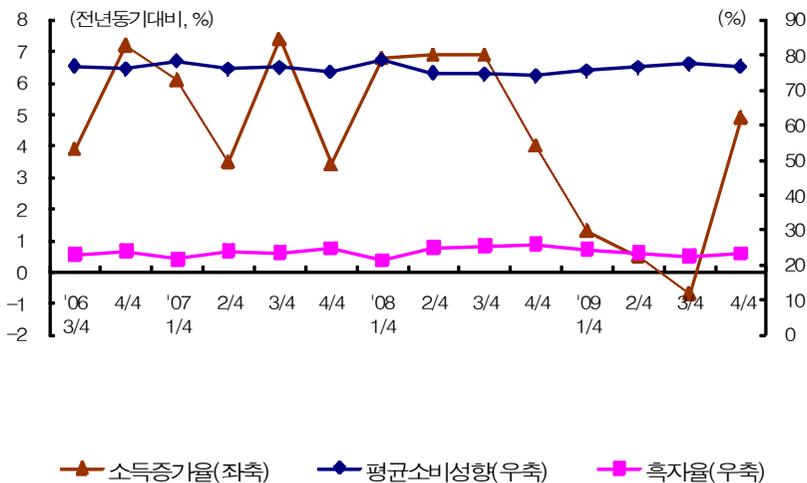
- 금년 1~2월 실업률은 각각 5.0%, 4.9%로 급상승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공공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실업자로 분류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구직활동이 활발해진 것이 그 원인으로 풀이됨.

- 청년실업률은 4/4분기 들어 7.6%를 기록함에 따라 지난 3분기 내내 8%대의 높은 실업률에 비해 다소 진정되었으나, 금년 1~2월 들어 취업시즌을 맞이한 청년층의 구직활동으로 청년실업률은 각각 9.3%, 10.0%로 급상승함.

□ 4/4분기 산업별 취업자는 농림어업 및 광공업 부문에서 모두 전년동기대비 감소세가 나타난 가운데 농림어업 부문의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SOC 및 기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함.

- 농림어업 부문에서는 경기회복세와 맞물려 귀농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6.9% 감소하여 그 감소폭이 점차 커지고 있고, 금년 1~2월 들어서도 각각 12.4%, 10.7% 감소함.
 -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2% 감소하였는데, 그 감소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금년 1~2월 들어서는 취업자 수가 증가함.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 부문 취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SOC 및 기타서비스업 부문 취업자는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함.
 - 그러나 경기상황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는 4/4분기에 이어 금년 1~2월까지도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 고용시장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태임.
- 2009년 4/4분기 가계동향은 경기회복세에 따라 가계소득 및 소비지출 모두 증가한 가운데 흑자액은 감소함.

<그림 12> 도시가계 소득 및 흑자율 추이



주 : 흑자율 = 1 - 평균소비성향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

- 4/4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54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고,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소득도 2.4% 증가에 그침.
 - 2008년과는 달리 추석이 10월에 있음으로 인해 4/4분기 비경상소득 증가가 전체 소득증가를 견인함.
-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21만 9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하였고, 실질소비지출도 5.5% 증가함.
 - 소비지출은 교통(27.3%), 가정용품·가사서비스(16.0%), 의류·신발(11.8%), 보건(11.4%), 오락·문화(7.4%), 교육(5.9%), 주거 및 수도광열(4.6%) 등에서 증가하였고, 주류·담배(-1.2%),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2%) 등에서는 감소함.
 - 도시가스비 상승 및 전력사용량 증가로 주거 및 수도광열지출, 금년 4월 전력 소비량이 많은 가전제품에 대한 5% 개별소비세 부과예정으로 인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지출,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보건지출, 정부 세제지원으로 인한 자동차 구입 증가로 교통지출이 증가함.
-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89만 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5%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 증가가 이를 상회함에 따라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의 차이인 흑자액은 전년동기대비 4.0% 감소하여 흑자율은 23.3%를 기록함.
 - 반면, 처분가능소득에 대한 소비지출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전년동기대비 2.1%p(74.6%→76.7%) 증가함.

3. 금융경제

<금리>

기준금리는 2009년 2월 이후 2.0%로 유지되고 있으며 작년 4/4분기 중 급등하였던 CD(91일)금리는 소폭 상승 후 안정세를 보이다 금년 3월 초 하락세로 돌아섰고, 국고채(3년)금리와 회사채금리(AA-) 또한 금년 1/4분기 동안에는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임.

- 기준금리는 1년 이상 2.0%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연동된 콜금리도 대체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CD(91일)금리는 금년 1/4분기 초 소폭 상승 후 안정세를 보임.
 - 미국, 영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는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 기준금리도 작년 2월부터 금년 3월까지 1년 이상 2.0%로 유지되고 있음.
 - 작년 4/4분기 말 2.86%였던 CD(91일)금리는 금년 초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로 소폭 상승 후 2.88%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다 3월 초 하락세로 전환되어 3월 30일 현재 2.78%임.
- 국고채(3년)금리는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약화 등으로 인하여 금년 1/4분기 동안 대체로 하락세를 보임.
 -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국고채금리는 1월 초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보임.
 - 그러나 1월 말 미국의 대형은행 규제안 발표와 그리스 재정위기로부터 시작된 유럽 금융시장 불안 등이 경기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고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임.
 - 작년 말 4.41%였던 국고채금리가 금년3월 29일 현재 3.92%까지 하락하면서, 작년 말 240bps였던 국고채금리와 콜금리 간 차이도 하락하여 3월 29일 현재 193bps임.
 - 통상적으로 장단기금리차는 미래의 경기나 금리에 대한 기대, 장기간 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써 감수해야하는 금리변동 위험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경기선행지수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임.
 - 즉, 향후 단기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 장기금리 수준이 단기금리보다

경제금융 동향

높게 되고, 반대의 경우 경기침체로 인하여 향후 단기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장기금리 수준이 단기금리보다 낮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국고채금리와 콜금리 간 금리차가 하락한다는 것은 시장이 향후 경기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냄.

□ 우량 등급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도 국고채금리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 금년 1/4분기 동안 하락세를 보였으며, 비우량 등급 회사채(3년 만기, BBB-)금리도 대체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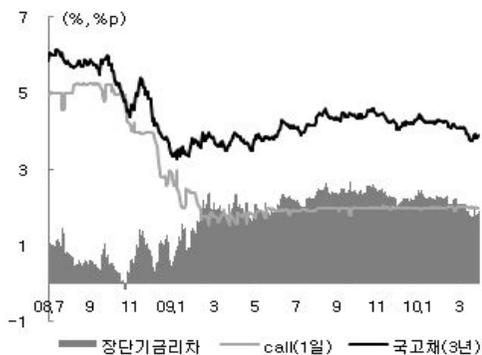
○ 작년 말 605bps였던 AA-등급과 BBB-등급 간 회사채금리 차이는 금년 1/4분기 동안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3월 30일 현재 604bps임.

○ 등급 간 회사채금리 차이는 632bps까지 상승했던 작년 2/4분기와 비교하면 다소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자금조달에 있어서 회사등급 간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10년 1/4분기 회사채(3년 만기, AA-)금리와 국고채(3년)금리 간 신용스프레드는 107~114bps 수준을 유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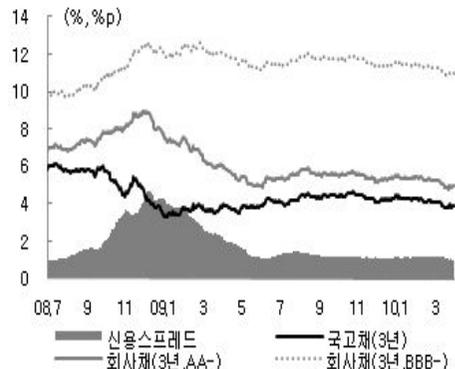
○ 작년 4/4분기 109~115bps 수준이었던 국고채금리와 AA-등급 회사채금리 간의 차이는 두 금리가 유사한 추이를 보이면서 금년 1/4분기 동안 110bps 전후 수준에 머물러 신용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상당히 안정되었음을 나타냄.

<그림 13> 장단기 금리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4> 신용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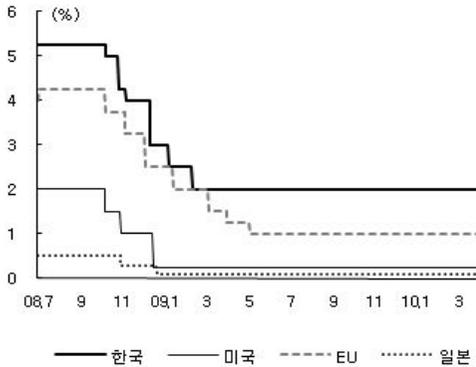


주 :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3년, AA-)금리와 국고채(3년)금리간의 차이를 말함.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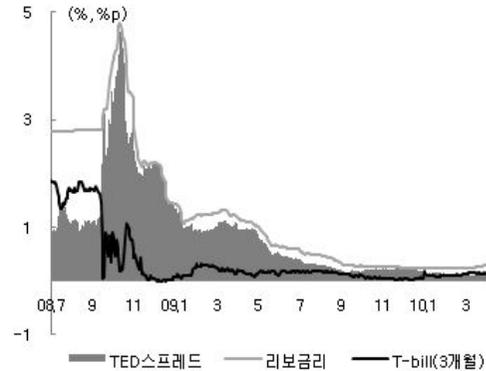
- 작년 4/4분기 20bps 대에서 안정적 추이를 보였던 TED 스프레드¹³⁾도 꾸준히 하향 안정화되다 소폭 상승하여 3월 29일 현재 약 16.4bps 수준임.

<그림 15>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16> TED 스프레드 추이



주 : TED 스프레드는 리보금리(3개월)와 미국국채금리(T-bill, 3개월)금리 간의 차이를 말함.
자료 : Bloomberg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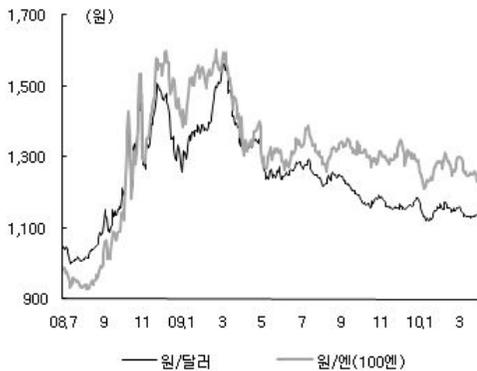
2010년 1/4분기 원/달러 환율은 유럽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후 사태가 수습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같은 기간 원/엔 환율도 원/달러 환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 연초 하락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2010년 1월 중순 이후 그리스 재정위기 등 유럽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로 상승하였다가 불안요소가 안정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2009년 말 1,167.6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여 2010년 1월 12일 달러당 1,119.8원까지 하락함.

13) TED 스프레드는 런던 은행 간 금리인 리보금리와 미국 재무부 채권(T-bill) 금리를 뺀 값으로 국제자금시장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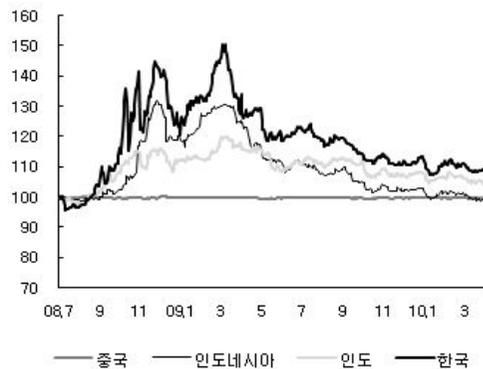
- 그러나 1월 중순 이후 중국정부의 출구전략, 그리스 재정위기와 관련된 유럽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경향으로 인하여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2월 초 달러당 1,172.6원까지 상승함.
 - 이후 원/달러 환율은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 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미국 재할인율 인상,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추가 하향조정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몇 차례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2010년 1/4분기 원/엔 환율은 시장불안 요소들의 영향으로 인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의 변화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원/달러 환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 금년 2월 초 100엔당 1,313.9원까지 상승했던 원/엔 환율은 2월 중순 그리스 지원에 대한 합의로 유럽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진정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원/엔 환율도 하락세로 돌아섬.
 - 그러나 미국 경제지표의 부진과 그리스와 관련된 불안요소가 부각되면서 다시 한차례 상승하였다가 하락하여 3월 30일 현재 원/엔 환율은 100엔당 1,230.9원이며, 이는 100엔당 1,262.8원이었던 작년 말 수준보다 31.9원 하락한 수준임.

<그림 17> 원화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18> 아시아 개도국 환율 지수 추이



주 : 2008년 7월 1일의 달러당 환율을 100으로 하여 지수화함.

자료 : Bloomberg

- 그리스를 포함한 재정위기 국가들에서 비롯된 유럽시장의 불안요소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성향으로 인하여 하락했던 신흥국 통화가치는 사태가 진정되면서 다시 강세로 돌아섬.
- 중국 위안/달러 환율은 금년 2월 중순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직후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시 안정화 됨.
- 인도의 루피/달러, 인도네시아의 루피아/달러 등 신흥국 환율은 연초 하락세를 보였으나, 달러화에 대한 선호 변화에 따라 2월 초순을 정점으로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3월 30일 현재 인도 루피화의 경우 달러당 45.1루피,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경우 달러당 9,090.0루피아임.

<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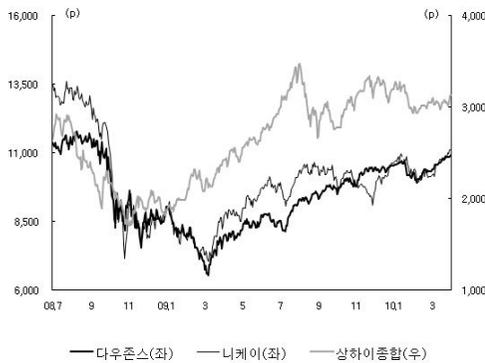
미국 다우존스지수, 일본 니케이지수, 상하이 종합지수는 그리스 재정위기 및 유럽 금융시장 불안요소들의 영향으로 금년 1/4분기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며, 국내 주가지수도 유사한 추이를 보여 2월 초 이후 상승세를 보임.

- 다우존스지수와 니케이지수는 연초 상승세를 보이다 1월 중순부터 하락하였으나 다시 상승하여 작년 말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상하이종합지수는 하락하다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전년 말 수준은 회복하지 못함.
- 작년 말 10,428.1p였던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1월 중순 이후 중국의 긴축정책, 대형은행 규제안 발표, 고용지표 부진, 그리스 재정위기 등의 영향으로 2월 초 9908.4p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불안요인들이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보여 3월 30일 현재 10,907.4p까지 회복함.
- 니케이지수 또한 다우존스지수와 유사한 추이를 보였는데, 그리스 재정위기 등 시장의 불안 심리로 인하여 2월 초 9932.9p까지 하락 후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중국의 지급준비율 추가 인상으로 인하여 2월 중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중국 상하이지수는 2월 초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3월 30일 현재 작년 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3,128.5p까지 회복함.

□ 국내 종합주가지수(KOSPI)는 연초 상승세를 보였으나 경기회복지연에 대한 우려와 그리스 재정위기와 관련된 유럽시장 불안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상황이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나타냄.

- 금년 1월 중순 중국 중앙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대형은행 규제안 발표, 그리스 및 포르투갈을 포함한 유로지역 재정적자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종합주가지수는 2월 8일 1,552.8p까지 하락함.
- 이후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유지, EU 정상회의의 그리스 지원 합의, 미국의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인하여 2월 초 이후 대체로 상승세를 보여 3월 30일 현재 1,700.2p로 작년 말보다 17.4p 상승한 수준임.

<그림 19> 해외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그림 20> 국내 주가지수 추이



자료 : Bloomberg

<자금흐름>

2009년 4/4분기 생존, 생사혼합보험, 퇴직연금에서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 보험권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며, 투신사, 중금사도 전분기에 대비하여 순수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권과 증권사의 순수신은 전분기에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4/4분기 보험권 순수신 규모는 전분기와 비교하여 1조 2,147억원 증가하였으나, 손해보험의 순수신은 전분기대비 약 77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생명보험의 순수신은 생존, 생사혼합보험, 퇴직연금에서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했으며, 사망, 생존보험의 지급보험금이 감소하여 전분기와 대비하여 1조 2,926억원 증가한 8조 4,809억원임.
- 손해보험의 경우, 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포함하는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가 크게 증가하고,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도 증가했으나, 장기손해보험과 화재보험의 사고보험금 증가와 자동차보험 손해액 급증으로 인하여 작년 4/4분기 순수신은 전분기와 대비하여 779억원 감소한 2조 7,772억원으로 집계됨.

<표 13> 금융기관 순수신 증감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CY2008				CY2009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23,583	20,865	-14,426	-4,352	-14,909	29,281	-1,416	12,147
- 생 보	-19,752	14,533	-12,340	-4,342	-10,321	21,486	-1,650	12,926
- 손 보	-3,831	6,332	-2,086	-10	-4,588	7,795	234	-779
은 행	9,228	21,326	-87,115	48,920	-55,887	77,277	64,167	-161,023
- 일 반	-44,093	148,250	-145,756	73,186	-30,842	58,172	36,531	-179,530
- 신 탁	53,321	-126,924	58,641	-24,166	-25,045	19,105	27,636	18,507
증 권	19,789	41,239	-45,641	1,156	78,230	-44,155	-3,121	-78,734
투 신	108,941	-138,816	-406,191	352,172	76,686	-377,027	-167,127	141,605
총 금	20,424	8,467	-98,880	60,172	30,186	-99,222	-11,709	68,914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분기 순수신에서 전분기 순수신을 차감한 수치임.
 2)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 은행권과 증권사의 순수신은 전분기와 비교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신권과 증금사의 경우에는 2009년 4/4분기 순수출을 보였으나 전분기보다는 순수신이 증가하면서 유출 규모가 축소됨.

- 2009년 10월 감소했던 은행권 수신은 정부 여유자금 등이 수시입출식예금으로 유입되고 수신금리 인상에 따라 정기예금이 증가하면서 11월 증가로 전환되었으

나, CD 감소와 정기예금의 감소로 4/4분기 순수신은 전분기에 비해 16조 1,023억원 감소함.

- 증권사의 순수신은 고객예탁금과 RP 부문에서 모두 자금이 유출되어 4/4분기 동안 4억 4,842억원의 순수출을 보였으며, 전분기와 대비하여 순수신이 큰 폭으로 감소함.
- 투신권의 경우 채권형 펀드를 제외한 MMF, 혼합형 펀드, 주식형 펀드 부문에서 자금이 유출되어 14조 750억원의 순수출을 보였으나, 전분기의 순수출보다는 그 규모가 축소됨.
- 작년 4/4분기 증권사의 순수신 규모는 7,191억원의 순수출로 나타났으나, 순수출 규모는 전기의 순수출 폭을 6조 8,914억원만큼 감소시킨 것이며, 이는 같은 기간 순수출을 보였던 발행어음, CMA예탁금 부문에서 각각 1조 490억원과 4,979억원의 순수입 자금이 기인함.

국내보험시장 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9 3/4분기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손해보험 부문에서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던 생명보험 부문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점차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34조 3,721억원을 시현함.

- FY2009 3/4분기 보험산업 전체 수입(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 부문에서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던 생명보험 부문에서의 수요도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6.2% 성장한 34조 3,721억원을 기록함.
- 생명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전분기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되었는데,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3.8% 증가한 22조 3,606억원으로 나타남.
-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의 고성장이 지속되고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시장 규모가 축소되었던 자동차보험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한 12조 115억원을 시현함.

<표 1>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75,168	179,372	223,606
	5.0	2.0	-8.9	-4.5	-2.0	-4.2	-0.3	13.8
손해보험	89,550	91,512	99,218	94,674	374,954	100,038	105,112	120,115
	12.9	12.1	7.6	9.3	10.3	11.7	14.9	21.1
합 계	272,390	271,497	295,683	270,997	1,110,568	275,206	284,484	343,721
	7.5	5.2	-4.0	-0.1	1.8	1.0	4.8	16.2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손해보험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임.

3)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총자산

FY2009 3/4분기말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주식시장 회복 및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진정 등에 따라 일반계정 유가증권의 평가이익이 확대되고 특별계정 자산가치도 증대됨에 따라 전분기대비 2.8% 증가한 444조원으로 성장함.

- FY2009 3/4분기말 보험산업의 총자산은 주가, 금리, 외환 등 투자 여건이 안정된 데 힘입어 전분기대비 2.8% 증대된 444조원으로 나타남¹⁾.
- 생명보험 부문의 총자산은 국공채, 특수채 등 채권 부문의 자산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변액보험 관련 자산가치도 증대됨에 따라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361조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부문의 총자산 역시 전반적인 자산운용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규모 증대 등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4.4% 증가한 83조원을 시현함.

<표 2> 보험산업 총자산

(단위: 조원,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309	314	320	328	328	339	353	361
	1.3	1.5	2.1	2.4	7.5	3.2	4.1	2.5
손해보험	68	69	71	74	74	77	79	83
	3.1	1.5	3.5	3.5	12.1	3.5	3.7	4.4
합계	377	383	392	402	402	415	432	444
	1.6	1.5	2.4	2.6	8.3	3.3	4.0	2.8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 2009년 9월 말 대비 12월 말 주요 지표 변화는 주가지수(KOSPI) 1,673→1,683, 금리(국고채3년) 4.39%→4.41%, 대미환율(증가) 1,165원→1,178원으로 안정적인임.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생명보험 전체>

- FY2009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2조 3,60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8% 성장하여 지난 4분기 연속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됨.
 -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에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존·생사혼합보험에서 큰 폭의 증가, 변액보험에서 증가세 전환으로 FY2008 3/4분기 이후 1년 만에 전년동기대비 7.6%로 플러스 성장함.
 -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보험과 퇴직보험에서 감소하였으나, 퇴직연금에서 수입보험료가 급증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8.0% 성장함.
- FY2009 3/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은 국공채를 중심으로 채권에서 양호한 자산운용 수익을 기록함에 따라 일반계정의 운용자산 및 특별계정 자산 모두가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361조 4,323억원을 기록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76,324	179,372	223,606
	5.0	2.0	-8.9	-4.5	-2.0	-4.2	-0.3	13.8
총 자산	3,093,354	3,138,783	3,205,462	3,283,321	3,283,321	3,388,638	3,527,890	3,614,323
	1.3	1.5	2.1	2.4	7.5	3.2	4.1	2.5

주 : 1) 수입보험료는 분기별 통계로서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총자산의 증가율은 전분기대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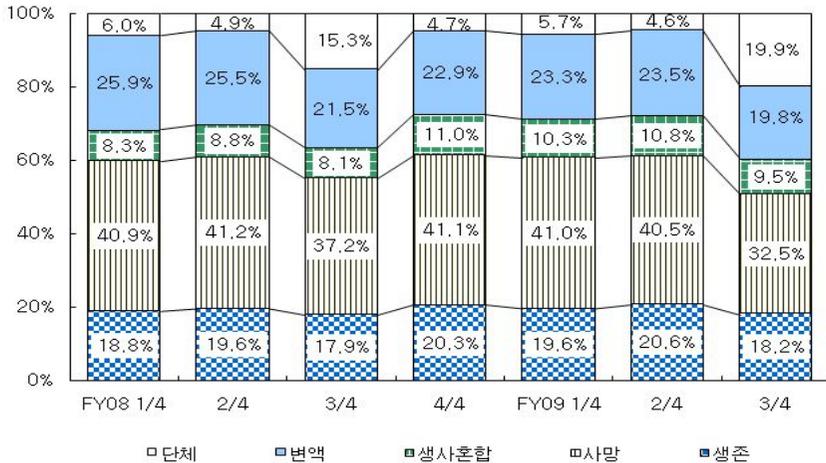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보험종목별 수입보험료>

- FY2009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생존·생사혼합·단체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 종목의 비중이 높아짐.

- 생존·생사혼합보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함에 따라 그 비중도 0.3%p, 1.4%p 확대되어 각각 18.2%, 9.5%로 나타남.
- 특히, 단체보험의 경우는 퇴직연금 가입 급증에 따른 수입보험료 증가세로 그 비중이 전년대비 4.6%p 확대되어 19.9%를 차지함.
- 반면, 사망보험의 비중은 수입보험료가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4.7%p 감소하였고, 변액보험은 3/4분기 들어 수입보험료가 증가하였으나 그 비중은 1.7%p 감소함에 따라 각각 32.5%, 19.8%로 축소됨.

<그림 1>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FY2009 3/4분기 개인보험 수입보험료는 사망보험이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보험수요 증가로 변액보험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생존·생사혼합보험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플러스 성장을 시현함.
- 사망보험의 경우 상품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 초회보험료는 증가하였으나, 계속 보험료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함.
- 생존보험의 경우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에 따른 연금보험료 인상조치가 생보사별로 단계적(2009년 10월~12월)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료 인상 전 가입이 증대되어 수입보험료가 16.2% 증가한 4조 807억원을 기록함.

- 생사혼합보험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저축상품에 비해 고금리를 제시하는 저축성 보험상품이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3/4분기 수입보험료가 33.9% 증가하여 2조 1,248억원에 이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34,444	35,313	35,115	35,842	140,714	34,389	37,016	40,807
	성장률	-0.5	3.8	-1.1	-3.8	-0.5	-0.2	4.8	16.2
	구성비	18.8	19.6	17.9	20.3	19.1	19.6	20.6	18.2
사망	보험료	74,786	74,189	73,160	72,397	294,531	71,889	72,647	72,632
	성장률	1.4	0.6	-2.7	-3.5	-1.1	-3.9	-2.1	-0.7
	구성비	40.9	41.2	37.2	41.1	40.0	41.0	40.5	32.5
생사 혼합	보험료	15,267	15,762	15,870	19,467	66,365	18,096	19,321	21,248
	성장률	-9.3	-3.1	-5.3	20.2	0.5	18.5	22.6	33.9
	구성비	8.3	8.8	8.1	11.0	9.0	10.3	10.8	9.5
변액 보험	보험료	47,399	45,977	42,221	40,318	175,916	40,885	42,100	44,375
	성장률	27.8	5.7	-12.3	-10.8	1.2	-13.7	-8.4	5.1
	구성비	25.9	25.5	21.5	22.9	23.9	23.3	23.5	19.8
개인 계	보험료	171,896	171,241	166,366	168,024	677,526	165,260	171,085	179,061
	성장률	5.9	2.2	-5.2	-3.3	-0.2	-3.9	-0.1	7.6
	구성비	94.0	95.1	84.7	95.3	92.1	94.3	95.4	80.1
단체	보험료	10,945	8,744	30,099	8,299	58,087	9,908	8,287	44,544
	성장률	-8.2	-1.2	-25.0	-24.6	-19.2	-9.5	-5.2	48.0
	구성비	6.0	4.9	15.3	4.7	7.9	5.7	4.6	19.9
합계	보험료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75,168	179,372	223,606
	성장률	5.0	2.0	-8.9	-4.5	-2.0	-4.2	-0.3	13.8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변액보험의 경우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손실회복에 따른 해지 증가로 인한 계속보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가입 증가에 따른 초회보험료 급증으로 전체 수입보험료는 5.1% 증가한 4조 4,375억원을 기록함.
 - 계속보험료는 변액종신 및 유니버셜을 중심으로 감소한 반면, 초회보험료는 변액종신, 유니버셜, 변액연금 모두에서 증가한 가운데 변액연금의 신규가입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짐.
- FY2009 3/4분기 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일반단체 및 퇴직보험 감소에도 불구하고 퇴직보험에서 이탈된 자금이 퇴직연금으로 유입되면서 초회보험료가 급증하여 전년 동기대비 48.0% 증가함.
 - 일반단체보험의 경우 경기침체 여파로 인한 수요 감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퇴직보험도 2010년 말 폐지를 앞두고 있어 초회 및 계속보험료 모두 감소함.
 - 반면, 퇴직연금의 경우는 지속적인 계속보험료 증가와 함께 퇴직보험에서 이탈한 자금이 신규계약으로 유입됨에 따라 초회보험료 수입도 급증하여 단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를 견인함.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9 3/4분기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은 상위 3사와 국내 중소형사는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외국사는 감소함.
 - 상위 3사의 경우 퇴직연금 부문의 수입보험료 증대에 힘입어 시장점유율이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하여 57.4%를 기록함.
 - 국내 중소형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생사혼합보험의 성장세로 점유율이 0.2%p 증가한 23.4%를 시현함.
 - 국내 중소형사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 중 방카슈랑스 채널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는 수준임.
 - 외국사의 경우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소극적 참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에 따라 점유율이 0.5%p 감소한 19.2%를 나타냄.

□ 허핀달지수는 FY2009 3/4분기 동안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0.0084p 상승한 0.1449를 기록함.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3개사	54.3	53.9	57.1	53.3	54.7(-5.5)	53.6	52.9	57.4
국내 중소형사	23.4	23.5	23.2	25.4	23.8(12.5)	25.0	24.9	23.4
외 국 사	22.3	22.7	19.7	21.3	21.5(-6.8)	21.4	22.2	19.2
허핀달지수	0.1257	0.1242	0.1365	0.1216	0.1271	0.1217	0.1200	0.1449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핀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9년 12월말 알리안츠 등 9개사이며 ING, 카디프는 국내 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 중소형사(10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회사로 함.
 5) 괄호는 연간 수입보험료 성장률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경영수지

<총수익 · 총비용>

□ FY2009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누적(2009.4~12월)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이익과 투자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81.0% 증가한 2조 1,381억원을 기록함.

○ 3/4분기 보험영업수익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보험영업비용은 감소함에 따라 동 분기 중 보험영업이익이 1조 9,678억원으로 늘어나 누적 보험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370.9% 증가한 5조 6,645억원으로 나타남.

- 변액 및 단체보험에서 수입보험료가 성장세로 전환됨과 동시에 생존·생사혼합보험에서도 급증함에 따라 보험영업수익이 증가하였고, 반면 보험영업비용은 사업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정 지급보험금 감소로 인해 감소함.

○ 3/4분기 투자영업수익이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자산처분손실 감소로 투자영업비용도 전분기에 이어 급감함에 따라 투

국내보험시장 동향

자영업이익도 3조 4,115억원으로 증가하여 누적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한 10조 4,135억원을 시현함.

○ 3/4분기 누적 영업외이익은 전년동기대비 0.8% 감소한 1조 9,006억원으로 나타남.

<표 6> 생명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2/4	3/4	4/4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269,260	403,000	541,472	134,024	272,467	416,397
	투자영업	91,747	143,107	193,584	48,008	96,349	139,055
	영업외	14,385	24,500	33,276	8,353	16,410	24,289
	소계	375,392	570,606	768,332	190,386	385,225	579,741
총 비 용	보험영업	247,562	390,971	525,522	116,177	235,500	359,751
	투자영업	31,576	57,118	82,391	14,511	26,329	34,920
	영업외	2,835	5,334	7,439	1,501	2,796	5,283
	소계	281,973	453,423	615,352	132,188	264,624	399,954
수 지 차	보험영업	21,698	12,029	15,949	17,848	36,967	56,645
	투자영업	60,171	85,989	111,193	33,498	70,020	104,135
	영업외	11,550	19,166	25,838	6,852	13,614	19,006
	소계	93,419	117,184	152,980	58,198	120,601	179,787
책임준비금 전입		83,510	107,029	144,221	49,455	100,483	151,863
법인세		2,436	2,545	3,056	1,829	4,527	6,542
당기순이익		7,473	7,610	5,703	6,914	15,592	21,381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보험영업 및 투자영업 실적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보험금 지급률 및 사업비율>

□ FY2009 3/4분기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은 환급금 증가에 따른 지급보험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입보험료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6.2%p 감소한 62.1%를 기록함.

○ 개인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감소하고, 수입보험료가 증가함에 따라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10.6%p 감소한 57.1%로 나타남.

- 사망·생존보험 모두 지급보험금이 감소하여 지급률이 각각 3.9%p, 54.7%p 감소하였는데, 특히 생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증가효과가 커서 보험금 지급률의 감소폭이 큼.
 - 생사혼합·변액보험의 경우 지급보험금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수입보험료 증가폭에 따른 차이로 생사혼합보험 지급률은 12.7%p 감소한 반면, 변액보험 지급률은 9.7%p 증가함.
 - 특히, 변액보험의 경우 금융시장 안정으로 인해 신규가입 증가와 손실회복에 따른 해지 증가가 혼재되어 나타남.
- 단체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급보험금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급률은 전년동기대비 10.7%p 증가한 82.1%를 기록함.

<표 7>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사업비율 및 해지율

(단위: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금 지급률	56.8	62.9	68.3	70.5	64.6	58.0	59.9	62.1
개 인 계	51.1	57.6	67.7	58.9	58.8	51.9	56.0	57.1
- 생 존	66.3	88.5	106.9	78.9	85.2	60.6	56.4	52.2
- 사 망	41.9	47.6	53.3	57.0	49.9	51.7	53.8	49.4
- 생사혼합	122.7	115.7	121.6	78.9	107.9	70.7	76.8	108.9
- 변 액	31.4	30.3	39.7	34.8	33.9	36.5	50.0	49.4
단 체	145.8	166.5	71.4	305.1	133.1	160.7	140.3	82.1
사 업 비 율	19.2	20.1	17.2	15.8	18.1	17.3	17.7	15.2
신 계 약 률	5.9	11.5	17.5	23.9	23.9	5.6	11.6	17.7
해 지 율	3.0	6.1	9.4	12.4	12.4	3.5	6.5	9.0

주 : 1) 보험금 지급률=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실제사업비/수입보험료,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지율=(효력상실액+해지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신계약률과 해지율은 누계치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 FY2009 3/4분기 들어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으로 신계약은 증가하고 해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국내보험시장 동향

- 누적 해지율은 신계약액 증가와 해지액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한 9.0%를 기록하였고, 분기 해지율도 0.7%p 감소한 3.1%를 기록함.

<자산운용>

- FY2009 3/4분기말 기준 생명보험산업의 운용자산 규모는 유가증권 부문에서 자산이 소폭 증가함에 따라 전분기대비 2.5% 증가한 266조 7,329억원을 기록함.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3/4		4/4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4.6	3.8	4.4	3.8	3.5	3.1	3.3	3.0	3.5	2.9
유 가 증 권	57.8	4.5	58.9	4.3	60.8	4.8	61.7	5.0	62.0	5.0
○ 단기매매증권	1.4	-6.2	1.4	-3.5	1.4	7.0	1.2	6.7	1.1	5.9
- 주 식	0.0	-37.7	0.0	-26.2	0.0	63.0	0.0	93.3	0.0	70.2
- 채권 등	0.5	-9.5	0.4	-7.3	0.3	8.9	0.3	6.3	0.3	6.2
- 수익증권	0.8	1.7	1.0	2.3	1.1	4.6	0.8	4.7	0.8	4.4
○ 매도가능증권	45.0	4.5	45.8	4.2	46.5	4.4	47.2	4.7	47.3	4.7
- 주 식	3.9	0.8	4.2	1.9	4.3	0.7	5.3	1.1	5.0	0.9
- 채권 등	37.8	4.7	38.4	4.3	38.8	4.8	38.3	5.1	38.6	5.1
- 수익증권	3.2	8.4	3.3	6.7	3.4	5.0	3.6	5.6	3.8	4.7
○ 만기보유증권	10.5	5.8	10.8	5.5	11.9	4.7	12.5	4.9	12.7	5.2
- 채권 등	10.5	5.8	10.8	5.5	11.9	4.6	12.5	4.9	12.7	5.2
- 수익증권	0.0	-	0.0	-	0.0	-	0.0	-9.9	0.0	-10.9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0.9	6.4	0.9	8.4	0.9	23.6	0.9	19.0	0.9	16.5
대 출 채 권	23.6	8.4	22.9	8.6	22.3	8.2	22.2	8.0	21.9	8.0
부 동 산	3.9	4.3	4.3	4.9	4.2	4.0	4.0	5.5	3.9	4.5
운 용 자 산 계	89.9	5.5	90.5	5.4	90.8	5.5	91.2	5.7	91.3	5.6
비 운 용 자 산	10.1	-3.6	9.5	-4.4	9.2	-0.5	8.8	-0.6	8.7	-0.6
일 반 계 정 자 산 계 (자 산 운 용 율)	100.0 (83.0)	4.5	100.0 (82.5)	4.4	100.0 (81.7)	5.0	100.0 (81.2)	5.1	100.0 (80.8)	5.0
특 별 계 정 자 산	17.0	-5.4	17.5	-1.6	18.3	16.1	19.1	17.6	19.2	13.7
총 자 산	100.0	2.8	100.0	3.3	100.0	6.9	100.0	7.3	100.0	6.6
총 자산 규모	3,205,462		3,283,321		3,388,638		3,527,890		3,614,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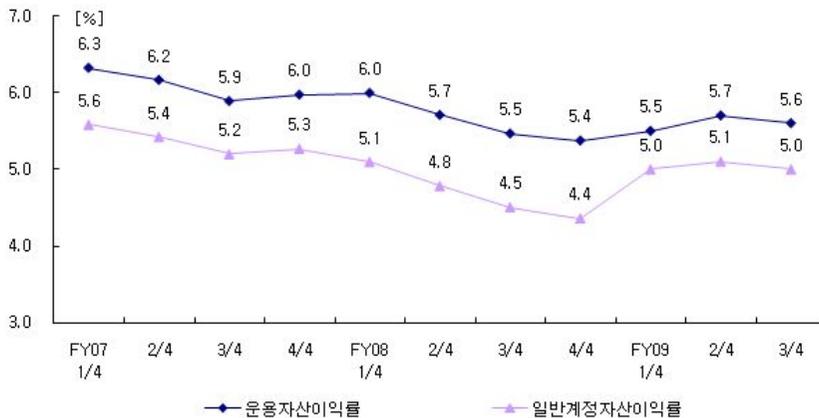
주 : 1) 이익률은 누계실적임.

2)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 등으로 구성된 비운용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1.0% 증가하여 25조 4,512억원으로 나타남.
-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자산운용 항목별 비중은 유가증권 62.0%, 대출채권 21.9%, 부동산 3.9%, 현금과 예금 3.5% 순임.
- 유가증권 중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47.3%(주식: 5.0%, 채권 등: 38.6%, 수익증권: 3.8%), 만기보유증권이 12.7%, 단기매매증권이 1.1%를 차지함.
- FY2009 3/4분기 생명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현금과 예금 및 대출채권 부문에서는 감소했으나, 그러나 유가증권 및 부동산 부문의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0.1%p 증가한 5.6%로 나타남.
- 유가증권이익률은 만기보유증권에서는 감소하였으나, 단기매매 및 매도가능증권에서 증가한 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5%p 증가한 5.0%를 기록함.
- 대출채권은 전년대비 0.4%p 하락한 8.0%의 이익률을 기록한 반면, 부동산이익률은 0.2%p 상승한 4.5%로 나타남.
- 비운용자산을 포함한 일반계정자산이익률도 전년동기대비 0.5%p 높아진 5.0%를 시현함.

<그림 2> 자산운용 이익률 추이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일반계정자산에서 비운용자산을 제외한 것임.
 2) 운용자산의 투자이익률은 각 사의 업무보고서 재산이용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였음.
 3)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 환산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 FY2009 3/4분기 모집형태별 초회보험료 비중은 임직원, 방카슈랑스에서 증가한 반면, 설계사 및 대리점에서는 감소함.
- 임직원 채널 비중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퇴직연금 초회보험료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7.4%p 늘어난 46.9%로 나타남.
- 저축성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방카슈랑스도 생사혼합보험 초회보험료가 급증함에 따라 그 비중이 7.1%p 확대된 27.8%를 시현함.
- 설계사가 주로 취급하는 보장성·개인보험의 초회보험료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에 따라 설계사 채널 비중은 20.4%p 축소된 19.5%를 기록함.
- 독립채널인 대리점 비중도 전년동기대비 4.1%p 줄어든 5.6%로 나타남.

<표 9> 생명보험 모집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임 직 원	13.2	18.9	29.5	11.8	17.8	15.4	7.5	46.9
설 계 사	35.5	36.3	39.9	32.5	36.0	36.2	35.9	19.5
대 리 점	8.6	7.9	9.7	9.1	8.8	8.8	8.2	5.6
중 개 사	0.0	0.0	0.0	0.0	0.0	0.0	0.0	0.0
방카슈랑스	42.5	36.7	20.7	46.5	37.3	39.5	48.2	27.8
기 타	0.1	0.1	0.1	0.1	0.1	0.1	0.3	0.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72	17,429	14,364	15,510	67,375	12,973	17,200	40,990

주 :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09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모집조직 중 임직원, 설계사, 대리점 수 모두 전분기에 비해 감소함.

- 임직원 수는 전분기대비 590명이 감소한 2만 6,541명으로 나타남.
 - 기업구조조정 실시에 따라 상위 3사, 국내 중소형사, 외국사 모두 임직원 수가 감소함.
-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271명 늘어난 반면, 교차설계사는 1,948명 감소하여 전체 설계사 수는 1,677명이 감소한 16만 4,175명으로 나타남.
 - 주로 상위 3사와 국내 중소형사에서 설계사 수가 감소하였고, 성별로는 남녀 모두 전분기대비 1.5%, 0.8% 감소하였으나, 외국사의 여성 설계사 수는 증가함.
- 개인대리점 수 66개, 법인대리점 수 286개가 감소함에 따라 전체 대리점 수는 352개가 감소한 1만 3,387개로 나타남.

<표 10> 생명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2/4	3/4
임 직 원	27,807	28,147	28,137	28,300	27,421	27,131	26,541
설 계 사	148,763	173,434	176,090	171,347	168,874	165,852	164,175
- 전속	-	-	-	145,834*	143,588	140,796	141,067
- 교차	-	-	-	25,513*	25,286	25,056	23,108
대 리 점	11,411	12,584	13,695	13,120	13,588	13,739	13,387
- 개인	7,888	8,924	10,311	9,357	9,014	8,940	8,874
- 법인	3,523	3,660	3,384	3,763	4,574	4,799	4,513

주 : * 교차모집설계사는 FY2008 2/4분기부터 허용되었으나,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수록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손해보험 전체>

- FY2009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전체 원수보험료 규모는 장기성보험(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을 모두 포함)의 높은 성장세 지속과 자동차보험의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1.1% 증가한 12조 115억원으로 나타남.
- 장기성보험의 높은 성장세가 FY2008 4/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던 자동차보험도 FY2009 2/4분기 이후에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됨.
 - 장기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이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성장하고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가 급증한 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3.5% 성장한 7조 6,291억원을 시현함.
 -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노후 차량의 신차 대체 시 세계혜택을 부여하는 정부보조프로그램의 영향과 경기회복에 따른 신차, 대형차 및 수입차 등록대수 증가 효과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2조 8,482억원으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특종보험 및 보증보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상보험이 큰 폭으로 축소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5.9% 성장한 1조 5,341억원을 시현함.
- FY2009 3/4분기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금융시장 안정화에 따른 자산운용 여건 개선으로 유가증권 자산의 규모가 증대되고 대출채권 부문의 자산도 증대됨에 따라 전분기대비 4.4% 증가한 82조 9,558억원을 기록함.
- 유가증권 부문에서는 국·공채, 수익증권, 외화유가증권 등 채권 관련 자산 규모가 증대되었으며, 대출채권 부문에서는 가계 및 기업대출(특히 중소기업)이 증대되었음.

2) 동 지원책은 2009년 12월 종료됨.

<표 11>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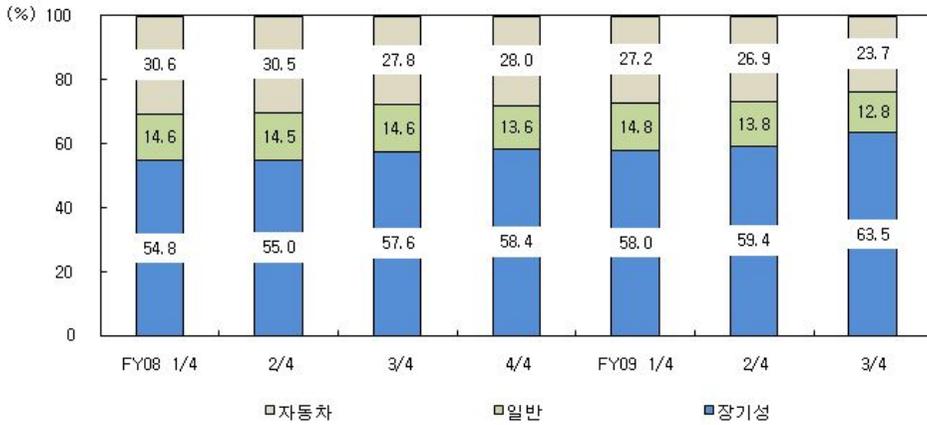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원수보험료	89,550	91,512	99,218	94,674	374,954	100,038	105,112	120,115
	12.9	12.1	7.6	9.3	10.3	11.7	14.9	21.1
- 장기성	49,038	50,363	57,163	55,247	211,812	58,034	62,410	76,291
	17.4	17.2	10.8	16.3	15.2	18.3	23.9	33.5
- 자동차	27,397	27,846	27,574	26,554	109,371	27,241	28,248	28,482
	6.0	3.5	-1.2	-3.2	1.2	-0.6	1.4	3.3
- 일반손해	13,114	13,302	14,481	12,873	53,771	14,763	14,454	15,341
	12.3	12.9	13.9	9.8	12.2	12.6	8.7	5.9
총 자산	680,358	690,602	714,866	739,895	739,895	766,082	794,726	829,558
	3.1	1.5	3.5	3.5	12.1	3.5	3.7	4.4

주 : 1) 주요 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률이며,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2) 장기성보험은 장기손해보험,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실적을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 FY2009 3/4분기 원수보험료를 보험종목별 구성비 측면에서 살펴보면, 장기성보험의 비중 확대 현상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전체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중 장기성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63.5% 수준으로 높아짐.
- 장기성보험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및 전분기대비 각각 5.9%p, 4.1%p 확대되어 분기 기준으로는 최초로 60%를 상회함.
 - 장기성보험 비중은 FY2005 3/4분기에 분기 기준 최초로 50% 수준을 넘어선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4년 경과 시점인 FY2009 3/4분기에는 다시 60% 수준을 초과함.
- 장기성보험의 원수보험료 성장이 빠르게 진행된 데 따른 상대적 효과로서 자동차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4.1%p, 1.8%p 감소하여 23.7%, 12.8% 수준으로 낮아짐.
 - 분기 기준으로 볼 때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25% 수준 미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구성비 변동 추이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종목별 보험료 현황

1) 장기성보험(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 퇴직연금)

- 장기성보험 부문의 FY2009 3/4분기 실적은 장기손해보험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도 고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3.5% 증가한 7조 6,291억원의 원수보험료 규모를 시현함.
 - FY2009 3/4분기 들어서는 장기손해보험 이외 종목인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46.5%, 43.1%, 307.9% 증대되어 시장이 크게 확대됨.
- 장기성보험 부문 내에서의 종목간 원수보험료가 다각화됨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의 비중이 77.9%로 낮아지고,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비중이 각각 6.5%, 8.9% 및 6.6%로 증대됨.
 - 전년동기대비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비중이 각각 0.6%p, 0.5%p, 4.4%p 높아짐에 따라 전체 장기성보험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하 수준으로 하락함.
- FY2009 3/4분기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 규모는 6,828억원, 5,049억원으로

로 나타나 손해보험산업의 퇴직 관련 원수보험료 규모가 1조 1,877억원에 달함.

- 2010년말 제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퇴직보험의 원수보험료가 43.1%나 증대된 것은 대형사의 계약 체결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임.
-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는 2011년부터 관련 제도가 변경(퇴직보험·신탁제도의 종료)됨에 따라 기존 퇴직보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려는 기업과 신규 가입이 증가함에 따라 큰 폭으로 성장한 것임.

<표 12> 장기성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장기손해	보험료	44,857	46,461	47,761	49,749	188,829	53,088	57,299	59,443
	성장률	16.1	16.6	14.7	14.9	15.5	18.3	23.3	24.5
	구성비	91.5	92.3	83.6	90.0	89.1	91.5	91.8	77.9
개인연금	보험료	2,907	3,104	3,394	3,449	12,853	3,654	4,048	4,971
	성장률	28.3	30.0	29.1	27.1	28.6	25.7	30.4	46.5
	구성비	5.9	6.2	5.9	6.2	6.1	6.3	6.5	6.5
퇴직보험	보험료	518	410	4,770	1,110	6,807	758	521	6,828
	성장률	-32.4	-19.7	-21.1	18.7	-17.6	46.4	27.3	43.1
	구성비	1.1	0.8	8.4	2.0	3.2	1.3	0.8	8.9
퇴직연금	보험료	756	389	1,238	939	3,322	534	541	5,049
	성장률	494.4	81.8	-1.5	75.2	55.7	-29.4	39.3	307.9
	구성비	1.5	0.8	2.2	1.7	1.6	0.9	0.9	6.6
합계	보험료	49,038	50,363	57,163	55,247	211,812	58,034	62,410	76,291
	성장률	17.4	17.2	10.8	16.3	15.2	18.3	23.9	33.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장기성보험 중 차지하는 비중임.

2)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I의 자산연계형 실적을 포함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장기손해보험 부문별 실적>

- FY2009 3/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를 세부 종목별로 살펴보면, 상해보험·질병보험 등 실손의료 부문에서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며, 저축성보험 부문에서도 큰 폭의 성장을 시현함.
- FY2009 3/4분기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이후 급증한 신계

약으로부터 계속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0.1%, 48.4% 증가한 1조 6,414억원, 1조 3천억원을 기록함.

○ 실손의료보장 관련 상품의 성장률은 2009년 10월 이후 보장 축소(100%→90%) 정책으로 대기 수요자들의 보험가입이 FY2009 2/4분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저효과가 나타남.

- 전분기대비 FY2009 3/4분기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질병보험 13.8%p(62.2%→48.4%), 상해보험 1.1%p(31.2%→30.1%) 낮아짐.

○ 저축성보험의 FY2009 3/4분기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4.7% 증가하여 9,924억원에 달함.

- 저축성보험 성장률은 전년동기 및 전분기대비 각각 26.0%p, 14.0%p나 높아진 것으로 손해보험회사들이 향후 실손의료보험 부문의 신계약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여 방카슈랑스를 통한 저축성보험 판매에 주력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FY2009 3/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 판매 동향을 초회보험료 중심으로 살펴보면, 저축성보험의 급증과 상해·질병 등 실손의료보험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관련 제도 변경 효과로 FY2009 2/4분기에 신계약이 급증했던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초회보험료가 FY2009 3/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41.4%, 42.8% 감소함.

○ 반면, 저축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주요 손해보험회사들이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금리연동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한 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37.2% 급증한 1,095억원을 기록함.

○ 운전자보험의 초회보험료 역시 전년동기대비 103.0%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관련 제도 변경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임.

- 2009년 10월 이후 ‘형사합의지원금’ 담보가 기존 정액방식에서 실손방식(비례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도 변경 전에 정액보험에 가입하려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신계약이 크게 증대됨.

<표 13> 장기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원 수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1,324	11,930	12,678	13,770	49,702	15,041	15,650	16,414
		성장률	23.7	24.9	24.5	28.4	25.5	32.8	31.2	30.1
	운전자	보험료	5,354	5,279	5,197	5,075	20,904	5,008	4,994	5,160
		성장률	1.6	-0.5	-3.4	-5.9	-2.1	-6.5	-5.4	-0.7
	재 물	보험료	4,531	4,519	4,539	4,523	18,113	4,550	4,548	4,701
		성장률	4.5	4.3	1.6	0.8	2.8	0.4	0.4	3.6
	질 병	보험료	7,511	7,955	8,698	9,590	33,755	10,568	12,992	13,000
		성장률	16.0	18.6	24.1	32.9	23.2	40.7	62.2	48.4
	저축성	보험료	7,299	7,491	7,369	7,480	29,639	8,479	9,040	9,924
		성장률	10.2	11.8	8.7	4.3	8.7	16.2	20.7	34.7
통합형	보험료	8,838	9,183	9,175	9,206	36,403	9,330	9,925	10,129	
	성장률	30.7	26.6	17.1	10.7	20.6	5.6	8.1	10.4	
자산 연계형	보험료	-	104	105	104	313	111	151	117	
	성장률	-	-	-	-	-	-	45.7	10.7	
소 계	보험료	44,857	46,461	47,761	49,749	188,829	53,088	57,299	59,443	
	성장률	16.1	16.6	14.7	14.9	15.5	18.3	23.3	24.5	
초 회 보험료	상 해	보험료	452	492	597	824	2,365	645	793	350
		성장률	16.8	14.5	49.8	60.9	36.9	42.8	61.1	-41.4
	운전자	보험료	112	100	104	108	424	121	119	210
		성장률	-24.2	-32.1	-28.0	-18.6	-25.9	7.9	18.4	103.0
	재 물	보험료	172	136	149	166	622	172	130	200
		성장률	7.0	0.5	-10.5	2.6	-0.2	0.1	-4.2	34.2
	질 병	보험료	222	326	495	719	1,762	513	753	283
		성장률	33.4	69.5	156.2	234.5	129.8	131.3	130.9	-42.8
	저축성	보험료	643	648	462	652	2,405	1,091	1,153	1,095
		성장률	-7.3	12.9	4.4	-22.6	-5.8	69.7	77.9	137.2
통합형	보험료	265	217	151	219	851	181	322	110	
	성장률	2.8	-24.9	-40.8	-28.6	-23.1	-31.5	48.4	-27.5	
자산 연계형	보험료	-	-	-	-	-	-	-	30	
	성장률	-	-	-	-	-	-	-	-	
소 계	보험료	1,866	1,920	1,957	2,687	8,429	2,724	3,270	2,278	
	성장률	2.9	8.5	22.4	23.9	14.7	46.0	70.4	16.4	
계 속 보험료	상 해	보험료	10,872	11,438	12,081	12,946	47,337	14,396	14,857	16,065
		성장률	24.0	25.4	23.5	24.8	24.9	32.4	29.9	33.0
	운전자	보험료	5,242	5,178	5,093	4,967	20,480	4,887	4,875	4,949
		성장률	2.4	0.4	-2.8	-5.6	-1.4	-6.8	-5.8	-2.8
	재 물	보험료	4,359	4,383	4,390	4,358	17,491	4,378	4,418	4,502
		성장률	4.4	4.4	2.1	0.8	2.9	0.4	0.8	2.6
	질 병	보험료	7,289	7,629	8,203	8,871	31,992	10,055	12,239	12,716
		성장률	15.5	17.1	20.4	26.7	20.1	37.9	60.4	55.0
	저축성	보험료	6,657	6,843	6,907	6,828	27,234	7,388	7,887	8,829
		성장률	12.2	11.7	9.1	7.9	10.2	11.0	15.3	27.8
통합형	보험료	8,573	8,966	9,024	8,988	35,552	9,149	9,603	10,019	
	성장률	31.8	28.7	18.9	12.2	22.3	6.7	7.1	11.0	
자산 연계형	보험료	-	-	-	-	-	-	-	87	
	성장률	-	-	-	-	-	-	-	-	
소 계	보험료	42,992	44,438	45,699	46,958	180,086	50,252	53,878	57,165	
	성장률	16.8	16.7	14.1	14.1	15.4	16.9	21.2	25.1	

주 : 기간별 수치는 분기별 실적이며, 자산연계형은 FY09 3/4분기부터 초회와 계속보험료로 구분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9 3/4분기 장기손해보험의 세부 종목별 실적을 계속보험료 중심으로 살펴보면, 질병보험과 상해보험의 성장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저축성보험의 계속보험료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음.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계속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3.0%, 55.0% 증가하여 1조 6,065억원, 1조 2,716억원으로 나타났음.
- 통합형보험과 저축성보험의 계속보험료도 11.0%, 27.8% 증가한 1조 19억원, 8,8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률 및 해지율>

- FY2009 3/4분기 누적(2009.4~12월)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신계약률은 운전자 및 재물보험을 중심으로 높아져 전년동기대비 1.2%p 높아진 28.7%로 나타남.
- FY2009 3/4분기 누적(2009.4~12월) 기준 장기손해보험의 해지율은 전년동기대비 0.1%p 낮아진 12.8%로 나타남.
- 종목별로는 재물보험과 저축성보험의 효력상실금액 및 해약금액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누적 해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 FY2009 3/4분기 기준으로 보면 장기손해보험 전종목에서 효력상실건수 및 해약건수가 전년동기대비 1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³⁾.

3) FY2008 3/4분기 : 130만건→FY2009 3/4분기 : 113만건

<표 14> 장기손해보험 신계약률 및 해지율

(단위: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신계약률	계	8.8	18.1	27.5	40.7	40.7	9.2	21.2	28.7
해지율	상 해	4.4	8.8	12.9	17.2	17.2	6.0	10.9	14.1
	운전자	4.4	8.6	13.1	17.6	17.6	5.5	10.4	12.7
	재 물	4.1	8.0	11.9	15.1	15.1	4.9	7.7	10.7
	질 병	4.1	8.1	11.5	14.8	14.8	4.6	9.3	12.6
	저축성	4.6	9.4	15.0	19.7	19.7	5.9	9.6	13.4
	통합형	2.8	5.4	8.0	10.1	10.1	4.6	4.4	10.9
	계	4.3	8.6	12.9	16.9	16.9	5.4	9.7	12.8

주 : 1) 신계약률=신계약액/연초보유계약액
 해지율=(효력상실액+해약액)/(연초보유계약액+신계약액)

2) 기간별 수치는 누계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 자동차보험

□ FY2009 3/4분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경기회복 및 정부의 차량 관련 세제 지원책 효과에 따른 차량등록대수 증가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2조 8,482억원을 시현함.

○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정부의 노후차 교체 시 세금 감면 혜택 및 자동차 제작사의 신차 출시 효과가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이어져 자동차보험시장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음.

□ 담보별로는 대인배상 I 부분의 하락세도 불구하고 대물배상(대물) 및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등 종합보험 부문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2조 8,482억원을 시현함.

○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I의 원수보험료는 8,63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 감소해 감소세를 지속함.

- 대인배상 I의 원수보험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2008년 하반기 요율 조정 시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손해율을 보인 대인배상 I의 요율을 크게 인하시킨 결과로 풀이됨.

○ 종합보험의 경우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자손), 무

국내보험시장 동향

보험 담보 등 종합보험 전 담보의 원수보험료가 호조세를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함.

- 차량의 고가화 및 대형화 경향에 따라 물적 손해에 대한 보상 한도를 높이려는 수요가 높아져 물적 담보인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원수보험료 규모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
- 또한 인적 담보인 대인배상 II와 자기신체사고의 원수보험료 규모도 전년동기 대비 각각 2.1%, 36.5% 증가하며 고액 사고 위험에 종합적으로 대비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 자동차보험 담보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인 I	9,077	9,190	9,090	8,565	35,923	8,424	8,908	8,632
대인 II	3,089	3,123	3,088	2,916	12,215	3,053	3,117	3,151
대물	6,473	6,712	6,845	6,679	26,710	6,996	7,339	7,328
자차	6,599	6,381	6,566	6,289	25,836	6,530	6,651	7,088
자손	950	1,202	731	921	3,804	961	960	998
무보험	268	282	280	268	1,098	272	282	284
소계	17,380	17,700	17,511	17,073	69,664	17,812	18,350	18,849
의화표시	33	29	43	21	127	33	21	35
이륜자동차	127	129	106	98	460	145	140	121
기타	780	798	824	796	3,198	827	830	846
합계	27,397	27,846	27,574	26,554	109,371	27,241	28,248	28,482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3)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9 3/4분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사고율 증가로 인한 손해액 급증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9%p 증가한 79.0%를 시현함.

○ 대인배상 I 의 손해율은 2008년 말 단행된 요율 인하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경과 보험료 감소율이 손해액 감소율을 하회하여 전년동기대비 악화됨.

○ 종합보험의 손해율은 차량 운행 증가 및 폭설로 인한 사고 급증 등의 영향으로 손

해액이 큰 폭으로 증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0.0%p 상승한 80.5%를 기록함.

- 이는 내수경기의 회복세, 정부의 차량 관련 세제 지원, 교통법규단속 약화(계도 위주로 전환) 및 교통법규 위반 사면 등의 효과가 차량 운행 증가로 이어지고, 특히 겨울철 폭설과 같은 기상 악화로 대물사고의 손해액이 급증하면서 대물배상 및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율이 86.7%, 81.8%로 크게 악화된 데 기인함.

<표 16> 자동차보험 담보별 손해율

(단위: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대인 I	65.2	65.5	74.7	61.3	66.6	68.1	71.8	75.7	
종합보험	대인 II	91.4	74.4	57.7	70.9	73.5	69.0	62.1	68.7
	대물	71.8	74.9	78.4	76.1	75.4	76.9	78.5	86.7
	자차	62.4	66.4	72.1	74.5	68.9	72.6	79.1	81.8
	자손	49.3	58.3	56.8	82.2	60.6	66.0	64.9	74.1
	무보험	22.8	39.8	43.0	37.9	35.8	21.1	63.0	47.3
	소계	69.7	70.1	70.5	74.3	71.1	72.5	75.0	80.5
외화표시	59.7	72.6	58.5	58.2	62.3	63.4	48.2	52.9	
이륜자동차	107.2	108.2	95.2	71.2	94.6	93.9	94.2	85.7	
기타	60.5	73.4	72.3	67.8	68.6	66.0	76.0	79.4	
합계	68.1	68.8	72.1	69.7	69.7	71.0	74.1	79.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손해율임.

2) 손해율은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임.

3) 이륜자동차는 대인배상 I 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수치임.

4) 기타는 취급업자종합보험, 운전면허교습생보험 및 농기계보험 등의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 일반손해보험

□ FY2009 3/4분기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특종 및 보증보험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9% 성장한 1조 5,341억원으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종보험은 상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세 (5.7%)를 비롯한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크게 확대됨.

○ 보증보험은 국내 주택 등 민간 건설 부문의 경기회복이 더딘 가운데 해외건설

국내보험시장 동향

수주 증가와 공공토목 부문의 호조,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 등으로 인해 양호한 성장세를 시현함.

- 반면, 해상보험은 적하 및 선박 실적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 환율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원수보험료 규모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냄.

<표 17> 일반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701	632	792	710	2,835	654	632	798
	성장률	-5.7	-6.9	-9.8	-8.4	-7.8	-6.6	-0.1	0.7
	구성비	5.3	4.8	5.5	5.5	5.3	4.4	4.4	5.2
해 상	보험료	2,166	1,912	2,564	1,864	8,507	2,215	2,009	1,858
	성장률	24.9	7.2	72.6	23.1	30.5	2.2	5.1	-27.5
	구성비	16.5	14.4	17.7	14.5	15.8	15.0	13.9	12.1
보 증	보험료	2,814	2,928	2,821	2,966	11,529	3,165	2,890	3,106
	성장률	16.1	25.1	8.4	15.3	16.0	12.5	-1.3	10.1
	구성비	21.5	22.0	19.5	23.0	21.4	21.4	20.0	20.2
특 종	보험료	7,209	7,488	7,668	6,754	29,119	8,345	8,422	8,919
	성장률	9.5	11.3	2.8	4.3	6.9	15.8	12.5	16.3
	구성비	55.0	56.3	52.9	52.5	54.2	56.5	58.3	58.1
해 외 원보험	보험료	224	341	637	580	1,781	383	500	661
	성장률	16.9	34.2	113.9	51.3	58.1	71.1	46.6	3.8
	구성비	1.7	2.6	4.4	4.5	3.3	2.6	3.5	4.3
합 계	보험료	13,114	13,302	14,481	12,873	53,771	14,763	14,454	15,341
	성장률	12.3	12.9	13.9	9.8	12.2	12.6	8.7	5.9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은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를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9 3/4분기 화재보험은 공장물건의 보험가입 확대로 전년동기대비 0.7% 성장한 798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함.

- 기존 일반화재보험에 가입되었던 물건들이 장기손해보험 및 종합보험 가입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인하여 일반화재보험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3/4분기 공장물건의 보험가입이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원수보험료가 증가함.

- 또한 2009년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와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다중이용시설,

청소년시설 등의 화재위험이 부각되어 화재보험 가입이 확대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화재보험 의무가입의 범위도 확대될 예정이다.

□ 계약건수는 증가했으나, FY2008 3/4분기 달러당 1,509원까지 급등했었던 원/환율 기저효과와 건당보험료(달러기준) 하락으로 인하여 해상보험은 일반손해보험 종목 중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 전년동기대비 27.5% 감소한 1,858억원을 실현함.

- 해상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박 및 적하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8.3%, 15.2% 감소한 874억원, 624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함.
- 적하보험의 경우 전년동기와 대비하여 신계약은 18.8% 증가하였으나, 환율이 약 15% 하락하고 건당보험료(달러기준)도 하락하면서 원수보험료는 15.2% 하락하였음.
- 선박보험의 경우 신계약은 전년동기대비 4.9% 상승하였으나, 환율이 하락하고 건당보험료(달러기준)도 크게 하락하면서 원수보험료도 38.3% 하락함.
- 그 외 항공기 운항에 따른 제반 위험을 담보하는 항공보험도 전년동기대비 1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보증보험의 원수보험료는 공공건설 경기회복에 따른 보증 부문의 성장과 배상책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전년동기대비 10.1% 성장한 3,106억원으로 나타남.

- FY2009 3/4분기 건설투자가 전년동기대비 3.9% 성장하면서, 건설보증 및 이행보증보험을 포함하는 보증보험 원수보험료도 증가함.
- FY2009 3/4분기 신계약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2% 늘어난 310만건을 기록한 반면, 가입금액은 29조 4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4% 감소함.
- 반면, 누적 보유계약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6% 늘어난 1,946만건으로 나타났으며, 보유계약 금액도 4.4% 증가한 172조 9천억원으로 나타남.

□ 일반손해보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특종보험은 기술, 책임, 상해, 종합보험 등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한 8,919억원으로 집계됨.4)

4) FY2009 3/4분기 기준 특종보험 내 원수보험료 비중은 상해보험 32.8%, 종합보험 30.0%, 책임보험 13.9%, 기술보험 12.7% 순임.

- 기업성 물건이 대부분인 기업성 종합보험은 전년동기대비 4.7% 성장한 2,458억 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였으며, 상해보험은 여행자보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체 및 일반상해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5.7%의 성장률을 보임.
- 한편, 책임보험은 최근 보상금 문제로 배상책임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전문 직업인과 생산물배상책임 부문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27.8%, 44.2%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일반배상책임 부문도 8.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기술보험의 경우, 해외건설 수주 확대에 따른 중소건설과 전문업체에 대한 정부의 보험지원 확대 및 국내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른 수요 확대로 1,134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116.3% 성장한 수준임.
 - 건설부문의 원수보험료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147.7% 늘어난 893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조립보험 및 기계보험도 전년동기대비 각각 40.2%, 12.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 질병보험은 종업원의 질병을 보장하기 위한 가입이 확대되어 전년동기대비 11.6% 상승한 188억원의 원수보험료를 거수함.
- 상품·설비 등 수리비용을 보장하는 AS비용보험과 풍수해보험 등을 포함하는 기타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도 전년동기대비 16.5% 성장한 530억원으로 집계됨.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FY2009 3/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국내 기타사⁵⁾의 비중은 확대된 데 비해 외국사의 비중 축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상위 4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69.3%를 유지한 반면, 국내 기타사는 전년동기대비 0.7%p 상승한 25.2%를 차지함.
 - 국내 기타사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것은 대형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손해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가 큰 폭으로 증대되었기 때문임.

5) 한화손해보험(주)와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이 2009년 12월말 기준 합병하였으므로 FY2009 3/4분기 원수보험료 실적은 각사 별도로 계상함.

- 반면, 전업사, 외국사 및 온라인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2%p, 0.5%p, 0.4%p 축소되어 2.6%, 2.9%, 3.0%로 낮아짐.
 - 온라인 자동차보험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온라인사의 시장점유율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은 오프라인사가 온라인사업을 병행해 운영함으로써 기존 온라인사의 시장을 잠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FY2009 3/4분기 허핀달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0009p 감소한 0.1440으로 나타나 손해보험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미미하게나마 완화된 추이를 보임.

<표 18> 손해보험시장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단위: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4사	69.4	68.9	69.3	67.9	68.9	68.1	68.5	69.3
국내 기타사	23.8	24.2	24.5	25.4	24.5	25.4	25.4	25.2
전업사	3.2	3.2	2.8	3.1	3.1	3.2	2.8	2.6
외국사	3.7	3.7	3.4	3.5	3.6	3.3	3.4	2.9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온라인사	3.6	3.6	3.4	3.6	3.5	3.3	3.4	3.0
허핀달지수	0.1468	0.1453	0.1449	0.1393	0.1440	0.1402	0.1409	0.1440

주 : 1) 국내 기타사에는 국내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국내 온라인사가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국내 및 외국계 재보사를 포함함. 외국사는 차티스(舊 AIG), ACE, 페더럴, 퍼스트어메리칸권 원보험, 미츠이스미토모뿐만 아니라 AXA손보, 에르고다움다이렉트와 같은 외국계 온라인사도 포함되었음. 온라인사는 주로 자동차보험에 주력하는 더케이손보, 현대하이카, 에르고다움다이렉트, AXA손보 실적을 따로 구분하여 파악한 것임.
 2) 허핀달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지수가 0.18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함.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I, II를 모두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수지상황

<당기순이익>

- FY2009 3/4분기 누적(2009.4~12월)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보험영업 부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 부분의 양호한 성과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7.8% 증대된 1조 3,033억원을 시현함.

국내보험시장 동향

- FY2009 들어 자동차보험의 경과보험료 증대(2.6%)는 미미한 반면, 손해액은 크게 증가(9.6%)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 부문 전체적으로 5,293억원의 적자를 기록함.
-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영업 부문 적자 규모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확대, 장기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전입 증가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477억원 증대됨.

<표 19>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84,828	173,111	263,661	356,806	95,170	195,656	299,884
	투자영업	10,529	20,110	31,161	41,704	11,829	22,448	32,202
	기타	2,142	4,394	11,934	14,693	2,339	4,671	17,296
	소계	97,499	197,615	306,756	413,204	109,338	222,776	349,382
총 비 용	보험영업	83,703	172,682	266,477	365,299	96,455	199,392	305,177
	투자영업	2,684	6,692	11,789	15,398	3,043	6,093	8,457
	기타	2,211	4,508	12,079	14,740	2,806	5,357	18,420
	소계	88,599	183,882	290,345	395,436	102,304	210,842	332,055
수 지 차	보험영업	1,125	429	-2,816	-8,492	-1,284	-3,736	-5,293
	투자영업	7,845	13,418	19,372	26,307	8,786	16,355	23,745
	기타	-69	-114	-145	-46	-467	-686	-1,124
	소계	8,900	13,733	16,411	17,768	7,035	11,934	17,327
법 인 세	2,434	3,623	4,325	4,661	1,645	2,877	4,294	
당기순이익	6,466	10,110	12,086	13,107	5,390	9,056	13,033	

주 : 기간별 수치는 퇴직보험과 퇴직연금을 제외한 누적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각 월호

-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주식시장 회복 및 금융시장 안정 등 자산운용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2.6% 증가한 2조 3,745억원을 기록함.
- FY2009 3/4분기 누적 투자영업이익이 급증한 것은 투자 관련 수익이 증대(3.3%)된 효과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등 투자 관련 비용이 크게 감소(-28.3%)하였기 때문임.

<손해율과 합산비율>

- FY2009 3/4분기 손해보험산업(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 제외)의 손해율은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급증과 장기손해보험 및 화재보험 부문에서의 지급보험금 증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0.8%p 상승한 76.7%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은 2009년 7월 이후 대물·자차 사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가운데, 2009년 12월 발생한 폭설로 인한 사고 증가가 더해져 전년동기대비 6.9%p 높아진 79.0%를 기록함.
- FY2009 2/4분기 이후 자동차 손해율이 증대된 것은 차량 운행량 증가, 외산차의 손해율 악화 및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구성비 증대, 교통법규 위반단속 악화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 장기손해보험의 손해율은 원수보험금과 장기저축성보험료적립금이 크게 증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1%p 높아짐.

<표 20> 손해보험 손해율 및 합산비율

(단위: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손해율	화재보험	43.0	31.6	47.7	37.9	39.7	32.4	37.1	54.3
	해상보험	52.9	71.7	82.5	301.8	127.1	82.4	89.0	85.4
	보증보험	23.7	47.5	78.5	43.6	48.9	66.1	47.9	31.5
	특종보험	57.8	62.5	69.0	68.3	64.7	61.4	67.2	63.0
	해외원보험	38.1	40.2	48.8	50.5	45.8	39.2	29.0	29.0
	해외수재보험	79.1	106.6	84.1	93.7	91.0	57.9	60.0	60.2
	자동차보험	68.1	68.8	72.1	69.7	69.7	71.0	74.1	79.0
	장기손보*	80.0	80.6	79.0	78.0	79.4	78.9	78.5	80.1
	전 체	72.3	74.4	75.9	76.4	74.8	74.2	74.9	76.7
사업비율	23.8	23.8	25.5	28.4	25.4	24.8	25.2	22.5	
합산비율	96.1	98.2	101.4	104.9	100.3	98.9	100.1	99.1	

주 : 1)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9 3/4분기 사업비율은 전년동기대비 3.0%p 낮아진 22.5%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 증대(31.0%→31.7%)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 부분의 사업비율 감소(22.5%→17.0%)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임.
 -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FY2009 3/4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신계약 유입이 감소함에 따라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크게 축소되어 전체 사업비 규모도 전년 동기대비 5.9%p 감소함.
-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손해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율의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3%p 낮아진 99.1%로 나타남.
 - 자동차보험의 합산비율은 전년동기대비 7.7%p 높아진 110.7%(손해율: 79.0%, 사업비율: 31.7%)로 나타났으며, 장기손해보험의 경우는 4.4%p 감소한 97.1%(손해율 80.1%, 사업비율: 17.0%)로 나타남.

라. 자산운용

- FY2009 3/4분기말 기준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 규모는 유가증권 및 대출채권 부문에서 자산이 증대된 데 힘입어 전분기대비 4.7% 증대된 66조 128억원으로 나타남.
 - 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포함하는 비운용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1.4% 증대된 13조 9,259억원임.
- 자산운용 항목별로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유가증권 52.1%, 대출채권 18.6%, 부동산 6.3%, 현금과예금 5.5% 순임.
 - 매도가능 유가증권 비중이 44.5%(주식: 4.9%, 채권 등: 28.8%, 수익증권: 10.9%)로 가장 높음.

<표 21>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억원)

구 분	FY2008				FY2009					
	3/4		4/4		1/4		2/4		3/4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구성비	이익률
현 금 과 예 금	7.0	7.1	5.9	7.1	5.3	1.5	5.0	1.5	5.5	1.4
유 가 증 권	51.1	4.1	52.1	3.8	52.8	6.7	52.3	6.2	52.1	5.7
○ 단기매매증권	3.0	-1.7	3.5	1.5	3.1	9.8	2.2	9.4	2.3	7.9
- 주 식	0.1	-59.8	0.1	-34.1	0.1	104.0	0.2	87.5	0.2	54.2
- 채 권 등	0.7	5.0	0.6	5.5	1.2	6.8	1.0	7.6	0.3	9.3
- 수익증권	2.3	0.3	2.8	2.7	1.8	7.8	1.0	6.2	1.8	5.1
○ 매도가능증권	44.1	4.4	44.3	3.9	44.7	6.6	45.1	6.0	44.5	5.6
- 주 식	4.4	4.0	4.7	4.1	4.7	19.2	5.2	14.2	4.9	11.0
- 채 권 등	31.4	5.4	30.5	5.2	36.3	5.7	35.7	5.6	28.8	5.5
- 수익증권	8.2	1.0	9.0	-0.8	3.7	3.6	4.2	3.0	10.9	3.2
○ 만기보유증권	2.8	4.4	3.1	3.9	3.7	4.9	3.8	6.0	3.9	5.1
- 채 권 등	2.6	4.8	2.9	5.1	3.7	5.7	3.8	6.3	3.7	5.3
- 수익증권	0.2	0.7	0.3	-6.0	0.0	-5.8	0.0	2.8	0.2	1.6
○ 투자주식	1.2	10.5	1.3	7.4	1.2	7.2	1.3	9.3	1.4	7.5
대 출 채 권	19.1	7.0	18.5	7.0	18.0	7.2	18.3	6.4	18.6	6.3
부 동 산	5.9	2.9	6.7	1.9	6.7	0.5	6.5	0.7	6.3	0.8
운 용 자 산 계	83.1	4.9	83.2	4.6	82.8	6.0	82.1	5.5	82.6	5.1
비 운 용 자 산	16.9	-0.1	16.8	-0.1	17.2	0.0	17.9	0.0	17.4	0.0
일반계정 자산계	100.0	4.0	100.0	3.7	100.0	4.9	100.0	4.5	100.0	4.2
일반계정 자산	96.4	4.0	96.2	3.7	96.4	4.9	96.6	4.5	96.4	4.2
특별계정 자산	3.6	-	3.8	-	3.6	-	3.4	-	3.6	-
총 자 산	100.0	3.8	100.0	3.6	100.0	4.7	100.0	4.3	100.0	4.0
총 자 산 규 모	714,866		739,895		766,082		794,726		829,558	

주 : 1) 운용자산 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 환산임.

2) 투자주식은 지분법 적용대상 주식임.

3)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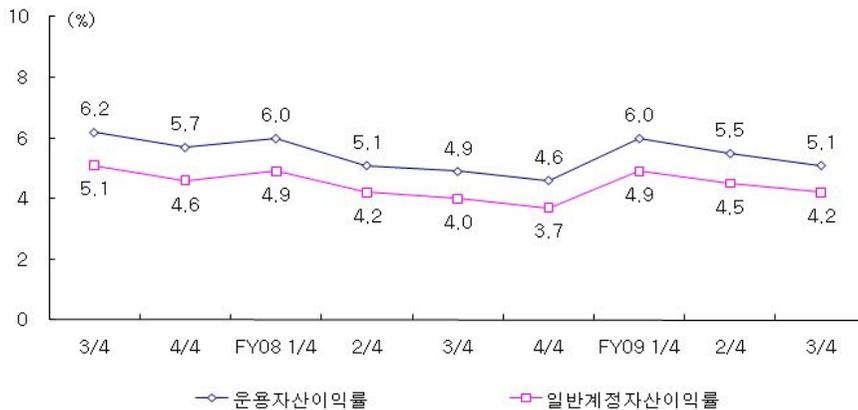
□ FY2009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은 유가증권 부문에서의 투자 이익이 증대된 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5.1%로 나타남.

○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되는 주식, 채권 및 수익증권의 투자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7.0%p, 0.1%p, 2.2%p 높아져 각각 11.0%, 5.5%, 3.2%를 기록함.

국내보험시장 동향

- 대출채권의 투자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7%p 낮아진 6.3%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유가증권보다는 0.6%p 높은 수준임.
- FY2009 3/4분기의 운용자산과 비운용자산을 포괄한 일반계정자산 전체의 투자이익률은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한 4.2%로 나타남.

<그림 4> 자산운용 이익률 추이



-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일반계정자산이익률은 비운용자산까지 포함한 것임.
 2) 운용자산이익률=(운용자산손익×2)/(기초자산+기말자산-운용자산손익)×연기준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판매채널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 FY2009 3/4분기 원수보험료 기준 모집형태별 비중을 살펴보면 회사직급의 비중은 확대된 반면, 설계사 및 대리점의 비중은 축소됨.
- 회사직급을 통해 판매되는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의 원수보험료가 FY2009 3/4분기에 크게 증대됨에 따라 회사직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2.0%p 확대된 18.0%로 나타남.
- 반면, 일반계정·개인보험 판매에 주력하는 설계사와 대리점의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1%p, 0.6%p 축소된 31.0%, 44.8%로 나타남.

□ FY2009 3/4분기에는 퇴직연금 관련 제도 변경 효과로 인해 회사직급 비중이 일시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대리점, 중개사, 방카슈랑스 등 비전속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전년동기대비 0.8%p 축소된 50.6%로 나타남.

<표 22> 손해보험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회사직급	12,054 13.5	11,715 12.8	15,919 16.0	12,692 13.4	52,380 14.0	15,043 15.0	12,057 11.5	21,568 18.0
설계사	30,104 33.6	30,998 33.9	31,847 32.1	31,711 33.5	124,660 33.2	32,752 32.7	36,416 34.6	37,202 31.0
대 리 점	41,673 46.5	42,495 46.4	45,071 45.4	44,282 46.8	173,521 46.3	45,403 45.4	49,505 47.1	53,814 44.8
중개사	668 0.7	775 0.8	1,032 1.0	623 0.7	3,098 0.8	829 0.8	909 0.9	978 0.8
방카슈랑스	4,723 5.3	5,181 5.7	5,005 5.0	5,085 5.4	19,994 5.3	5,721 5.7	5,997 5.7	5,973 5.0
공동인수	328 0.4	348 0.4	344 0.3	281 0.3	1,301 0.3	290 0.3	228 0.2	580 0.5
전 체	89,550 100.0	91,512 100.0	99,218 100.0	94,674 100.0	374,954 100.0	100,038 100.0	105,112 100.0	120,115 100.0

주 : 1) 원수보험료 실적은 분기치이며,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설계사는 교차모집설계사의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3) 원수보험료 실적은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을 모두 포함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모집조직 규모>

□ FY2009 3/4분기 기준 손해보험산업의 모집조직에 대한 규모를 살펴보면 임직원과 설계사 수는 증대된 반면, 대리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교차모집인을 포함하여 손해보험 모집인으로 등록한 설계사 전체 규모는 전분기대비 3,156명 증가한 16만 7,539명 수준임.

- 이 중 전속설계사 수는 전분기대비 2,369명 증가한 8만 6,856명이며,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보험 교차설계사 수는 실손의료보장 상품에 대한 표준화 조치의 영향으로 787명 증가하는 데 그침.

국내보험시장 동향

- 대리점 수는 전분기대비 168개 감소한 4만 6,070개로 파악되었는데, 이중 개인 대리점이 3만 4,539개(전체의 74.6% 차지)이며 법인대리점이 1만 1,711개임.
- 법인대리점은 FY2008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리점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독립법인대리점(GA)과 같은 규모의 대형화 현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표 23> 손해보험 모집조직 규모

(단위: 명, 개)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1/4	2/4	3/4
임직원	27,278	27,876	28,425	28,250	28,271	28,317	28,563
설계사	73,698	116,758	145,214	155,809	161,615	164,383	167,539
- 전속	-	-	-	82,201	87,963	84,487	86,856
- 교차	-	-	-	73,608	73,652	79,896	80,683
대리점	42,443	43,647	44,859	45,998	46,607	46,238	46,070
- 개인	35,714	35,763	35,424	35,675	35,513	34,674	34,359
- 법인	6,729	7,884	9,435	10,323	11,094	11,564	11,711

주 : FY2008 2/4분기 설계사 수는 교차모집설계사 수를 포함하며, 설계사의 세분은 FY2008 4/4분기 업무보고서부터 반영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해외보험시장 동향

▣ 미국 동향¹⁾

가. 생명보험

- 2009년 4/4분기(10~12월)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에 대한 연간화 보험료²⁾는 5%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2009년 1/4분기 이후 감소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며, 2009년 연간 성장률은 -16%로 1942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 종목별로는 종신보험이 12% 성장하면서 2분기 연속 호조세를 나타냈는데 이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전통형 보장성보험의 인기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정기보험의 4/4분기 연간화 보험료는 1% 성장하면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섬.
 - 반면 금융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액유니버설 보험의 연간화 보험료는 36% 감소하면서 지속적인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둔화됨.
 - 생명보험 상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니버설보험은 4/4분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3%)을 기록하면서 연간화 보험료의 감소세가 소폭 완화됨.
- 신규보험료 기준 종목별 누적 점유율을 살펴보면, 유니버설보험의 점유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41%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실적이 양호한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비중이 확대됨.
 - 보험종목별 비중을 신규 계약건수 기준으로 유니버설보험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이 각각 15%, 2%를 차지한 반면,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은 각각 46%, 37%로 나타났다.

-
- 1) 미국 손해보험 동향은 통계자료가 미발표 중이므로 다음 호에 게재함.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 2) 연간화 보험료(Annualized Premium)=일시납보험료×10%+정기납보험료

해외보험시장 동향

- 보장성 보험인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비중이 소폭 확대된 것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보험료가 유니버설보험에 비해 저렴해서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기 때문임.

<표 1> 미국 생명보험 신계약 연간화 보험료 성장률 추이

(단위 : %, 백만 달러)

구 분	CY2008				CY2009									
	3/4		4/4		1/4		2/4		3/4		4/4		연간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유니버설	-12	-23	-8	43	-33	-27	-14	-3	-20	41				
기타변액	-41	-41	-33	0	-62	-79	0	0	0	0				
변액유니버설	-33	-18	-17	15	-61	-49	-52	-36	-49	9				
정기	0	-3	-1	22	-4	-3	0	1	-1	26				
종신	7	2	2	20	-5	-3	12	12	4	24				
계	-11	-14	-7	100	-26	-20	-11	-5	-16	100				
연간화 보험료	2,619	2,827	10,945	1,987	2,228	2,295	2,664	9159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LIMRA, 2009.12.

<표 2> 미국 신규 보험계약 건수 성장률 추이

(단위 : %, 천 건)

구 분	CY2008				CY2009									
	3/4		4/4		1/4		2/4		3/4		4/4		연간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성장률	비중			
유니버설	2	-9	-1	15	-7	8	5	15	5	15				
기타변액	-51	-55	-40	0	-23	-99	0	0	0	0				
변액유니버설	-22	-33	-21	3	-51	-50	-49	-42	-48	2				
정기	-2	-5	-4	46	-5	-4	-1	-1	-3	46				
종신	4	-14	-2	36	-5	-4	7	6	0	37				
계	-1	-10	-4	100	-8	-4	1	3	-2	100				
연간화 보험료	1,408	1,424	5,789	1,323	1,342	1,360	1,386	5,415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비중은 누적치임.

자료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LIMRA, 2009. 12

나. 연금보험

- 2009년 4/4분기 미국 개인연금에 대한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22.3% 감소한 533억 달러를 나타내면서 2009년 1/4분기 이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2% 감소에 그치면서 신규보험료 감소세의 진정 기미가 나타남.

- 변액연금 신규보험료의 경우 3.6% 감소한 32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9년 1/4 분기에 지난 6년 간 가장 낮은 307억 달러의 신규보험료를 기록한 이후 분기별 신규보험료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
- 반면, 확정연금은 전년동기대비 40.5%의 신규보험료 감소를 나타내면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표 3> 미국 연금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 10억 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변액연금	금액	37.8	33.8	155.9	30.7	31.9	31.7	32.6	126.9
	성장률	-18.5	-29.9	-15.4	-27.1	-24.4	-16.1	-3.6	-18.6
	비중	57.3	49.3	58.6	46.3	52.7	58.0	61.2	54.0
확정연금	금액	28.2	34.8	110.1	35.6	28.6	23.0	20.7	107.9
	성장률	46.9	79.4	51.2	67.1	10.9	-18.4	-40.5	-2.0
	비중	42.7	50.7	41.4	53.7	47.3	42.0	38.8	46.0
합 계	금액	66.0	68.6	266.0	66.3	60.5	54.7	53.3	234.8
	성장률	0.6	1.5	3.5	4.6	-11.0	-17.1	-22.3	-11.7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U.S. Individual Annuities, LIMRA, 2009. 12

- 개인연금 판매 현황을 채널별로 살펴보면 전속설계사가 21%로 계속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이어갔으며, 은행 및 재무설계사·독립중개인이 각각 19%를 차지하는 등 지난 분기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 미국 개인연금 판매채널 비중

(단위 : %)

구 분	CY2008			CY2009			
	3/4	4/4		1/4	2/4	3/4	4/4
은행	19	19		19	20	19	19
전속설계사	19	20		21	21	20	21
직접판매	7	7		9	8	8	8
재무설계사·독립중개인	19	19		18	19	19	19
독립 설계사	18	18		17	17	17	17
증권 중개인	14	13		13	12	13	13
기타	4	4		3	3	4	4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U.S. Individual Annuities, LIMRA, 2009. 12.

다. 장기간병보험 및 소득보상보험

- 2009년 4/4분기 미국 장기간병보험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한 1억 3,214만 달러를 기록함.
- 장기간병보험 신규보험료는 2008년 4/4분기 이후 두 자리 수의 감소세를 지속했으나 2009년 4/4분기에는, 감소세가 크게 완화되면서 향후 회복 가능성을 보여줌.
- 2009년 연간 성장률은 -23%, 2004년부터 2009년 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로 나타남.

<표 5> 미국 장기간병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 건, 천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계 약 건 수	적격	건수	71,239	62,513	273,651	48,070	51,628	52,391	58,891	210,980
		성장률	-1.1	-18.2	-5.8	-29.9	-27.6	-26.5	-5.8	-22.9
		구성비	98.8	99.3	99.0	99.2	99.0	99.0	99.3	99.1
	비적격	건수	890	441	2,849	368	527	513	412	1,820
		성장률	12.7	-45.2	-24.2	-48.5	-34.5	-42.4	-6.6	-36.1
		구성비	1.2	0.7	1.0	0.8	1.0	1.0	0.7	0.9
	전체	건수	72,129	62,954	276,500	48,438	5,2155	52,904	59,303	212,800
		성장률	-1.0	-18.4	-6.0	-30.1	-27.7	-26.7	-5.8	-23.0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적격	금액	155,218	138,482	599,466	102,550	11,0624	116,529	131,352	461,055
		성장률	0.5	-19.4	-4.5	-32.7	-27.8	-24.9	-5.1	-23.1
		구성비	99.1	99.5	99.3	99.5	99.2	99.3	99.4	99.4
	비적격	금액	1,411	691	4,519	557	842	825	782	3,006
		성장률	7.9	-58.4	-28.1	-50.5	-34.8	-41.5	13.2	-33.5
		구성비	0.9	0.5	0.7	0.5	0.8	0.7	0.6	0.6
	전체	금액	156,629	139,173	603,985	103,108	11,1465	117,354	132,135	464,062
		성장률	0.6	-19.7	-4.7	-32.9	-27.9	-24.8	-5.1	-23.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U.S. Individual LTC Insurance, LIMRA, 2009. 12.

□ 2009년 4/4분기 소득보상보험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한 1조 2,995억 달러를 나타냈으며 성장세는 소폭 회복됨.

○ 종목별로는 Guaranteed Renewable³⁾과 Noncancellable⁴⁾ 이 각각 5.7%, 6.6% 감소했으며, Guaranteed Renewable이 Noncancellable보다 성장세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남.

<표 6> 미국 소득보상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 건, 천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계 약 건 수	Guaranteed Renewable	건수	77,252	79,864	335,488	105,053	72,326	57,920	80,328	315,627
		성장률	-12.6	23.2	3.6	-4.1	5.1	-25.0	0.6	-5.9
		구성비	62.7	65.4	65.9	75.8	66.6	58.5	66.7	67.6
	Noncancellable	건수	46,018	42,872	174,151	33,452	36,295	41,160	40,073	150,980
		성장률	2.9	-8.6	-1.2	-19.9	-16.5	-10.6	-6.5	-13.3
		구성비	37.3	34.9	34.2	24.2	33.4	41.5	33.3	32.4
	전체	건수	123,270	122,736	509,639	138,505	108,621	99,080	120,401	466,607
		성장률	-7.4	9.9	1.9	-8.5	-3.3	-19.6	-1.9	-8.4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신 규 보 험 료	Guaranteed Renewable	금액	49,518	52,334	211,186	61,198	42,849	45,356	49,365	198,768
		성장률	-10.3	21.1	5.4	2.5	-13.7	-8.4	-5.7	-5.9
		구성비	36.7	37.8	38.7	47.6	36.8	36.1	38.0	39.7
	Noncancellable	금액	85,332	86,235	334,386	67,345	73,739	80,199	80,584	301,867
		성장률	4.7	-3.8	1.9	-13.0	-13.7	-6.0	-6.6	-9.7
		구성비	63.3	62.2	61.3	52.4	63.2	63.9	62.0	60.3
	전체	금액	134,850	138,569	545,572	128,544	116,588	125,555	129,949	500,635
		성장률	-1.4	4.3	3.2	-6.3	-13.7	-6.9	-6.2	-8.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자료 :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LIMRA, 2009. 12.

- 3) Guaranteed Renewable: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회사는 갱신 시 보험료를 변경할 권리를 갖지만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방적인 급부 변경을 할 수 없음.
- 4) Non-cancellable : 피보험자는 정해진 연령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갱신시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보험료 또는 급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음.

■ 조사 개요 및 출처

- 미국의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사망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과 장기간병보험, 소득보상보험 등에 대한 분기별 통계의 입수가 가능함.
- 미국 민영건강보험 사업자는 비영리 민간보험단체인 Blue Shield, Blue Cross 와 지역의료공급제도(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가 존재하고 이들이 민영의료보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강보험이 직장단체보험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나라와 많은 제도적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생명보험에는 유니버설보험, 변액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으며, 연금보험은 크게 변액연금보험과 확정연금보험으로 구분됨.
 - 미국생명보험협회(ACLI: 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나 생명보험마케팅연구단체(LIMRA: Life Insurance Marketing and Research Association) 등은 생명보험,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자료만 제공함.
 - 원고 작성에 사용되는 LIMRA의 분기별 자료는 신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중심으로 발표됨.
- 구체적으로 미국보험시장 동향 작성을 위해 참고한 문헌은 아래와 같음.

보고서	참여 회사수	수입보험료 비중	발표기관
- U.S. Individual Life Insurance Sales	77개사	85%	LIMRA
- U.S. Individual Annuities	61개사	97%	LIMRA
- U.S. Individual Disability Income Insurance	18개사	-	LIMRA
- U.S. Individual LTC Insurance	24개사	95%	LIMRA
- 손해보험 분기별 실적 보도자료	-	-	PCI, ISO, III

◆ 일본 동향1)

가. 생명보험

<신규계약 현황>

- FY2009 3/4분기 생명보험의 신규계약액은 단체성보험 부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개인성보험 부문이 견조한 성장을 시현하여 전년동기대비 10.7% 증가한 18조 6,549억엔을 기록함.
 - 개인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사망보험과 생사사혼합보험이 주요 종목인 정기보험, 종신보험, 양로보험의 양호한 성장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11.9% 증가함.
 - 전체 생명보험의 약 70%를 차지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8.1%, 54.6% 증가하는 등 사망보험의 성장을 견인함.
 - 생사혼합보험은 저축성이 강한 양로보험이 전년동기대비 250.1% 급증한 데 힘입어 전분기에 이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이어감.
 - 개인연금보험의 신규계약액은 확정연금보험 부문에서 신상품 출시 등 업계의 적극적인 판매전략으로 판매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31.6% 급증한 1조 9,642억엔을 시현함.
 - 반면, 변액연금보험은 주식시장 침체 및 최저보증 관련 부채 증대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고 판매 생보사도 감소함에 따라 신규계약액이 감소세를 보임.
 - 단체성보험의 신규계약액은 종합복지단체정기보험과 단체정기보험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59.4%, 17.9% 감소한 영향으로 49.6% 줄어든 4,005억엔을 시현함.
 -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 및 단체들의 보험가입 부진 현상이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됨.

1) 일본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표 1> 일본 생명보험 신규계약액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개인성 보험	개 인	금 액	145,609	135,135	566,688	144,789	160,092	162,902
		성장률	-7.1	-9.5	-5.6	6.0	7.2	11.9
		구성비	86.4	83.3	82.7	83.2	84.0	87.3
	- 사 망	금 액	121,503	111,963	469,295	114,906	128,317	131,594
		성장률	-4.9	-6.6	-3.6	1.5	4.6	8.3
		구성비	72.1	69.0	68.5	66.1	67.3	70.5
	- 생사혼합	금 액	22,644	21,413	91,320	28,635	30,530	29,924
		성장률	-17.8	-22.9	-15.5	30.2	20.8	32.1
		구성비	13.4	13.2	13.3	16.5	16.0	16.0
	- 생 존	금 액	1,462	1,759	6,073	1,249	1,245	1,384
		성장률	5.7	5.5	8.0	-13.0	-12.1	-5.3
		구성비	0.9	1.1	0.9	0.7	0.7	0.7
	개인연금	금 액	14,926	16,903	74,150	20,329	21,377	19,642
		성장률	-18.5	-17.9	-8.7	3.3	-5.6	31.6
		구성비	8.9	10.4	10.8	11.7	11.2	10.5
단체성 보험	단 체	금 액	7,931	10,209	44,112	8,765	9,218	3,964
		성장률	-20.7	-41.5	-11.4	-55.9	37.3	-50.0
		구성비	4.7	6.3	6.5	5.0	4.8	2.1
	단체연금	금 액	9	17	39	41	6	21
		성장률	74.0	173.1	-77.3	303.0	98.2	140.9
		구성비	-	-	-	-	-	-
	기 타*	금 액	3	3	14	7	6	20
		성장률	-64.2	-8.5	-28.3	52.4	45.1	647.4
		구성비	-	-	-	-	-	-
합 계	금 액	168,476	162,267	685,004	173,931	190,699	186,549	
	성장률	-8.9	-13.4	-6.4	-1.3	6.7	10.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생명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기타는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의 실적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09 3/4분기말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유가증권을 제외한 주요 자산 종목들의 보유액 감소로 전분기와 비슷한 315조 5,902억엔을 시현함.

- 운용자산 규모는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했으나, FY2009 1/4분기 이후 증가율 하락세가 지속됨.
- 유가증권 규모는 국채 및 외화증권의 가치 상승으로 전분기대비 0.9% 증가함.
- 대출금 규모는 일반 대출의 감소로 1.2% 축소됨.

<표 2> 일본 생명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1/4		2/4		3/4	
	금액	비중								
현금 및 예금	43,055	1.4	50,268	1.6	38,250	1.2	47,499	1.5	38,597	1.2
단기자금	35,480	1.1	27,807	0.9	27,602	0.9	25,502	0.8	25,211	0.8
매입금전채권	41,894	1.3	33,662	1.1	32,425	1.0	32,035	1.0	31,726	1.0
금전신탁	29,501	0.9	25,888	0.8	27,085	0.9	27,164	0.9	24,131	0.8
유가증권	2,318,383	73.5	2,302,089	73.9	2,358,325	74.9	2,383,830	75.5	2,406,334	76.2
- 국채	1,207,632	38.3	1,238,910	39.7	1,234,172	39.2	1,238,690	39.2	1,250,472	39.6
- 지방채	94,965	3.0	98,160	3.1	101,358	3.2	103,181	3.3	106,731	3.4
- 사채	280,192	8.9	274,568	8.8	274,146	8.7	273,613	8.7	271,512	8.6
- 주식	164,802	5.2	156,319	5.0	182,101	5.8	184,445	5.8	180,283	5.7
- 외화증권	420,944	13.3	400,362	12.8	414,305	13.2	423,646	13.4	431,720	13.7
대출금	521,169	16.5	511,181	16.4	505,579	16.1	491,933	15.6	486,072	15.4
유형 고정자산	66,455	2.1	66,038	2.1	66,794	2.1	67,392	2.1	66,510	2.1
운용자산	3,064,651	97.2	3,028,928	97.2	3,066,225	97.4	3,084,342	97.7	3,085,527	97.8
총자산	3,154,007	100.0	3,117,200	100.0	3,146,548	100.0	3,156,769	100.0	3,155,902	100.0

-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비중은 총자산 대비임.
 2) 운용자산은 상기 주요자산,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등의 합계임.
 3) 총자산은 운용자산과 유형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 등의 합계임.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생명보험협회

나. 손해보험

<보험료 현황>

□ FY2009 3/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의 감소세 둔화와 화재보험 및 특종보험의 성장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한 1조 9,771억엔을 시현함.

○ 상해보험과 해상보험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2%, 19.4% 감소한 반면, 화재보험은 일반화재 및 지진보험의 실적 호조로 4.1% 증가율을 보임.

<표 3> 일본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화재	보험료	3,740	3,515	14,023	3,398	3,292	3,895
	성장률	1.6	0.6	0.0	-0.5	-1.8	4.1
	구성비	19.0	18.7	17.6	16.8	17.4	19.7
해상	보험료	555	457	2,295	479	447	448
	성장률	-9.4	-26.7	-7.4	-25.6	-29.9	-19.4
	구성비	2.8	2.4	2.9	2.4	2.4	2.3
운송	보험료	174	160	692	171	149	156
	성장률	-0.6	-6.9	-0.8	-10.6	-10.3	-10.5
	구성비	0.9	0.8	0.9	0.8	0.8	0.8
자동차	보험료	8,687	8,443	34,475	8,772	8,314	8,615
	성장률	-1.5	-1.5	-1.4	-1.8	-1.1	-0.8
	구성비	44.1	44.8	43.2	43.5	43.9	43.6
상해	보험료	2,607	2,312	11,099	2,733	2,597	2,577
	성장률	-16.2	-14.0	-7.9	-8.6	-18.6	-1.2
	구성비	13.2	12.3	13.9	13.5	13.7	13.0
특종	보험료	1,981	2,056	8,534	2,512	2,180	2,075
	성장률	3.8	1.0	3.0	6.5	2.0	4.7
	구성비	10.1	10.9	10.7	12.5	11.5	10.5
자배책	보험료	1,934	1,890	8,684	2,108	1,971	2,006
	성장률	-31.2	0.3	-16.6	-27.3	0.5	3.7
	구성비	9.8	10.0	10.9	10.4	10.4	10.1
합계	보험료	19,679	18,834	79,801	20,173	18,950	19,771
	성장률	-6.8	-3.2	-3.7	-5.9	-4.6	0.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료, 신종보험을 각각 원수보험료,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 전체 손해보험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 43.6%, 자동차배상책임보험 : 10.1%) 부문은 그 동안의 침체에서 다소 벗어나는 양상임.
 - 경기불황과 2009년 초 회사별로 순차적으로 단행된 자동차보험 요율의 인하효과 지속으로 자동차보험 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량 판매가 소폭 증가하면서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함.
 - 종합보험 성격의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0.8% 감소해 분기치로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감소율을 기록함.
- 특종보험은 배상책임보험 및 신용보험의 매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함.

<지급보험금 현황>

- FY2009 3/4분기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특종보험의 보험금 지급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0.8% 줄어든 1조 1,064억엔을 시현함.
 - 선박보험 관련 지급보험금 급증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증가한 해상보험을 제외하고 화재보험, 운송보험, 상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각각 0.4%, 16.8%, 0.6% 감소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전체 보험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했으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2.5% 감소함.
 - 특종보험은 주요 종목인 배상책임보험과 동산종합보험²⁾의 지급보험금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6.8, 19.1%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6.2%의 감소율을 시현함.
 - 최근 증가세를 보이던 보증보험, 노동자재해보험, 기계보험이 감소세로 전환(전년동기대비 각각 31.3%, 4.7%, 39.5% 감소)된 것도 특종보험의 보험금 감소를 가속시키고 있음.

2)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개인 또는 기업의 동산에 생긴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종합보험을 말함.

<표 4> 일본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연간	1/4	2/4	3/4
화재	보험금	1,077	1,069	3,979	822	863	1,073
	증가율	5.1	14.1	0.1	-5.6	-10.4	-0.4
	구성비	9.7	9.3	9.1	7.8	7.9	9.7
해상	보험금	312	325	1,145	243	279	332
	증가율	19.7	5.2	4.3	1.2	4.1	6.2
	구성비	2.8	2.8	2.6	2.3	2.6	3.0
운송	보험금	74	68	291	64	64	62
	증가율	-8.4	-10.6	-4.3	-3.5	-22.3	-16.8
	구성비	0.7	0.6	0.7	0.6	0.6	0.6
자동차	보험금	5,574	5,515	21,559	5,196	5,263	5,614
	증가율	-0.5	-0.7	0.4	-0.2	0.0	0.7
	구성비	50.0	48.0	49.2	49.6	48.5	50.7
상해	보험금	908	831	3,430	861	861	902
	증가율	5.2	1.3	6.0	3.0	0.6	-0.6
	구성비	8.1	7.2	7.8	8.2	7.9	8.2
특종	보험금	1,200	1,679	5,305	1,321	1,571	1,126
	증가율	-8.0	48.2	19.1	18.2	20.1	-6.2
	구성비	10.8	14.6	12.1	12.6	14.5	10.2
자배책	보험금	2,006	2,009	8,077	1,976	1,962	1,955
	증가율	-4.3	-3.3	-2.0	-3.3	-2.8	-2.5
	구성비	18.0	17.5	18.4	18.8	18.1	17.7
합계	보험금	11,151	11,497	43,787	10,483	10,862	11,064
	증가율	-0.7	5.4	2.3	1.0	1.0	-0.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구성비는 손해보험 전체 실적 대비임.

3) 일본의 원수정미보험금, 신종보험을 각각 지급보험금, 특종보험으로 의역함.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자산 현황>

□ FY2009 3/4분기말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주식 및 외화증권 보유액이 늘어나 전분기대비 0.7% 증가한 31조 1,713억엔을 시현함.

○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채권 규모는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주식시장 호전에 힘입어 주식 및 외화증권 규모는 각각 0.9%, 1.3% 확대됨.

○ 대출금 규모는 일반대출의 감소세 둔화에 힘입어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

<표 5> 일본 손해보험회사 주요 자산 현황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엔, %)

구 분	FY2008				FY2009						
	3/4		4/4		1/4		2/4		3/4		
	금액	비중									
현금 및 예금	6,747	2.2	8,896	3.0	7,365	2.4	8,297	2.7	7,324	2.3	
단기자금	5,609	1.8	5,775	1.9	3,282	1.1	3,847	1.2	3,632	1.2	
현선거래자금	1,784	0.6	4,149	1.4	4,354	1.4	2,569	0.8	2,810	0.9	
채권대차거래지불보증금	1,508	0.5	-	-	-	-	-	-	500	0.2	
매입금전채권	3,740	1.2	4,048	1.4	8,861	2.9	9,163	3.0	12,133	3.9	
금전신탁	1,273	0.4	953	0.3	1,053	0.3	1,110	0.4	1,137	0.4	
유 가 증 권	국채	44,855	14.7	43,936	14.7	47,378	15.3	49,307	15.9	48,392	15.5
	지방채	6,966	2.3	6,548	2.2	6,305	2.0	6,293	2.0	6,286	2.0
	회사채	40,189	13.2	39,153	13.1	38,984	12.6	39,109	12.6	38,660	12.4
	주식	65,369	21.5	61,469	20.5	72,367	23.3	70,886	22.9	71,539	23.0
	외화증권	50,541	16.6	48,687	16.3	50,184	16.2	50,143	16.2	50,795	16.3
	기타증권	5,505	1.8	4,875	1.6	4,861	1.6	4,510	1.5	4,516	1.4
	소계	213,427	70.2	204,668	68.4	220,080	70.9	220,248	71.1	220,188	70.6
대 출 금	약관대출	697	0.2	688	0.2	684	0.2	678	0.2	662	0.2
	일반대출	25,985	8.5	24,818	8.3	24,500	7.9	24,028	7.8	23,819	7.6
	소계	26,683	8.8	25,506	8.5	25,184	8.1	24,707	8.0	24,481	7.9
부동산	11,208	3.7	11,173	3.7	11,120	3.6	11,212	3.6	11,042	3.5	
운용자산	271,978	89.4	265,168	88.6	281,299	90.6	281,154	90.8	283,246	90.9	
기타자산	32,168	10.6	34,243	11.4	29,285	9.4	28,427	9.2	28,466	9.1	
총자산	304,147	100.0	299,411	100.0	310,585	100.0	309,582	100.0	311,713	100.0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 말에 대한 누적 잔액이며, 비중은 총자산 대비임.

2) 기타자산은 현금, 건설 중인 자산, 유·무형고정자산, 대리점비용, 재보험비용, 이연세금 자산, 지불승낙담보 등을 말함.

3)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일본손해보험협회

■ 조사 개요 및 출처

- 일본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일본생명보험협회(www.seiho.or.jp)와 일본손해보험협회(www.sonpo.or.jp)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매월/분기에 공개되는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생명보험은 신계약종목별통계표(新契約種類別統計表)의 신규계약액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생명보험사업개황(生命保險事業概況) 중 주요자산운용현황(主要資産運用狀況) 통계를 분석함.
 - 손해보험은 종목별통계표(種目別統計表)의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와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및 지급보험금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자산 현황은 손해보험회사자금운용상황표(損害保險會社總合資金運用狀況一覽表)를 이용하여 분석함.
- 생명보험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험과 단체정보보험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개인정보보험은 개인보험(個人保險)과 개인연금보험(個人年金保險)으로, 단체정보보험은 단체보험(團體保險), 단체연금보험(團體年金保險), 재형보험(財形保險), 재형연금보험(財形年金保險), 의료보장보험(醫療保障保險), 취업불능보험(就業不能保障保險)으로 분류함.
 - 단체정보보험 중 실적이 미미한 재형보험, 재형연금보험, 의료보장보험, 취업불능보험은 기타로 분류함.
- 일본식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원수정미보험료(元受正味保險料)	원수보험료
원수정미보험금(元受正味保險金)	지급보험금
신종보험(新種保險)	특종보험

◆ 중국 동향1)

가. 주요 경영지표

〈수입보험료 현황〉

- 2009년 4/4분기(10~12월)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38.6% 급증한 2,557억 위안을 기록함.
 -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중국정부의 내수경기 부양책에 따른 차량판매 증가로 손해보험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이 호조를 보인데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29.3% 증가한 642억 위안을 시현함.
 - 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주력 종목인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의 고성장으로 1,915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42.1% 급증함.
 - 5분기 만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시현한 생명보험은 사망보험 및 생사혼합보험의 매출 호조와 주식시장 회복으로 만능형보험(유니버설보험)과 같은 투자연계형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함.
 - 건강보험은 질병보험 및 의료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해 전년 동기대비 32.2% 성장함.
- 2009년 보험산업 전체 수입보험료는 금융위기 여파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시현하며 전년대비 13.8% 증가한 1조 1,137억 위안을 기록해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섬.
 - 손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주력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지속적인 매출 호조세와 농업보험, 신용보험, 프로젝트보험 등의 양호한 성장(전년대비 각각 21.0%, 91.3%, 31.6% 성장)세에 힘입어 23.1%의 견조한 성장률을 시현함.
 - 인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건강보험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이 고성장하며 8,261억 위안을 시현해 전년대비 10.9% 성장함.

1) 중국 보험시장의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해외보험시장 동향

- 생명보험의 주력 종목인 사망보험과 생존보험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이 회복된 작년 하반기 이후 판매가 증가하기 시작한 투자연계형 상품의 호조세가 인보험 성장을 주도함.

<표 1>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8		C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료	496	2,337	719	793	722	642	2,876
	성장률	11.2	17.0	12.0	20.6	33.4	29.3	23.1
인보험	보험료	1,348	7,447	2,558	1,916	1,872	1,915	8,261
	성장률	6.9	47.8	9.4	-3.3	5.1	42.1	10.9
- 생명보험	보험료	1,202	6,658	2,359	1,701	1,663	1,734	7,457
	성장률	7.7	49.2	10.7	-1.6	4.2	44.2	12.0
- 건강보험	보험료	103	585	140	154	143	136	574
	성장률	-1.0	52.4	-7.2	-22.6	8.4	32.2	-2.0
- 상해보험	보험료	43	204	59	61	66	45	230
	성장률	4.3	7.1	5.6	15.0	25.6	4.8	13.0
합계	보험료	1,844	9,784	3,277	2,709	2,594	2,557	11,137
	성장률	8.0	39.1	10.0	2.7	11.7	38.6	13.8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외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지급보험금 현황>

□ 2009년 4/4분기 보험산업 전체 지급보험금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3% 증가한 783억 위안으로 집계됨.

-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전년동기대비 5.1% 증가해 2001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함.

- 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함.

□ 2009년 보험산업 전체 지급보험금 규모는 인보험 부문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에 머

물렸으나 손해보험 부문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5.2% 증가함.

- 손해보험의 지급보험금은 자연재해 및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관련 보험금 지급이 소폭 증대된 영향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함.
- 연간 증가율로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임.
- 인보험의 지급보험금은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이 전년대비 각각 23.8%, 2.2% 증가했으나, 생명보험에서 3.5%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0.2% 감소함.

<표 2> 중국 보험산업 지급보험금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8		C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손해보험	보험금	437 1,418	351 363	402 459	1,576			
	증가율	36.4 39.0	21.7 7.7	13.1 5.1	11.1			
인보험	보험금	307 1,553	472 421	332 324	1,550			
	증가율	1.8 24.8	-15.0 16.2	1.3 5.5	-0.2			
- 생명보험	보험금	240 1,315	403 355	258 253	1,269			
	증가율	-4.4 23.5	-20.1 16.4	-3.1 5.5	-3.5			
- 건강보험	보험금	50 175	54 52	56 55	217			
	증가율	51.2 50.0	56.9 12.8	26.0 9.2	23.8			
- 상해보험	보험금	17 63	15 15	17 16	64			
	증가율	-3.4 -1.4	-9.2 24.3	4.6 -4.9	2.2			
합계	보험금	744 2,971	824 784	734 783	3,125			
	증가율	19.6 31.2	-2.4 12.1	7.5 5.3	5.2			

-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재산보험, 인신보험, 인수보험, 외외상해보험을 각각 손해보험, 인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으로 의역함.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요 경영실적>

- 2009년 4/4분기 전체 보험산업의 총수입보험료와 사업비는 2,557억위안, 386억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38.6%, 18.0% 증가함.
 - 총수입보험료 증가율 38.6%는 2008년 3/4분기에 44.2%를 기록한 이후 최대 성장폭임.
 - 사업비는 수입보험료의 규모 확대로 전년대비 18.0% 증가율을 보임.
- 2009년 보험산업의 총수입보험료와 사업비는 전년대비 각각 13.8%, 14.3% 증가함.
 - 총수입보험료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업계의 비용 절감 노력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 등 업계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비는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인 24.8% 보다 크게 낮은 14.3% 증가에 그침.
- 2009년 4/4분기말 보험산업의 총자산 규모는 은행 예치금 및 투자자산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7.3% 증가한 4조 635억 위안에 달함.

<표 3> 중국 보험산업 주요 경영실적 현황

(단위 : 억 위안, %)

구 분	CY2008		C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총수입보험료	보험료	1,844 9,784	3,277	2,709	2,594	2,557	11,137
	증가율	8.0 39.1	10.0	2.7	11.7	38.6	13.8
사업비	금 액	327 1,080	262	281	305	386	1,234
	증가율	7.5 13.9	11.5	9.2	17.4	18.0	14.3
예치금	금 액	8,088 8,088	10,005	10,445	10,058	10,520	10,520
	증가율	14.9 24.1	23.7	4.4	-3.7	4.6	30.1
투자금	금 액	22,465 22,465	22,178	23,280	24,232	26,897	26,897
	증가율	3.4 11.2	-1.3	5.0	4.1	11.0	19.7
총자산	금 액	33,418 33,418	35,435	37,072	37,880	40,635	40,635
	증가율	4.9 15.2	6.0	4.6	2.2	7.3	21.6

주 : 1) 총수입보험료 및 사업비는 실적치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은 누적치임.
 2) 총수입보험료, 사업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이며, 예치금, 투자금, 총자산 증가율은 전분기대비임.
 3)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4)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전분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며 주춤하던 은행 예치금 규모는 전분기대비 4.6% 증대됨.
-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투자 여건 개선에 힘입어 채권, 주식 등으로 구성된 투자금 규모 또한 전분기대비 각각 11.0% 증가해 최근 2년간 최대 증가폭을 시현함.
 - 200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자산의 투자 대상 확대 정책과 주식시장 회복 등에 힘입어 투자금 규모가 크게 증대된 것으로 파악됨.

나. 지역별 및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지역별 시장점유율>

- 2009년 4/4분기 지역별 수입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광동성이 손해보험과 인보험 부문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한 데 힘입어 8.7%의 점유율로 수위를 차지함.
 - 광동성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선전을 중심으로 광저우, 동관, 후먼 등의 경제 활동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49.7% 급증하며 사천성, 하남성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손해보험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뎠던 인보험 부문의 경우, 높은 경제성장률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인해 금융위기 여파로 위축된 보험수요가 회복되면서 북경시에 이어 가장 높은 66.6%의 성장률을 보임.
 - 강소성과 북경시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5.2%, 49.7% 성장해 광동성에 이어 2위, 3위 시장의 지위를 유지함.
- 2009년 연간 기준으로 지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보험시장인 광동성이 전년 대비 0.4%p 하락한 반면, 2위와 3위 시장인 강소성과 북경시의 점유율은 8.2%, 6.3%로 각각 0.3%p씩 증가함.
 - 광동성은 손해보험이 전년 대비 15.1% 성장했으나, 인보험에서 비교적 낮은 6.5% 성장률을 기록하는데 그쳐 점유율이 감소함.
 - 이에 비해 강소성과 북경시는 손해보험과 인보험 모두 고른 성장에 힘입어 점유율이 소폭 상승함.

<표 4> 중국 지역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억 위안, %)

구 분	CY2008				C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보험료	점유율
북경	125	6.8	586	6.0	169	5.2	173	6.4	169	6.5	186	7.8	698	6.5
천진	28	1.5	176	1.8	42	1.3	38	1.4	35	1.4	36	1.4	151	1.3
하북	89	4.8	481	4.9	177	5.4	160	5.9	135	5.2	129	5.5	601	5.7
료닝	57	3.1	329	3.4	95	2.9	86	3.2	85	3.3	79	3.4	345	3.1
대련	21	1.1	107	1.1	33	1.0	28	1.0	26	1.0	29	1.2	116	1.0
상해	119	6.4	600	6.1	201	6.1	150	5.5	149	5.7	165	6.6	665	6.2
강소	142	7.7	775	7.9	315	9.6	199	7.3	202	7.8	192	7.1	908	8.2
절강	93	5.1	489	5.0	153	4.7	136	5.0	128	4.9	121	3.8	538	4.1
영과	19	1.0	87	0.9	29	0.9	27	1.0	27	1.0	26	0.7	107	0.7
복건	43	2.4	244	2.5	87	2.6	68	2.5	62	2.4	55	2.1	272	2.4
하문	9	0.5	47	0.5	17	0.5	14	0.5	14	0.5	13	0.4	58	0.5
산둥	113	6.1	571	5.8	178	5.4	177	6.5	168	6.5	154	6.1	678	6.1
칭도	21	1.2	103	1.0	30	0.9	30	1.1	27	1.0	28	1.0	115	1.0
광둥	148	8.0	884	9.0	284	8.7	220	8.1	234	9.0	222	8.5	960	8.7
심천	53	2.9	241	2.5	73	2.2	67	2.5	61	2.4	70	2.4	272	2.1
해남	5	0.3	30	0.3	9	0.3	9	0.3	7	0.3	8	0.3	33	0.3
산서	45	2.4	261	2.7	88	2.7	73	2.7	69	2.7	60	2.4	289	2.7
길림	29	1.6	159	1.6	52	1.6	52	1.9	44	1.7	38	1.7	185	1.7
흑룡강	48	2.6	251	2.6	88	2.7	78	2.9	59	2.3	53	2.3	278	2.7
안휘	55	3.0	297	3.0	127	3.9	76	2.8	76	2.9	79	3.1	357	3.3
강서	30	1.6	171	1.8	65	2.0	43	1.6	41	1.6	39	1.6	187	1.7
하남	91	4.9	519	5.3	155	4.7	137	5.1	137	5.3	137	6.1	565	5.7
호북	61	3.3	317	3.2	110	3.4	90	3.3	86	3.3	86	3.8	372	3.7
호남	62	3.4	312	3.2	104	3.2	87	3.2	81	3.1	76	3.2	348	3.3
중경	37	2.0	201	2.0	79	2.4	56	2.1	56	2.1	53	2.2	245	2.4
사천	96	5.2	494	5.1	175	5.3	123	4.5	137	5.3	144	5.4	579	5.2
귀주	16	0.9	80	0.8	25	0.8	24	0.9	24	0.9	22	0.8	95	0.7
운남	33	1.8	165	1.7	57	1.7	44	1.6	41	1.6	39	1.2	180	1.4
티벳	1	0.0	3	0.0	1	0.0	1	0.0	1	0.0	1	0.0	4	0.0
섬서	44	2.4	218	2.2	73	2.2	66	2.4	59	2.3	62	2.6	260	2.4
감숙	22	1.2	97	1.0	34	1.0	29	1.1	25	1.0	26	1.1	114	1.1
칭해	3	0.2	14	0.1	5	0.1	5	0.2	4	0.2	4	0.1	18	0.1
영하	7	0.4	32	0.3	11	0.3	11	0.4	9	0.4	9	0.3	39	0.3
신강	26	1.4	153	1.6	41	1.3	50	1.8	32	1.2	34	1.4	157	1.3
내몽고	28	1.5	141	1.4	43	1.3	45	1.7	48	1.9	35	1.3	171	1.3
광서	24	1.3	133	1.4	48	1.4	36	1.3	34	1.3	31	1.1	149	1.2
그룹본사	3	0.2	15	0.2	4	0.1	3	0.1	2	0.1	17	0.0	25	0.0
합계	1,844	100.0	9,784	100.0	3,277	100.0	2,709	100.0	2,594	100.0	2,557	100.0	11,137	100.0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이며, 그룹본사는 특정 지역에 귀속되지 않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 2009년 4/4분기 인보험 수입보험료에 대한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했으나, 중소형사 및 외자계는 지난 분기에 이어 소폭 증가함.
 -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74.2%로 전년동기대비 2.9%p 감소함.
 - 3~5위권 회사인 타이핑양생명, 타이강생명, 신화생명의 시장점유율은 소폭 상승한 반면, 최대 인보험회사인 중국생명과 2위사인 평안생명이 경쟁사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성장을 시현하며 전년동기대비 각각 4.8, 2.6%p 하락함.
 - 반면, 중소형사와 외자계의 시장점유율은 19.5%, 6.3%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6%p, 0.3%p 확대됨.
 - 가장 큰 외자계 인보험회사인 AIA(友邦保險)의 수입보험료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6.9% 성장하는데 그쳐 시장점유율이 0.2%p 감소함.
- 2009년 인보험 부문의 회사별 시장점유율 역시 중소형사 및 외자계는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함.
 - 2~5위권 회사들은 전년대비 모두 플러스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1위사인 중국생명이 마이너스 성장함에 따라 상위 5개사 전체 시장점유율은 1.3%p 하락함.
 - 중국생명은 전년대비 4.1%p 하락한 36.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40%를 하회함.
 - 2위사인 평안보험(2009년 시장점유율 16.2%)은 타사대비 높은 이율과 막강한 판매 조직을 바탕으로 배당형 및 만능형보험을 중심으로 한 투자연계형 상품 판매에 주력한 결과 상위 5개사 중 가장 높은 30.8%의 성장률을 시현함.
- 2009년 4/4분기 손해보험 부문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했으나, 중소형사 및 외자계는 소폭 감소함.
 -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0.4%p 확대되어 61.5%를 차지함.
 - 1위사인 중국인민재산보험과 3위사인 타이핑양재산보험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5%p, 0.1%p 하락한 반면, 2위사인 평안재산보험은 3.0%p 확대됨.

- 중소형사 및 외자계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3%p, 0.1%p 감소하여 37.3%, 1.2%를 차지함.
- 외자계 1, 2위사인 차티스(美亞財産, AIG에서 개명)와 도쿄해상의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0.1%p씩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음.
- 2009년 손해보험의 회사별 시장점유율도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반면, 중소형사와 외자계는 감소세를 지속함.
- 인보험의 중국생명과 마찬가지로 매년 4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던 중국인민재산보험이 전년대비 1.9% 마이너스 성장하며 처음으로 39.9%의 점유율을 보임.
- 특히, 타이핑양재산보험에 이어 3위사인 평안재산보험은 자동차보험의 실적 호전 등에 힘입어 12.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며 타이핑양보험을 제치고 2위사로 올라섬.

<표 5> 중국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구 분			CY2008		C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인보험	중국계	상위 5개사	77.1	78.5	80.2	77.2	76.2	74.2	77.2
		중소형사	16.9	16.5	15.3	17.8	18.6	19.5	17.6
		소계	94.0	95.1	95.4	95.0	94.7	93.7	94.8
	외자계	6.0	4.9	4.6	5.0	5.3	6.3	5.2	
손해보험	중국계	상위 3개사	61.1	63.9	67.3	64.8	62.8	61.5	64.2
		중소형사	37.6	35.0	31.6	34.2	36.2	37.3	34.7
		소계	98.7	98.8	98.9	99.0	99.0	98.8	98.9
	외자계	1.3	1.2	1.1	1.0	1.0	1.2	1.1	

주 : 1) 기간별 점유율은 해당기간에 대한 수치임.

2) 인보험의 상위 5개사는 중소형사와 현격한 점유율 차이가 나는 회사들로 중국생명(CY09 4/4분기 기준 30.5%), 평안생명(15.3%), 신화생명(9.3%), 타이핑양생명(8.8%), 타이강생명(10.3%) 등임.

3) 손해보험의 상위 3개사는 중소형사와 현격한 점유율 차이가 나는 회사들로 중국인민재산(CY09 4/4분기 기준 35.9%), 평안재산(14.7%), 타이핑양재산(11.0%) 등임.

4) 중소형사는 상위사와 외자계를 제외한 보험회사들임.

5) 위 수치는 각 회사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감사를 거치지 않음.

6) 연말 최종 집계되는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자료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통계 자료를 편집

■ 조사 개요 및 출처

- 중국 보험산업은 크게 생명보험에 해당하는 인보험(人身保險)과 손해보험에 해당하는 재산보험(財產保險)으로 구분되는데, 중국 보험산업을 감독하는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www.circ.gov.cn)에서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월별 누적 통계(raw data)를 분기별로 전환해 분석함.
 - 수입보험료, 지급보험금 및 주요 경영실적 등 경영지표 분석을 위해 보험산업경영현황표(保險業經營情況表)를 사용함.
 - 지역별 시장점유율 분석은 전국수입보험료현황표(全國各地區保費收入情況表)의 통계를 활용함.
 - 또한 인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人身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와 손해보험회사수입보험료현황표(財產保險公司保費收入情況表)의 통계로 회사그룹별 시장점유율 분석을 시도함.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중국보험연감> 분류 기준에 근거해 인보험을 상해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으로 분류해 기술함.
 - 생명보험은 신종보험인 투자연동형보험, 만능형보험(변액, 유니버셜), 배당형보험과 저축성 위주의 전통생명보험으로 분류함.
- 중국 보험용어를 편의상 우리 용어로 의역함.

변경 전	변경 후
재산보험(財產保險)	손해보험
인신보험(人身保險)	인보험
인수보험(人壽保險)	생명보험
의외상해보험(人身意外傷害保險)	상해보험

- 실적치는 보험회사들이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속보 자료로, 연말에 최종 집계되는 데이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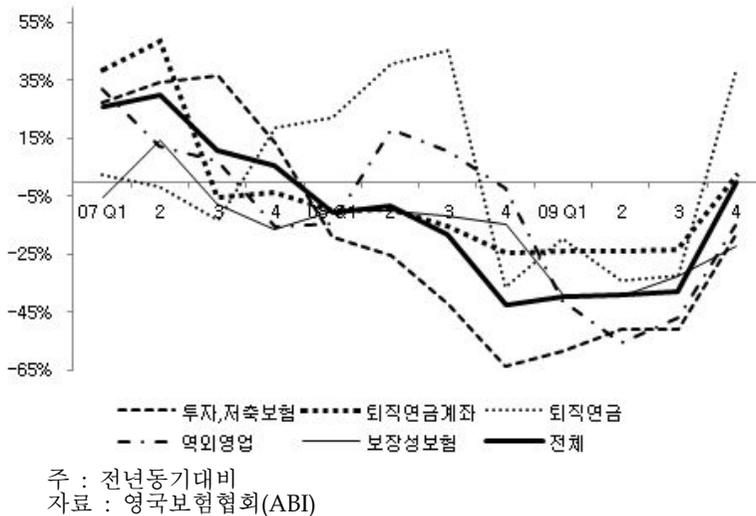
◆ 유럽 동향1)

가. 영국의 생명보험시장

〈생명보험 신규보험료²⁾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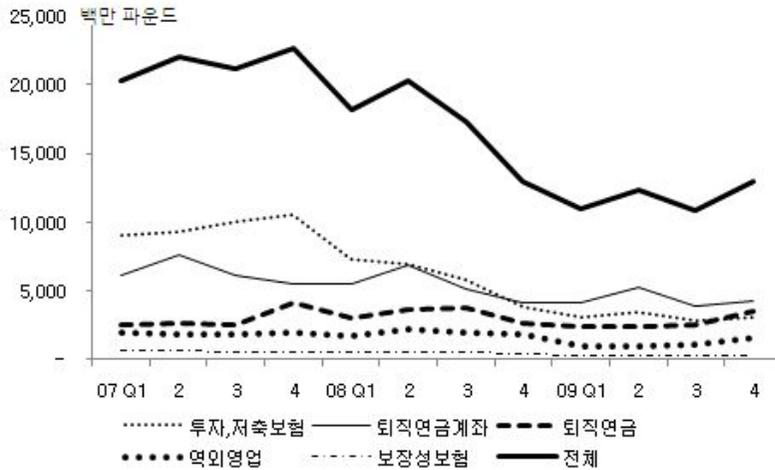
- 2009년 4/4분기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0.4% 감소함으로써 감소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회복의 조짐을 보임.
- 퇴직연금과 퇴직연금계좌의 신규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27.7%, 1.8% 증가하고, 전체 신규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7.6%p, 0.7%p 증가함으로써 4/4분기 신규보험료의 감소세가 둔화됨.
- 2009년 연간 신규보험료는 4/4분기 신규보험료의 전분기대비 반등(19.7%)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3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임.

〈그림 1〉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증감률



- 1) 유럽 보험시장 동향은 영국과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 통계 및 용어에 관한 설명은 뒤의 조사 개요 및 출처를 참고
- 2) 영국의 생명보험 신규보험료는 2009년 실질가격으로 조정됨.

<그림 2> 영국 생명보험 신규보험료 추이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 2009년 신규보험료는 2008년에 비해 모든 종목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투자·저축보험은 48.3% 감소하여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고, 비중이 적은 역외영업(-40.4%)과 보장성보험(-33.9%)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퇴직연금계좌와 퇴직연금 역시 2008년에 비해 각각 19.0%, 15.9% 감소하였으나, 비중은 각각 5.8%p, 4.3%p 증가하여 전체 신규보험료에서 60.6%를 차지하는 등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종목별 신규보험료>

- 투자·저축보험의 일시납보험료³⁾는 2009년 4/4분기 중 경기침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도입, 개별저축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혜택 확대 등에 영향을 받아 전년동기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4/4분기 중 투자·저축보험의 일시납보험료는 확정형채권(Guaranteed Bonds)과 유배당채권(With-Profit Bonds)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83%, 42% 감소하면서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일시납 투자·저축보험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2009년 3/4분기 기준)임.

- 채권판매는 경기침체 및 자본이득세의 도입으로 인해 감소하였는데, 특히 최근 50세 이상 연령자의 개별저축계좌 상한금액 확대는 저축상품 수요를 증가시키고 투자채권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됨.

<표 1> 영국 생명보험 종목별 신규보험료 추이

(단위 : 백만 파운드, %)

		CY2008		C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투자 및 저축보험	보험료	3,838	24,179	3,067	3,433	2,887	3,122	12,510
	증가율	-63.5%	-37.7%	-58.6%	-51.2%	-51.0%	-18.7%	-48.3%
	구성비	29.6%	35.0%	27.8%	27.7%	26.7%	24.1%	26.5%
퇴직연금계좌	보험료	4,167	21,759	4,184	5,234	3,955	4,244	17,616
	증가율	-24.8%	-14.4%	-24.3%	-24.1%	-23.6%	1.8%	-19.0%
	구성비	32.1%	31.5%	37.9%	42.2%	36.6%	32.8%	37.3%
퇴직연금	보험료	2,605	13,085	2,439	2,431	2,542	3,588	11,000
	증가율	-36.7%	10.8%	-19.9%	-34.1%	-32.1%	37.7%	-15.9%
	구성비	20.1%	19.0%	22.1%	19.6%	23.5%	27.7%	23.3%
역외영업	보험료	1,902	7,796	1,010	961	1,062	1,616	4,648
	증가율	-2.4%	2.4%	-41.4%	-55.8%	-46.9%	-15.1%	-40.4%
	구성비	14.6%	11.3%	9.1%	7.7%	9.8%	12.5%	9.8%
보장성보험	보험료	472	2,167	346	354	366	367	1,432
	증가율	-14.5%	-11.6%	-38.9%	-39.7%	-32.6%	-22.4%	-33.9%
	구성비	3.6%	3.1%	3.1%	2.9%	3.4%	2.8%	3.0%
합계	보험료	12,983	68,986	11,043	12,411	10,811	12,936	47,205
	증가율	-42.7%	-19.9%	-39.6%	-39.1%	-37.7%	-0.4%	-31.6%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 2009년 4/4분기 퇴직연금계좌⁴⁾의 신규보험료는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임.

4) 일시납 퇴직연금계좌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2009년 3/4분기 기준)임.

- 4/4분기 퇴직연금계좌는 전분기대비 7.3% 증가하고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부 보험회사의 대규모 단체 퇴직연금계좌 인수 성공이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 한편, 2009년 전체 퇴직연금계좌는 전년대비 19.0% 감소하였으나, 계약이전과 DWP 리베이트⁵⁾를 제외한 신규 유입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하는 등 견조세를 보임.
- 4/4분기 퇴직연금⁶⁾은 DB형, DC형 및 맞춤형 퇴직연금의 판매호조에 힘입어 전분기 및 전년동기대비 대폭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를 보임.
- 4/4분기 퇴직연금은 Bulk Buyouts⁷⁾, DC형 퇴직연금, TIPS⁸⁾의 판매 증가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41.1% 증가하고, 전년동기대비 37.7% 증가함.
- 전체 신규보험료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역외영업(12.0%)과 보장성보험(2.9%)은 4/4분기 중 전분기대비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감소세를 시현함으로써 여전히 부진한 모습임.
- 주로 채권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역외영업은 4/4분기 중에는 pooled personal bond⁹⁾의 판매 증가로 전분기대비 52.2% 증가했으나, 2009년에는 경기침체에 크게 영향을 받아 전년동기대비 15.1% 감소함.
- 보장성보험¹⁰⁾은 대출보증신용보험(collective life)의 보험료가 증가하여 전분기대비 0.3%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 기준으로는 22.4% 감소하여 부진한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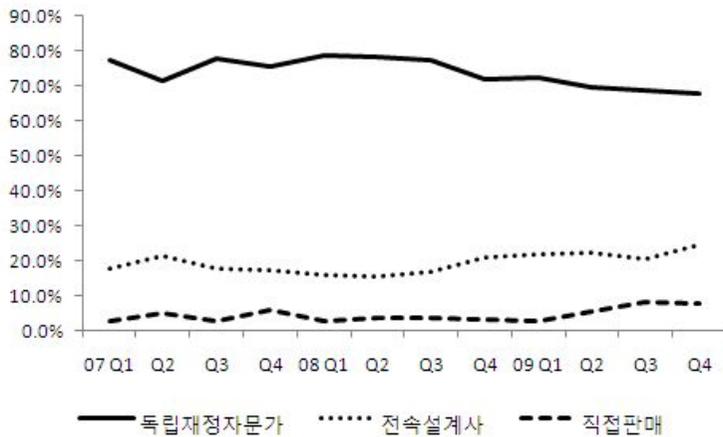
<판매채널별 신규보험료>

- 2009년 4/4분기 중 전속설계사 판매는 전분기대비 증가하였으나, 직접판매와 독립 재정자문가¹¹⁾ 판매는 퇴직연금 판매 감소로 감소세를 보임.

5)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DWP)에 의해서 지급되는 개인연금
 6) 일시납 퇴직연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2%(2009년 3/4분기 기준)임.
 7) DB형 퇴직연금의 관리 책임을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연금 구입
 8) Trustee Investment Plans: 맞춤형 퇴직연금
 9) Mutual fund, 투자신탁, Unit Trusts 등과 같은 공동투자 채권
 10) 분할납 보장성보험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2%(2009년 3/4분기 기준)임.
 11)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s(IFA)

- 전속설계사 판매는 2009년 4/4분기 중 24.7%를 차지하여 전분기(20.5%) 보다 증가하였고, 전년동기(20.9%)에 비해서도 크게 증가함.
 - 전속설계사 판매가 증가한 종목은 퇴직연금계좌와 퇴직연금으로서 이들 종목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4분기 중 각각 17.1%, 10.2%에서 4/4분기 중 19.5%, 21.8%로 크게 증가함.
- 독립재정자문가 판매는 2009년 4/4분기 중 67.7%로서, 전분기(68.9%)보다는 소폭 하락하였고, 전년동기(71.9%)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모습임.
 - 독립재정자문가의 판매가 크게 감소한 종목은 퇴직연금으로서 2009년 3/4분기의 71.6%에서 2009년 4/4분기의 54.7%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직접판매는 2009년 4/4분기 중 퇴직연금과 보장성보험의 판매 감소로 전분기보다 소폭(-0.5%p) 둔화된 7.7%를 시현했으나, 전년동기(3.4%)에 비해서는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방카슈랑스¹²⁾ 판매는 2009년 4/4분기 중 역외영업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감소함으로써 전분기대비 2.3%p 감소한 1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판매채널별 신규보험료 비중 추이



자료 : 영국보험협회(ABI)

12) 방카슈랑스 판매는 각 채널(전속설계사, 직접판매, 독립재정자문가)에서 분산 판매되는 수치를 합한 통계임.

나. 이탈리아

<생명보험>

- 2009년 4/4분기 이탈리아의 생명보험 신계약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94.8% 상승한 191.5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연간 실적으로는 전년대비 52.2% 상승한 633.6억 유로를 시현해 2008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반전됨.
- 2009년 4/4분기 연납 및 분할납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각각 3.3%, 8.5% 감소한 반면, 일시납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6.9% 증가함.
- 2009년 연간 실적으로는 연납 및 일시납의 신계약 보험료가 전년대비 각각 2.5%, 57.9% 상승하여 전체 신계약 보험료 중 96.5%를 차지하였으며, 분할납보험료는 전년대비 17.9% 감소해 전년대비 비중이 2.9%p 감소함.

<표 2> 이탈리아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

구 분		CY2008			CY2009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연납 (Annuì)	보험료	128	184	635	165	184	124	178	651
	증가율	-4.5	-0.7	-5.3	0.8	15.1	-3.3	-3.3	2.5
	구성비	1.6	1.9	1.5	1.3	1.1	0.8	0.9	1.0
일시납 (Unici)	보험료	7,378	8,796	38,318	12,080	15,682	14,564	18,196	60,522
	증가율	-7.4	-14.8	-19.3	10.9	39.3	97.4	106.9	57.9
	구성비	93.5	89.5	92.1	94.6	95.7	96.7	95.0	95.5
분할납 (RSP)	보험료	384	851	2,668	526	518	369	779	2,192
	증가율	-23.5	-0.5	-9.7	-26.9	-27.6	-4.0	-8.5	-17.9
	구성비	4.9	8.7	6.4	4.1	3.2	2.5	4.1	3.5
전 체	보험료	7,891	9,832	41,625	12,770	16,384	15,057	19,154	63,365
	증가율	-8.3	-13.5	-31.2	8.5	35.1	90.8	94.8	52.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보험료는 생명보험(개인)의 신규실적이며, 연납(Annuì; Annual premiums), 일시납(Unici; Single premiums), 분할납(Ricorrenti; Recurrent single premiums)으로 구성됨.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09년 4/4분기 생명보험 신계약 보험료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Ramo I)과 카피탈리자시용(Ramo V)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상승한 반면, 전통형 상품 및 투자형 상품(Ramo III)과 기타 부문(Ramo VI)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이탈리아 생명보험 종목별 신계약 보험료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

구 분		CY2008		CY2009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 (Ramo I)	보험료	7,214	19,350	10,032	13,747	12,211	15,038	51,028
	성장률	78.9	29.9	134.4	184.4	304.0	108.4	163.7
	구성비	73.4	46.5	78.6	83.9	81.1	78.5	80.5
전통형 및 투자형 (Ramo III)	보험료	2,221	21,078	2,099	2,102	2,404	3,345	9,950
	성장률	-68.6	-38.2	-70.9	-70.2	-47.4	134.9	-52.8
	구성비	22.6	50.6	16.4	12.8	16.0	17.5	15.7
- 전통형	보험료	1,701	10,922	1,328	1,191	1,109	2,273	5,901
	성장률	-42.0	-16.1	-62.4	-71.2	-28.4	190.8	-46.0
	구성비	17.3	26.2	10.4	7.3	7.4	11.9	9.3
- 보장성	보험료	7	142	14	27	23	40	104
	성장률	-88.8	-91.6	-21.3	-35.8	-68.2	423.3	-26.8
	구성비	0.1	0.3	0.1	0.2	0.2	0.2	0.2
- 보증	보험료	34	779	21	81	78	120	300
	성장률	-76.7	-16.2	-93.6	-75.5	16.5	280.4	-61.5
	구성비	0.4	1.9	0.2	0.5	0.5	0.6	0.5
- 변액	보험료	477	9,234	734	800	1,192	912	3,638
	성장률	-87.8	-49.9	-78.0	-68.5	-58.6	41.3	-60.6
	구성비	4.9	22.2	5.7	4.9	7.9	4.8	5.7
기타 (Ramo IV)	보험료	0.4	2.0	0.2	0.3	0.3	0.4	1.2
	성장률	48.9	322.8	-84.5	157.1	44.2	3.4	-40.0
	구성비	0.0	0.0	0.0	0.0	0.0	0.0	0.0
카피탈리자- 시용 (Ramo V)	보험료	378	1,136	633	527	432	752	2,344
	성장률	57.3	-40.8	163.9	131.6	48.8	98.5	106.3
	구성비	3.9	2.7	5.0	3.2	2.9	3.9	3.7
기타 (Ramo VI)	보험료	17.4	58.1	5.6	5.6	8.6	18.2	38.0
	성장률	-10.8	-68.5	-77.9	-27.6	16.0	4.7	-34.6
	구성비	0.2	0.1	0.0	0.0	0.1	0.1	0.1
합 계	보험료	9,832	41,626	12,770	16,383	15,057	19,154	63,365
	성장률	-13.5	-18.5	8.5	35.1	90.8	110.3	52.2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이탈리아 생명보험은 크게 Ramo I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 Ramo III-펀드, 주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 Ramo V-카피탈리자시용(순수투자형 상품), Ramo VI&VI-기타로 구성됨.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2009년 4/4분기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Ramo I) 실적은 2008년 4/4분기 이후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전년동기대비 108.4% 성장하였으며, 연간으로는 전년대비 163.7% 상승한 510.3억 유로의 신계약 보험료를 거수함.
 - 카피탈리자시용(Ramo V)의 4/4분기 보험료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98.5% 성장한 7.5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연간으로는 106.3% 성장한 23.4억 유로를 시현함.
 - 반면, 전통형 및 투자형(Ramo III)의 보험료는 2009년 4/4분기의 양호한 성장(전년동기대비 134.9%, 33.5억 유로)에도 불구하고 3/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해 연간 실적은 전년대비 52.8% 감소한 99.5억 유로로 나타남.
- 2010년 1월 생명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약 29만건으로 전년동월대비 약 7만건(31.5%)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4> 이탈리아 종목별 신계약 건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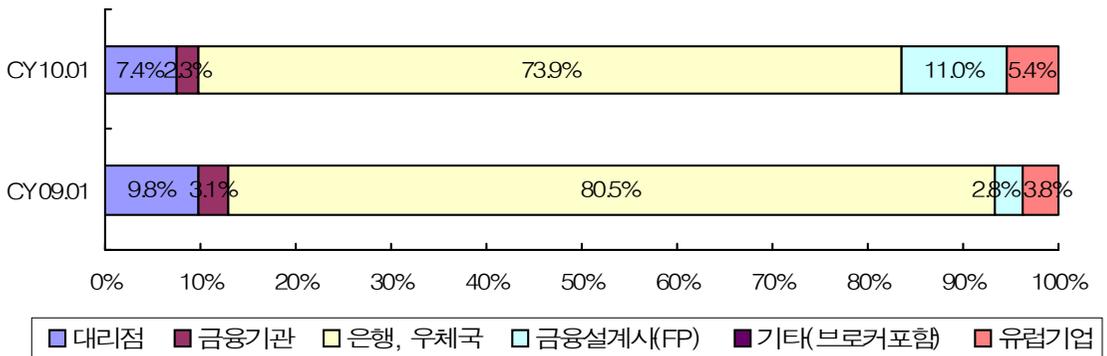
(단위 : 건, %)

구 분	2009년 1월		2010년 1월		성장률
	계약 건수	비중	계약 건수	비중	
생사혼합 및 연금보험(Ramo I)	173,477	77.8	213,133	72.7	22.9
전통형 및 투자형(Ramo III)	40,838	18.3	74,190	25.3	81.7
- 전통형	16,929	7.6	16,108	5.5	-4.8
- 보장성	161	0.1	237	0.1	47.2
- 보 증	235	0.1	4,855	1.7	1,966.0
- 변 액	23,513	10.5	52,990	18.1	125.4
기타(Ramo IV)	33	0.0	40	0.0	21.2
카피탈리자시용(Ramo V)	7,411	3.3	4,171	1.4	-43.7
기타(Ramo VI)	1,169	0.5	1,591	0.5	36.1
합 계	222,928	100.0	293,125	100.0	31.5
- 연금(개인)	12,850	5.8	17,114	5.8	33.2
- 순수보장성	35,536	15.9	40,950	14.0	15.2
- 기 타	174,542	78.3	235,062	80.2	34.7

자료 : ANIA(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Riepilogo Annuale

- 이는 카피탈리자시옹(Ramo V)의 계약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Ramo I) 부문이 성장한 데 기인함.
- 이탈리아 생명보험 상품의 주요 판매채널은 은행 및 우체국이 73.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설계사(FP) 11.0%, 대리점 7.4%, 유럽기업 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은행 및 우체국, 대리점의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6.6%p, 2.4%p 감소한 반면, 금융설계사와 유럽기업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8.2%p, 1.6%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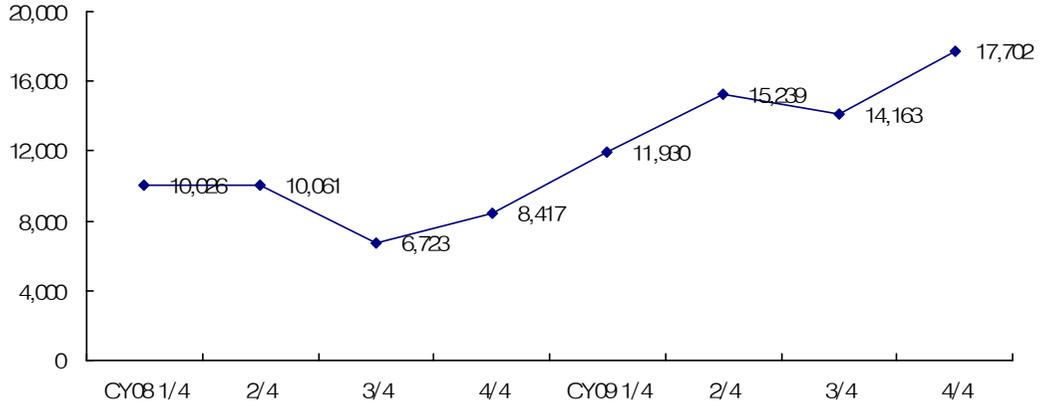
<그림 4> 이탈리아 주요 판매채널



- 2009년 4/4분기 회사그룹별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사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110.3% 상승한 177.0억 유로를 기록한 반면, 외국사는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의 14.5억원 유로를 시현함.

<그림 5> 이탈리아 국내사 분기별 보험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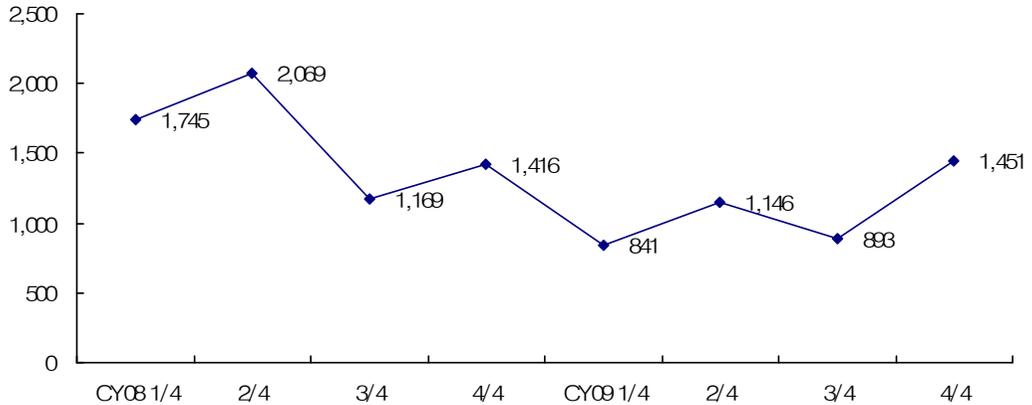
(단위: 백만 유로)



자료 :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그림 6> 이탈리아 외국사 분기별 보험료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자료 : elaborazione ANIA su dati ISVAP

■ 조사 개요 및 출처

- 영국 보험산업은 영국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www.abi.org.uk)에서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 통계를 바탕으로 기술함.
 -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의 신규보험료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의 기타 통계 및 손해보험의 통계의 입수가 어려운 상황임.
- 영국보험협회에서 발표하는 분기별 생명보험 신규계약은 6개 종목으로 구분되는데 보장성보험을 제외하면 신규계약은 개인과 단체로 분리되지 않음.
 - 보장성보험이 신규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개인 보장성보험과 단체보장성보험을 보장성보험으로 통합하여 분류함.
- ABI가 발표한 용어를 편의상 우리식 용어로 의역함.

원문	의역
Investment & Savings	투자 · 저축성보험
Individual Pensions	퇴직연금계좌
Occupational Pensions	퇴직연금
Offshore Business	역외영업
Individual Protection & Group Protection	보장성보험

- 이탈리아 보험산업은 이탈리아보험협회(Associazione Nazionale fra le Imprese Assicuratrici, www.ania.it)에서 월별로 발표하는 생명보험의 신규계약 통계(Statistica mensile sulla 'nuova produzione' dei rami vita)를 바탕으로 기술함.
 - 상품구분은 생사혼합 및 연금 보험(Ramo I; Assicurazioni sulla durata della vita umana), 펀드 및 주가지수 연계된 생보 상품(Ramo III; Assicurazioni connesse a fondi, indiciazionari o altri valori di riferimento), 기타(Ramo IV & Ramo VI; Assicurazioni complementari), 카필탈리자시옹(Ramo V; Capitalizzazione) 등으로 함.

국내외 보험·금융 주요 뉴스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63호 (2010. 1. 11)	<p>해외여행비 할인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 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은 최근 2년간 손해보험회사가 해외여행 중 휴대폰 도난으로 신고 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15,531건에 대한 조사한 결과,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를 대거 적발함에 따라 보험금청구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함. <p>(「해외여행경비 할인을 미끼로 한 보험사기에 주의」, 금감원 12/24)</p>
제63호 (1. 11)	<p>2009년 11월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0조원 돌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는 '09.11월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섰으며, 5인 이상 전체 상용근로자의 22.6%(172.3만 명), 도입 사업장 수는 13.0%(6.7만 개소)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발표함. <p>(「퇴직연금 적립금 10조원 돌파」, 노동부, 1/5)</p>
제64호 (1. 18)	<p>보험업계 그린스타트 운동에 참여 시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그린스타트 전국네트워크·국내 주요 보험회사는 그린스타트 운동(녹색보험 문화) 및 녹색 생활 활성화를 위한 협력 MOU 체결식을 개최하여 금융업계 전반에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p>(「그린스타트 운동과 함께하는 녹색보험」, 환경부, 1/14)</p>
제64호 (1. 18)	<p>FY09 상반기 재보험 거래, 규모 확대 vs 적자폭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에 따르면, FY09 상반기 보험회사의 재보험 거래(출재+수재)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7.7% 성장한 7조 4,372억원을 기록한 반면, 재보험 거래 해외수지차는 전년동기대비 29.9%(792억원) 감소한 3,438억원으로 나타남. <p>(「FY09 상반기 재보험거래 현황 및 시사점」, 금감원, 1/14)</p>
제65호 (1. 25)	<p>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집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어감에 따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집'을 발간하여 보험사기 개념에서부터 형사관례에 이르기까지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상세 기술하여 조사업무 및 수사에 기여하고자 함. <p>(「보험사기 조사제도 및 조사사례집 책자 발간」, 금감원, 1/14)</p>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65호 (1. 25)	<p>2009년 12월 기준 생명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큰 폭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2월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신규가입이 확대되면서 전월대비 35.9% 증가한 3조 7,107억원을 기록하였으며, 생명보험 적립금 비중은 전월대비 5.3%p 증가한 33.5%로 나타남. <p>(「퇴직연금 영업실적(09.12월말)」, 금융감독원, 1/20)</p>
제66호 (2. 1)	<p>한국교통연구원, 녹색 자동차보험제 도입 방안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교통연구원은 'POST-2012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저탄소 교통전략 실천방안' 세미나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녹색 자동차보험제'를 도입하고, 녹색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현행 의무보험인 책임보험료와 주행거리에 비례하여 변동하는 주행보험료로 구분하여 책정할 것을 권고함. <p>(「POST-2012 기후변화협약 대응 저탄소 교통전략 실천방안」, 한국교통연구원, 1/26)</p>
제66호 (2. 1)	<p>자동차 정비수가 인상, 보험사 vs 정비업체 갈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자동차 정비수가 인상이 지연되면서 서울, 경기, 인천의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를 촉구하고 있으나, 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이 자동차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자동차보험의 높은 손해율에도 보험료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비수가 인상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임. <p>(「보험정비요금 공표 더 이상 미루지 말라」, 전국자동차검사정비조합, 1/21)</p>
제67호 (2. 8)	<p>2010년 7월, 공인인증서로 모든 보험계약 조회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생·손보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방식을 통해 모든 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2010년 7월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한다는 방침임. <p>(「보험가입 조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2/4)</p>
제67호 (2. 8)	<p>최근 6년간 노인성질환 진료비 3.8배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노인성질환자(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질환 포함) 수는 95만 2천명으로 총진료비는 2조 1,9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2002년 대비 노인성질환자는 90.8%, 총진료비는 278.2%, 공단부담금인 급여비는 281.2% 증가한 수치임. <p>(「최근 6년간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3.8배로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 2/1)</p>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68호 (2. 16)	<p>2008년 환경성 진료환자 전년대비 4.0% 증가</p> <p>·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주요 환경성질환 진료환자는 759만명으로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으며, 이는 인구 1만명당 2002년 1,165명에서 2008년 1,517명으로 연평균 3.4% 증가한 수치임.</p> <p>(「2008년 주요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759만명」, 국민건강보험공단 2/8)</p>
제68호 (2. 16)	<p>금융상담 및 민원 등 전년대비 22.7% 증가</p> <p>· 2009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 상속인 조치는 총 41.7만 건으로 전년대비 22.7% 상승하였으며, 이는 주로 금융상담과 민원이 전년대비 각각 24.1%, 16.8% 증가한 데 기인함.</p> <p>(「2009년 금융상담 및 민원 동향」, 금감원, 2/5)</p>
제69호 (2. 22)	<p>금감원,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p> <p>· 금융지주회사 그룹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자회사의 업종별로 리스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함.</p> <p>(「금융지주회사의 그룹 내부통제 모범규준 마련」, 금감원, 2/10)</p>
제69호 (2. 22)	<p>금감원,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마련</p> <p>· 금감원은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소매금융 부분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을 활용하고 있으나, 불건전한 대출모집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자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함.</p> <p>(「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마련 및 시행」, 금감원, 2/16)</p>
제70호 (3. 2)	<p>2009년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1인당 82만원'</p> <p>· 금감원은 지능화·조직화 되어가는 보험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09년 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에 보험범죄 적발을 기여한 신고자는 166명으로 지급한 포상금은 1억 3,612만원이며, 1인당 평균 82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p> <p>(「2009년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금감원, 2/22)</p>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70호 (3. 2)	<p>FY09 3/4분기(누적) 보험료 규모 7.5%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Y09 1/4~3/4분기까지 생보사의 수입보험료는 57조 8,14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1조 8,850억원) 증가하였으며, 손보사의 보유보험료는 15.9%(4조 3,633억원) 성장한 31조 7,989억원을 기록함. <p>(「FY09 3/4분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금감원, 2/23)</p>
제71호 (3. 8)	<p>전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당국은 최근 부동산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존 PF 채권의 부실 우려가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 PF 대출 확대, PF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 발행 증가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다시 대두됨에 따라 저축은행권 및 여타 금융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PF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임. <p>(「부동산 PF 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 추진」, 금감원, 3/2)</p>
제71호 (3. 8)	<p>무계약환급금 및 수수료 후취 상품 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2010년 4월부터 계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10% 가량 저렴한 순수보장성 보험이 출시되며, 보험료에 책정된 사업비를 계약 기간 내내 조금씩 나눠 떼거나 중도해약 시 떼는 '수수료 후취' 보험이 나오게 됨. <p>(「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2/24)</p>
제72호 (3. 15)	<p>4월부터 차량모델별 등급 21개로 세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차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차량모델별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는 차량모델별 등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2010년 4월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함. <p>(「차량모델별 등급제도 개선(안)」, 보험개발원, 3/4)</p>
제72호 (3. 15)	<p>금융분쟁 전년대비 37.9%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은 총 28,988건으로 전년대비 37.9%(7,963건) 증가했으며, 권역별로는 금융투자 61.0%(709건), 보험 46.9%(6,880건), 은행·중소서민금융 7.2%(374건) 순으로 나타남. <p>(「2009년 금융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현황」, 금감원, 3/8)</p>
제73호 (3. 22)	<p>보험약관대출, 안내 강화 vs 이자부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은 소액 대출 목적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험약관대출이 일부 보험사의 소극적인 안내와 과도한 이자부과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약관대출 시 설명·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산정 기준을 명확화, 연체이자 부과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함. <p>(「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 금감원, 3/17)</p>

■ 국내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73호 (3. 22)	<p>2009년 방카슈랑스 보험료 전년대비 12.0% 증가</p> <p>· 2009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료 수익은 전년대비 12.0% 증가한 11조 8,539억원으로 생보사가 9조 5,780억원(80.8%), 손보사가 2조 2,759억원(19.2%)을 시현함. (「'09년중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방카슈랑스 영업현황」, 금감원 3/16)</p>
제74호 (3. 29)	<p>자동차보험 제도 및 환경 개선방안 마련</p> <p>· 금감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함에 따라 보험업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유도에 이어, 보험원가 절감 및 기반 조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보험 환경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종합대책을 마련함.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 마련·추진」, 금감원 3/24)</p>
제74호 (3. 29)	<p>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p> <p>· 금감원은 최근 실손의료보험 및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제정을 비롯한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손해보험의 표준약관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개선사항을 마련함.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금감원 3/23)</p>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63호 (2010. 1. 11)	<p>2010년 미국 손해보험 판매채널 영업환경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보험전문지 Insurance Journal이 설계사 및 중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2010년에도 보험료 인하, 경기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손해보험의 판매채널 영업환경은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9년에 비해서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 <p>(Insurance Journal, 12/29)</p>
제64호 (1. 18)	<p>2010년 미국 손해보험산업 진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보험정보원(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II)의 대표이자 이코노미스트인 로버트 하트윅(Robert Hartwig)은 Insurance Journal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손해보험산업은 앞으로 낮은 투자수익률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나 경기회복에 따른 기회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지적함. <p>(Insurance Journal, 1/12)</p>
제65호 (1. 25)	<p>미국 메트라이프, AIG 생명보험 자회사 인수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트라이프가 AIG의 생명보험부문 중 하나인 알리코(Alico)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이며 인수가격은 140억~1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함. <p>(Insurance Journal, 1/20)</p>
제66호 (2. 1)	<p>가이트너 재무장관, AIG 스캔들 휘말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미 하원의원들이 현직 재무장관인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Geithner)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 시절 AIG의 공적자금 유용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음. <p>(Business Insurance, 1/27)</p>
제67호 (2. 8)	<p>S&P, 메트라이프 신용등급 하향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신용평가기관 S&P는 메트라이프가 AIG의 생명보험 자회사 알리코(Alico)를 인수할 경우 메트라이프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밝힘. <p>(Businessweek, 2/3)</p>
제68호 (2. 16)	<p>도요타 리콜 사태, 자동차보험에 영향 안 미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손해보험협회(Property Casualty Insurers Association of America)는 도요타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와 관련해 도요타 자동차 소유자들을 위한 안전 사항을 설명하고, 보험금 지급상의 문제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p>(Insurance Journal, 2/9)</p>

■ 미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69호 (2. 22)	<p>미국 건강보험산업 이익 증가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시민단체 Health Care for America Now(HCAN)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대형 건강보험회사들의 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건강보험회사들이 불량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인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p>(Insurance Journal, 2/12)</p>
제70호 (3. 2)	<p>AIG, 파생상품 처분 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G는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가장 큰 손실을 야기했던 파생상품을 완전히 처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최근 이를 변경하여 일부는 보유한다고 발표함. <p>(Financial Times, 2/18)</p>
제71호 (3. 8)	<p>AIG, AIA·Alico 매각 등으로 구제금융 조기 상환 시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G는 아시아지역 거대 생명보험사인 AIA(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 Group을 영국계 보험그룹인 Prudential PLC에 매각(355억 달러)한다고 밝히면서 이를 통해 구제금융을 가능한 빨리 상환하겠다고 발표함. <p>(AIG, 3/1, AP, 3/2)</p>
제72호 (3. 15)	<p>미국 무과실책임(No-Fault) 자동차보험제도, 인기 시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RAND 연구소는 기존 자동차보험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1970년대부터 일부 주(州)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과실책임(No-Fault) 자동차보험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p>(Insurance Journal, 3/2)</p>
제73호 (3. 22)	<p>미 손보업계, 새로운 금융시장안정법안에 반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3월 16일 크리스 도드(Chris Dodd) 상원의원이 금융시장안정법안(Restoring American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을 발표한 후, 이 법안이 손해보험회사와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p>(Insurance Journal, 3/16)</p>
제74호 (3. 29)	<p>미 건강보험개혁안, 마지막 상원 통과만 남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안이 2010년 3월 21일 근소한 표차로 하원에서 통과된 이후,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면서 하원의 일부 수정사항에 대한 상원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놓은 상태임. <p>(Reuter, 3/22, 3/24)</p>

■ 유럽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63호 (2010. 1. 11)	<p>경기침체로 인한 기술보험·배상책임보험 리스크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침체 기간 중 건설·제조업의 운영리스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술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이 담보하는 리스크의 총체적인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p>(Financial Times, 1/6)</p>
제64호 (1. 18)	<p>항공보험료 인상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의 항공기 사고 관련 사고심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2010년 보험금 지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항공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p>(Financial Times, 1/8)</p>
제65호 (1. 25)	<p>Allianz, 장기적 관점의 투자전략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llianz는 물가상승, 보험영업 감소, 투자수익 감소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주식과 채권투자를 축소하는 한편, 사모펀드, 부동산, 에너지 관련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함. <p>(Financial Times, 1/18)</p>
제66호 (2. 1)	<p>영국, 자동차보험료 15~20% 인상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영국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보험료는 전년대비 15~20%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됨. <p>(Financial Times, 1/22, Mail Online, 1/25)</p>
제67호 (2. 8)	<p>영국, Solvency II 도입시 보험사 지급준비금 상승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Solvency II 도입으로 영국 생명보험산업은 300~700억 유로의 지급준비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손해보험산업은 150억 유로의 지급준비금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망됨. <p>(Financial Times, 2/1)</p>
제68호 (2. 16)	<p>금융그룹 리스크관리 비용 급증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100대 주요 은행·보험사들은 2010년에 법규준수, 리스크관리, 감사 등 리스크관리 비용으로 2006년의 2배 수준에 해당하는 1,0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됨. <p>(Financial Times, 2/8)</p>

■ 유럽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69호 (2. 22)	<p>이탈리아, 자동차보험 협정요율 대폭 인상 전망</p> <p>· 2010년 중 유로지역 전반의 자동차보험요율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탈리아는 자동차보험요율이 10%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p> <p>(Financial Times, 2/8)</p>
제70호 (3. 2)	<p>영국보험협회, 건설업 리스크 증가 경고</p> <p>· 영국보험협회는 건설경기의 악화와 재정지원 중단으로 건설회사의 파산 증가가 예상되므로 관련 신용보증보험 손실에 대비한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고함.</p> <p>(Financial Times, 2/22)</p>
제71호 (3. 8)	<p>Prudential, AIA 인수로 아시아지역 최대 생명보험회사 등극</p> <p>· 영국계 Prudential은 AIA(American International Assurance)를 인수하면서 아시아지역 최대 생명보험회사로 자리매김 했으며, 향후 아시아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p> <p>(Financial Times, 3/1)</p>
제72호 (3. 15)	<p>Aviva, 유럽 중심의 성장전략 채택</p> <p>· Prudential의 아시아 중심 성장전략 채택 이후 Aviva는 유럽 노년층의 높은 저축 수준과 은퇴 대비 보험수요를 고려한 유럽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p> <p>(Financial Times, 3/5, Guardian, 3/7)</p>
제73호 (3. 22)	<p>Standard Life, 퇴직연금시장 중심의 성장전략 고수</p> <p>· Prudential과 Aviva의 성장전략 발표 이후 Standard Life는 비교우위를 보이는 영국의 퇴직연금시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한다고 발표함.</p> <p>(Telegraph, 3/11, Standard Life, 3/10)</p>
제74호 (3. 29)	<p>L&G, 틈새시장 전략 추진</p> <p>· 영국 생보시장 랭킹 4위인 L&G(Legal & General)는 경쟁 보험그룹들의 성장전략 발표 이후, 지역에 관계없는 틈새시장 개발에 초점을 맞춘 성장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p> <p>(Financial Times, 3/23, L&G, 3/23)</p>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63호 (2010. 1. 11)	<p>손보재팬, 사고정보 분석 서비스로 3개국 특허 획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손해보험재팬은 자국 및 해외 기업들의 위험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고정보 분석시스템 '이지스(AEGIS)'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특허 승인을 취득함. <p>(FujiSankei Business I, 12/22)</p>
제64호 (1. 18)	<p>스미토모생명, 내점형 판매채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미토모생명은 고객이 스스로 내방해 보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내점형 채널의 매출이 호조를 보이자 확대 전략을 전개하기로 함. <p>(보험매일신문, 1/7)</p>
제65호 (1. 25)	<p>골수기증자 보험금 지급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들이 백혈병 등의 혈액 난치병 환자를 위해 골수 이식을 한 사람(골수기증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음. <p>(FujiSankei Business I, 1/13)</p>
제66호 (2. 1)	<p>니혼생명, 중국 방카슈랑스 시장 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혼생명은 중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중국농업은행과 제휴해 방카슈랑스 상품을 중국 내에서 판매하기로 결정함. <p>(마이니치신문, 1/23)</p>
제67호 (2. 8)	<p>대형 손보사,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즈이스미토모해상은 최근 업계 1위 도쿄해상홀딩스를 제치고 중국 재산보험(손해보험) 시장에서 외국계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p>(FujiSankei Business I, 1/26)</p>
제68호 (2. 16)	<p>니혼생명, 전 지점에 내점형 점포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니혼생명은 고객이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는 '내점형 점포'를 업계 최초로 전 지점에 설치하기로 함. <p>(FujiSankei Business I, 2/3)</p>
제69호 (2. 22)	<p>무디스社, 일본 생보산업 안정적으로 상향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일본 생명보험산업 전망을 2년 만에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함. <p>(FujiSankei Business I, 2/10)</p>

■ 일본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70호 (3. 2)	<p>2010년 일본 생보업계 큰 변화 예고</p> <p>· 2010년 일본생명보험업계는 다이이치생명의 주식시장 상장, 활발한 해외시장 개척 등 격동의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p> <p>(마이니치신문, 2/8, FujiSankei Business I, 2/28)</p>
제71호 (3. 8)	<p>다이이치생명 주식상장 관심 고조</p> <p>· 다이이치생명의 도쿄증시 상장을 앞두고 공모 규모 등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p> <p>(전관협공제회, 3/3, 마이니치신문, 3/3)</p>
제72호 (3. 15)	<p>소액단기 유사보험 매출 신장</p> <p>· 기존 보험회사들이 보장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겨냥해 만든 소액단기 유사보험(일명 미니보험)의 매출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음.</p> <p>(전관협공제회, 3/2, 마이니치신문, 3/3)</p>
제73호 (3. 22)	<p>손보업계, 러시아 보험시장 진출 본격화</p> <p>·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러시아 현지 보험회사들과 업무 제휴를 맺고 지점을 확대하는 등 러시아 보험시장 진출을 본격화 하고 있음.</p> <p>(FujiSankei Business I, 3/13)</p>
제74호 (3. 29)	<p>일본손해보험협회, 차량 도난사고 실태조사 결과 발표</p> <p>· 일본손해보험협회가 작년 차량 관련 도난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들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난 당한 차량용 제품 중 네비게이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p> <p>(일본손해보험협회 3/29)</p>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63호 (2010. 1. 11)	<p>보감회, 보험회사 자산운용규정 개정 초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전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보험자산 운용관리 잠정시행법> 초안을 발표함. <p>(상해증권보, 12/26)</p>
제64호 (1. 18)	<p>2009년 중국보험산업 10대 뉴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의 주요 경제일간지 증권시보는 2009년 한 해 동안 보험업계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파급력이 컸던 뉴스 10개를 선정해 발표함. <p>(증권시보, 1/4)</p>
제65호 (1. 25)	<p>보험업계, 자산관리를 통한 구조조정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중국 보험산업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자산관리를 통한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p>(제일재경일보, 1/15)</p>
제66호 (2. 1)	<p>보험업계, 연간 수입보험료 1조 위안 시대 개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1~12월) 중국 보험산업 규모가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서며 전년대비 13.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 <p>(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21, 신화망, 1/21)</p>
제67호 (2. 8)	<p>외자 보험사 고위직, 중국인으로 대거 교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외자계 보험회사의 고위관리자들이 외국인에서 현지 사정에 정통한 중국인으로 대거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p>(북경진보, 1/27)</p>
제68호 (2. 16)	<p>춘절기간 100억 위안 규모의 보험 특수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춘절기간에 사상 최대의 인구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약 100억 위안(한화로 약 1조 7천억원) 규모의 보험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p>(광저우일보, 2/4)</p>
제69호 (2. 22)	<p>보감회, 음주 운전자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보험료 할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방침임. <p>(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1/12, 중국증권망, 2/12)</p>

■ 중국 보험·금융 뉴스

KiRi Weekly 수록호	제목 및 주요 내용
제70호 (3. 2)	<p>베이징시, 자동차보험금 지급기간 평균 30일 소요</p> <p>· 작년 베이징시의 자동차보험 보험금이 청구일 기준으로 평균 한 달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베이징보험감독국, 2/20, 신경보, 2/20)</p>
제71호 (3. 8)	<p>보감회, 인보험 업무 기본서비스 규정 발표</p> <p>·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인보험(생명보험) 업무 서비스를 표준화한 <인보험 업무 기본서비스 규정>을 발표해 2010년 5월 부터 시행할 예정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국경제신문, 3/3)</p>
제72호 (3. 15)	<p>보험업계, 신 회계준칙 적용으로 보험료 규모 감소</p> <p>· 중국 보험업계는 2009년 말 발표된 <보험계약 상관회계 처리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신 회계준칙(新會計準)'을 적용한 결과, 수입보험료 규모가 과거 회계기준으로 산정한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증권망, 3/5)</p>
제73호 (3. 22)	<p>단체보험시장 부진 속 외자계 약진 두드러져</p> <p>· 2009년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단체보험 가입률 저조 등 단체보험시장의 전반적인 부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을 크게 높인 외자계 인보험(생명보험) 회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제일재경일보, 3/9)</p>
제74호 (3. 29)	<p>보감회, '보험 3대 짝퉁' 척결 나서</p> <p>·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안국을 비롯한 사법기관 및 조사감독권을 가진 세관, 공상국, 세무국 등과의 공조를 통해 보험범죄를 해결하는 연합감독체제의 구축 방안을 발표함.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3/17, 중국증권망, 3/18)</p>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CY2008				CY2009				
	1/4	2/4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5.8	4.8	3.8	-3.4	-4.2	-2.2	0.9	6.0	
경상수지	-3,817	2,260	-9,401	4,551	9,287	14,124	9,043	10,557	
수 출	99,445	114,492	115,000	93,071	74,421	90,360	94,781	103,971	
수 입	106,053	114,793	122,901	91,528	71,418	73,970	84,845	92,852	
실업률	3.4	3.1	3.1	3.1	3.8	3.8	3.6	3.3	
금리	국고채(3년)	5.10	5.90	5.74	3.41	3.94	4.16	4.39	4.41
	회사채(3년)	6.01	6.88	7.76	7.72	6.13	5.39	5.53	5.53
소비자물가지수	107.4	109.6	111.1	110.8	111.6	112.7	113.3	113.8	
환율	원/달러	991.7	1,043.4	1,187.7	1,257.5	1,377.1	1,284.7	1,188.7	1,167.6
	원/엔화	1,000.2	987.8	1,144.2	1,393.9	1,414.8	1,336.3	1,318.8	1,262.8
KOSPI	1,704.0	1,674.9	1,448.1	1,124.5	1,206.3	1,390.1	1,673.1	1,682.8	
외환보유고	264,245	258,097	239,671	201,223	206,340	231,735	254,247	269,995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CY2008				CY2009			
	1/4	2/4	3/4	4/4	1/4	2/4	3/4	4/4
보 험	-23,583	20,865	-14,426	-4,352	-14,909	29,281	-1,416	12,147
- 생 보	-19,752	14,533	-12,340	-4,342	-10,321	21,486	-1,650	12,926
- 손 보	-3,831	6,332	-2,086	-10	-4,588	7,795	234	-779
은 행	9,228	21,326	-87,115	48,920	-55,887	77,277	64,167	-161,023
- 일 반	-44,093	148,250	-145,756	73,186	-30,842	58,172	36,531	-179,530
- 신 탁	53,321	-126,924	58,641	-24,166	-25,045	19,105	27,636	18,507
증 권	19,789	41,239	-45,641	1,156	78,230	-44,155	-3,121	-78,734
투 신	108,941	-138,816	-406,191	352,172	76,686	-377,027	-167,127	141,605
총 금	20,424	8,467	-98,880	60,172	30,186	-99,222	-11,709	68,914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 분기 순수신에서 전분기 순수신을 차감한 수치임.
2) 보험의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하여 산출함.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34,444	35,313	35,115	35,842	140,714	34,389	37,016	40,807
	성장률	-0.5	3.8	-1.1	-3.8	-0.5	-0.2	4.8	16.2
	구성비	18.8	19.6	17.9	20.3	19.1	19.6	20.6	18.2
사망	보험료	74,786	74,189	73,160	72,397	294,531	71,889	72,647	72,632
	성장률	1.4	0.6	-2.7	-3.5	-1.1	-3.9	-2.1	-0.7
	구성비	40.9	41.2	37.2	41.1	40.0	41.0	40.5	32.5
생사 혼합	보험료	15,267	15,762	15,870	19,467	66,365	18,096	19,321	21,248
	성장률	-9.3	-3.1	-5.3	20.2	0.5	18.5	22.6	33.9
	구성비	8.3	8.8	8.1	11.0	9.0	10.3	10.8	9.5
변액 보험	보험료	47,399	45,977	42,221	40,318	175,916	40,885	42,100	44,375
	성장률	27.8	5.7	-12.3	-10.8	1.2	-13.7	-8.4	5.1
	구성비	25.9	25.5	21.5	22.9	23.9	23.3	23.5	19.8
개인계	보험료	171,896	171,241	166,366	168,024	677,526	165,260	171,085	179,061
	성장률	5.9	2.2	-5.2	-3.3	-0.2	-3.9	-0.1	7.6
	구성비	94.0	95.1	84.7	95.3	92.1	94.3	95.4	80.1
단체	보험료	10,945	8,744	30,099	8,299	58,087	9,908	8,287	44,544
	성장률	-8.2	-1.2	-25.0	-24.6	-19.2	-9.5	-5.2	48.0
	구성비	6.0	4.9	15.3	4.7	7.9	5.7	4.6	19.9
합계	보험료	182,840	179,985	196,465	176,323	735,614	175,168	179,372	223,606
	성장률	5.0	2.0	-8.9	-4.5	-2.0	-4.2	-0.3	13.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 및 보험금 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 보 존 협	지급보험금	22,838	31,257	37,527	28,276	9,899	20,832	20,875	21,283
	증가율	9.9	22.5	25.4	0.5	14.9	-8.8	-33.2	-43.3
	지급률	66.3	88.5	106.9	78.9	85.2	60.6	56.4	52.2
사 보 망 협	지급보험금	31,371	35,308	39,016	41,300	146,996	37,161	39,103	35,853
	증가율	13.7	18.7	18.5	23.3	18.8	18.5	10.7	-8.1
	지급률	41.9	47.6	53.3	57.0	49.9	51.7	53.8	49.4
생 혼 보 사 합 협	지급보험금	18,738	18,230	19,304	15,351	71,622	12,802	14,843	23,144
	증가율	2.7	-19.1	-45.8	-42.3	-30.4	-31.7	-18.6	19.9
	지급률	122.7	115.7	121.6	78.9	107.9	70.7	76.8	108.9
변 액 보 협	지급보험금	14,882	13,918	16,765	14,032	59,597	14,922	21,046	21,928
	증가율	33.5	-8.5	-10.3	0.4	1.0	0.3	51.2	30.8
	지급률	31.4	30.3	39.7	34.8	33.9	36.5	50.0	49.4
개 보 인 협 계	지급보험금	87,830	98,713	112,612	98,959	398,114	85,717	95,867	102,208
	증가율	13.0	6.2	-3.9	-3.2	2.1	-2.4	-2.9	-9.2
	지급률	51.1	57.6	67.7	58.9	58.8	51.9	56.0	57.1
단 보 체 협 계	지급보험금	15,960	14,562	21,485	25,317	77,324	15,917	11,625	36,589
	증가율	20.5	10.2	50.7	41.0	31.8	-0.3	-20.2	70.3
	지급률	145.8	166.5	71.4	305.1	133.1	160.7	140.3	82.1
전 체	지급보험금	103,790	113,275	134,097	124,276	475,438	101,634	107,492	138,797
	증가율	14.1	6.7	2.0	3.4	5.9	-2.1	-5.1	3.5
	지급률	56.8	62.9	68.3	70.5	64.6	58.0	59.9	62.1

주 : 1)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 및 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생 보 존 협	사업비	8,427	9,398	8,717	6,060	32,602	6,878	7,674	8,288
	증가율	19.3	21.5	6.1	-27.6	3.9	-18.4	-18.3	-4.9
	사업비율	24.5	26.6	24.8	16.9	23.2	20.0	20.7	20.3
사 보 망 협	사업비	18,388	18,447	17,772	16,382	70,989	17,664	18,311	19,533
	증가율	4.2	0.9	-13.4	-21.0	-8.0	-3.9	-0.7	9.9
	사업비율	24.6	24.9	24.3	22.6	24.1	24.6	25.2	26.9
생 혼 보 사 합 협	사업비	7,456	7,391	6,386	4,721	25,954	4,874	4,869	5,237
	증가율	36.7	12.7	-13.7	-35.6	-3.0	-34.6	-34.1	-18.0
	사업비율	48.8	46.9	40.2	24.2	39.1	26.9	25.2	24.6
개 인 보 협 계	사업비	34,271	35,236	32,875	27,162	129,544	29,417	30,853	33,058
	증가율	13.6	8.2	-9.0	-25.4	-4.3	-14.2	-12.4	0.6
	사업비율	19.9	20.6	19.8	16.2	19.1	17.8	18.0	18.5
단 체 보 협 계	사업비	855	957	925	782	3,519	874	862	1,008
	증가율	12.5	22.0	-5.5	-20.6	0.3	2.2	-9.9	9.0
	사업비율	7.8	10.9	3.1	9.4	6.1	8.8	10.4	2.3
전 체	사업비	35,127	36,192	33,800	27,944	133,063	30,290	31,715	34,066
	증가율	13.6	8.5	-8.9	-25.3	-4.1	-13.8	-12.4	0.8
	사업비율	19.2	20.1	17.2	15.8	18.1	17.3	17.7	15.2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임.

4)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5) 변액보험 사업비는 일반계정에 포함됨에 따라 표에 기재되지 않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8					FY2009		
		1/4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701	632	792	710	2,835	654	632	798
	성장률	-5.7	-6.9	-9.8	-8.4	-7.8	-6.6	-0.1	0.7
	구성비	0.8	0.7	0.8	0.7	0.8	0.7	0.6	0.7
해 상	보험료	2,166	1,912	2,564	1,864	8,507	2,215	2,009	1,858
	성장률	24.9	7.2	72.6	23.1	20.9	2.2	5.1	-27.5
	구성비	2.4	2.1	2.6	2.0	2.3	2.2	1.9	1.5
자동차	보험료	27,397	27,846	27,574	26,554	109,371	27,241	28,248	28,482
	성장률	6.0	3.5	-1.2	-3.2	1.2	-0.6	1.4	3.3
	구성비	30.6	30.4	27.8	28.0	29.2	27.2	26.9	23.7
보 증	보험료	2,814	2,928	2,821	2,966	11,529	3,165	2,890	3,106
	성장률	16.1	25.1	8.4	15.3	16.0	12.5	-1.3	10.1
	구성비	3.1	3.2	2.8	3.1	3.1	3.2	2.7	2.6
특 종	보험료	7,209	7,488	7,668	6,754	29,119	8,345	8,422	8,919
	성장률	9.5	11.3	2.8	4.3	6.9	15.8	12.5	16.3
	구성비	8.1	8.2	7.7	7.1	7.8	8.3	8.0	7.4
해 외 원보험	보험료	224	341	637	580	1,781	383	500	661
	성장률	16.9	34.2	113.9	51.3	58.4	71.1	46.6	3.8
	구성비	0.3	0.4	0.6	0.6	0.5	0.4	0.5	0.6
장 기 손 해	보험료	44,857	46,461	47,761	49,749	188,829	53,088	57,299	59,443
	성장률	16.1	16.6	14.7	14.9	15.5	18.3	23.3	24.5
	구성비	50.1	50.8	48.1	52.5	50.4	53.1	54.5	49.5
개 인 연 금	보험료	2,907	3,104	3,394	3,449	12,853	3,654	4,048	4,971
	성장률	28.3	30.0	29.1	27.1	28.6	25.7	30.4	46.5
	구성비	3.2	3.4	3.4	3.6	3.4	3.7	3.9	4.1
퇴 직 보 험	보험료	518	410	4,770	1,110	6,807	758	521	6,828
	성장률	-32.4	-19.7	-21.1	18.7	-17.6	46.4	27.3	43.1
	구성비	0.6	0.4	4.8	1.2	1.8	0.8	0.5	0.6
퇴 직 연 금	보험료	756	389	1,238	939	3,322	534	541	5,049
	성장률	494.4	81.8	-1.5	75.2	55.7	-29.4	39.3	307.9
	구성비	0.8	0.4	1.2	1.0	0.9	0.5	0.5	0.4
계	보험료	89,550	91,512	99,218	94,674	374,954	100,038	105,112	120,115
	성장률	12.9	12.1	7.6	9.3	10.3	11.7	14.9	21.1

주 : 1)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부동산권리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 퇴직보험은 퇴직연금을 포함함.

3)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실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8			FY2009		
		2/4	3/4	4/4	1/4	2/4	3/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31.6	47.7	37.9	32.4	37.1	54.3
	사업비율	48.7	47.9	35.8	49.1	16.6	43.5
	합산비율	80.3	95.6	73.7	81.5	83.8	97.7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71.7	82.5	301.8	82.4	89.0	85.4
	사업비율	28.8	20.9	29.8	24.1	26.3	44.2
	합산비율	100.5	103.4	331.6	106.5	115.4	129.6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7.5	78.5	43.6	66.1	47.9	31.5
	사업비율	16.8	19.1	28.3	15.6	23.7	21.6
	합산비율	64.3	97.6	72.0	81.8	71.6	53.0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62.5	69.0	68.3	61.4	67.2	63.0
	사업비율	23.0	24.3	27.4	26.0	18.6	24.4
	합산비율	85.5	93.3	95.7	87.4	85.8	87.4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40.2	48.8	50.5	39.2	29.0	29.0
	사업비율	56.5	56.4	66.7	61.9	56.5	60.0
	합산비율	96.7	105.2	117.2	101.1	85.5	89.0
해외수재	경과손해율	97.7	84.1	93.7	57.9	60.0	60.2
	사업비율	30.3	28.9	26.4	28.7	27.5	30.1
	합산비율	128.0	113.0	120.1	86.6	87.5	90.3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68.8	72.1	69.7	71.0	74.1	79.0
	사업비율	30.9	31.0	30.9	30.3	29.9	31.7
	합산비율	99.6	103.0	100.6	101.3	104.0	110.7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0.6	79.0	78.0	78.9	78.5	80.1
	사업비율	19.3	22.5	27.0	21.8	22.9	17.0
	합산비율	99.9	101.5	105.0	100.7	101.5	97.1
전 체	경과손해율	74.4	75.9	76.4	74.2	74.9	76.7
	사업비율	23.8	25.5	28.4	24.8	25.2	22.5
	합산비율	98.2	101.4	104.9	98.9	100.1	99.1

주 : 1) 기간별 수치는 개인연금, 퇴직보험 및 퇴직연금을 제외한 분기치임.

2)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보험료, 사업비율=순사업비/보유보험료,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임.

3) *는 위험손해율 개념이 아닌 재무손해율(적립보험료 및 각종 환급금 감안) 개념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2006-1 보험회사의 은행업 진출 방안 / 류근욱 2006.1
- 2006-2 보험시장의 퇴출 분석과 규제개선방향 / 김현수 2006.3
- 2006-3 보험지주회사제도 도입 및 활용방안 / 안철경, 이상우 2006.8
- 2006-4 보험회사의 리스크공시체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경희 2006.12
- 2007-1 국제보험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 및 대응방안 / 이장희, 김동겸 2007.1
- 2007-2 민영건강보험료율 결정요인 분석 / 조용운, 기승도 2007.3
- 2007-3 퇴직연금 손·익 위험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07.3
- 2007-4 확률적 프런티어 방법론을 이용한 손해보험사의 기술효율성 측정 / 지홍민 2007.3
- 2007-5 금융겸업화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채널전략 / 안철경, 기승도 2008.1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장동식, 김동겸 2008.1
-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3
-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이경희, 김동겸 2008.3
-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안철경, 권오경 2009.1
-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1
-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이해은 2009.3
-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이창우, 김동겸 2009.3
-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방법 연구 / 기승도, 김대환 2009.8

■ 조사보고서

- 2006-1 2006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세환, 조재현, 박정희 2006.3
- 2006-2 주요국 방카슈랑스의 운용사례 및 시사점 / 류건식, 김석영, 이상우, 박정희, 김동겸 2006.7
- 2007-1 보험회사 경영성과 분석모형에 관한 비교연구 / 류건식, 장이규, 이경희, 김동겸 2007.3
- 2007-2 보험회사 브랜드 전략의 필요성 및 시사점 / 최영목, 박정희 2007.3
- 2007-3 200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오승철 2007.3
- 2007-4 주요국의 퇴직연금개혁 특징과 시사점 / 류건식, 이상우 2007.4
- 2007-5 지적재산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7.10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기승도,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평가모형 및 측정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이정환, 최이섭, 정중영, 최태영 /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전선애, 최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오영수,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이민환, 윤건용, 최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김세환,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 최형선, 최원 2010.3

■ 정책보고서

- 2007-1 퇴직연금 수탁자리스크 감독방안 / 류건식, 이경희 2007.2
- 2007-2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 차일권, 이상우 2007.3
- 2007-3 퇴직연금 지급보증제도의 효율체계에 관한 연구: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이봉주 2007.3
- 2007-4 보험고객정보의 이용과 프라이버시 보호의 상충문제 해소방안 / 김성태 2007.3
- 2007-5 방카슈랑스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안철경, 기승도, 이경희 2007.4
- 2007-6 200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양성문, 김진억, 지재원, 박정희, 김세중 2007.12
- 2008-1 민영건강보험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 조용운, 김세환 2008.3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최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이태열, 신종협, 황진태, 유진아, 김세환, 이정환, 박정희, 김세중,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익, 이민환, 유경원, 최영목, 최형선, 최원, 이경아,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김경환,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변혜원,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경영보고서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2009.3 이기형, 한상용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익, 유시용,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최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김경환 2010.2

■ 영문발간물

- 1호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4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2
- 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5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5.8
- 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6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6.10
- 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7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7.9
- 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8.9
- 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2009.9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0호 선진 보험사 재무공시 특징 및 트렌드(유럽 및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장이규 2006.11
- 21호 지급여력 평가모형 트렌드 및 국제비교 / 류건식, 장이규 2006.11
- 22호 선진보험그룹 글로벌화 추세와 시사점 / 안철경, 오승철 2006.12
- 23호 미국과 영국의 손해보험 직판시장 동향분석 및 시사점 / 안철경, 기승도 2007.7
- 24호 보험회사의 자본비용 추정과 활용: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이경희 2007.7
- 25호 영국손해보험의 행위규제 적용과 영향 / 이기형, 박정희 2007.9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2
-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권오경 2008.7
-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김동겸 2008.7
-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익 2008.7
-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서성민 2008.9

■ CEO Report

- 2006-1 생보사 개인연금보험 생존리스크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6. 1
- 2006-2 보험회사의 퇴직연금 운용전략 / 보험연구소 2006.1
- 2006-3 생보사 FY2006 손익 전망 및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2
- 2006-4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손해보험본부 2006.2
- 2006-5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분석 및 과제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6 보험사기 관리실태와 대응전략 / 정보통계본부 2006.3
- 2006-7 자동차보험 의료비 지급 적정화 방안 / 자동차보험본부 2006.3
- 2006-8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6.4
- 2006-9 날씨위험에 대한 손해보험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4
- 2006-10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손익관리를 중심으로- / 손해보험본부 2006.5
- 2006-11 자동차 중고부품 활성화 방안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6.5
- 2006-12 장기간병보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방향 / 보험연구소 2006.6
- 2006-13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방안 / 보험연구소 2006.7
- 2006-14 생명보험 가입형태별 위험수준 분석 / 리스크·통계관리실 2006.8
- 2006-15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보험연구소 2006.9
- 2006-16 모기지보험의 시장규모 및 운영방안 / 손해보험본부 2006.9
- 2006-17 생명보험 상품별 가입 현황 분석 / 생명보험본부 2006.10
- 2006-18 자동차보험 온라인시장의 성장 및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6.10

- 2007-1 퇴직연금제 시행 1년 평가 및 보험회사 대응과제 / 보험연구소 2007.4
- 2007-2 외국의 협력정비공장제도 운영현황과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기술연구소 2007.4
- 2007-3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 보험연구소 2007.6
- 2007-4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보험산업의 진로 / 보험연구소 2007.7
- 2007-5 방키슈랑스 확대 시행과 관련한 주요 이슈 검토 / 보험연구소 2007.11
- 2007-6 자동차보험 시장변화와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7.11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이상우 2009.10

정기간행물

■ 간행물

- 보험동향 / 계간
- 보험금융연구 / 연3회
- 보험회사 재무분석 / 계간

『 도서 회원 가입 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보험회사재무분석 	-보험통계월보 (월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영문보고서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통계월보 -손해보험통계연보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5, 9080 팩스 : (02)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 지로번호 : 6360647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보험동향』 2010년 봄호 (통권 53호)

발행일 2010년 4월 일

발행인 김 대 식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연락처 02-3775-9000

인쇄소 대화인쇄 /02-2265-1330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동향분석실(☎3775-9077, 3775-9015)로 연락하여 주십시오.